발간등록번호
서울교육 2022-109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2022년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

ESG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2022.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연 구 과 제 명

ESG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관명 :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 연구책임자 :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공동연구원 : 권영태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수석연구원

김은주 한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재희 상계고등학교, 교사

○ 연구보조원 : 박나연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선임연구원

서진솔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주임연구원

○ 연구협력관 : 서우정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연구 용역 과제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요약문)

ESG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연구

요 약

□ ESG의 확산으로 ESG교육과 기존의 가치 교육, 특히 기존에 정규 교과 이외에 이미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문제가 제기됨.

□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말로 원래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함께 진행하자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임.

□ 그렇지만 이러한 좁은 의미를 넘어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까지 ESG의 의미는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교육에 접목하여야 하는 과제가 대두됨.

□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는 ESG는 크게 지속가능성 도시 비전으로서의 ESG과 기업 역할의 적극적 확장으로서의 ESG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과 ESG교육의 연계성을 해명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두루 살핀 바, 학계의 논의와 함께 이미 법제화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가치교육의 일환으로서 그 의미를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교육, 도덕교육 등 정규 교과에서 가치교육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제기된 부가적 가치교육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요 약

□ 민주시민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회적가치교육 등 제반 가치교육과 그 연계성에 대해 아직 학계의 논의는 많지 않음.

□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도 많고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장기간 이어졌으나 그 의미에 대한 합의점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학계의 논의나 법제화 추진 중인 내용 또는 조례화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치와 관련한 웬만한 좋은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통적으로 교과과목으로 이루어진 도덕교육과 사회교육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내용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중첩되는 측면이 상당함.

○ 통상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는 별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인권교육, 생태교육, 평화교육, 인성교육 등 제반 가치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면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중첩되는 측면이 상당함.

□ 민주시민교육을 가치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 정규 교과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기별, 주제별로 제기되는 제반 가치교육을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 포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발전, 사회적가치, ESG 등은 비교적 최근에 그 필요성이 대두된 가치교육으로 이 또한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으로 포괄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적 맥락에서 12+1의 사회적 가치로 나타나 그 실현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법제화까지 시도되고 있어 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요 약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사회적가치교육의 통합적 접근은 대두 배경과 구체적인 논의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나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의 포괄할 수 있음.

□ 기타 법제화된 가치교육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의 포괄될 수 있음.

□ 외국의 사례나 관련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ESG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나 벤치마킹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음.

□ ESG교육은 좁은 의미의 ESG 개념에 따라 경영학적 접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나마 넓은 의미의 ESG교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임.

□ ESG를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경우 초중고 공교육에서 ESG교육은 가치교육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됨.

□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회적가치교육, 기타 제반 가치 교육을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으로 포괄한 후 이를 사회운영원리로서의 ESG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치교육으로서 ESG교육을 자리매김하고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에 포괄되는 내용들을 ESG교육의 범주에 맞추어 재범주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요 약

□ 가치교육으로서 ESG 교육을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역 구분에 따라 환경 감수성 교육, 사회 감수성 교육, 참여 감수성 교육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 학교교육에서 ESG교육의 총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 내용적 방향성 : 가치교육의 ESG 관점의 범주 재편
○ 영역적 방향성 : 정서지능과 연계된 ESG 감수성 교육을 통한 사회 운영 원리의 습득
○ 교과적 방향성 :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재편을 통한 ESG교육의 실행
○ 학교급별 방향성 : 중학교 중심의 ESG교육이 바람직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나타난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은 ESG 관점에서 평가하면 실질적으로는 G에 해당함.

□ ESG 감수성 교육의 역량 요소는 관심역량, 공감역량, 행동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ESG감수성 교육은 정서지능 및 공헌역량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해명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 영역의 환경 감수성으로의 재구조화

○ 환경 감수성 교육은 환경교육, 생태교육, 녹색교육 등의 유사 명칭도 모두 포괄할 수 있음.
○ 환경감수성은 관심역량, 공감역량, 행동역량 중 무엇보다 환경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의미함.

요 약

□ 사회 영역의 사회 감수성으로의 재구조화

○ 사회 감수성 교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 공동체성 증진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음.

□ 지배구조 영역의 참여 감수성으로의 재구조화

○ ESG 중 G 곧, 지배구조는 사회운영원리로서 ESG를 상정할 때는 참여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참여 감수성 교육으로 정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의 범교과 학습 주제 현황을 ESG 관점에서 재편하되, 독자적인 교과서를 편찬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 감수성, 사회 감수성, 참여 감수성을 모두 반영하되, 사회 감수성 비중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음.

□ ESG교육을 반영할 수 있는 기타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에의 반영, 창의체험활동에의 반영을 들 수 있으며, 소비자교육에서는 그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임.

□ ESG 교육 시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며, 희망자를 우선시하는 ESG 교육 대상 학생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목 차

Ⅰ. 서론 ····· 1

1.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결과 활용 및 기대 효과 ····· 1

Ⅱ. ESG의 의미 ····· 2

1. 좁은 의미의 ESG ····· 2
1) 기업 경영과 ESG ····· 2
2) 좁은 의미의 ESG 정책 동향 ····· 8

2. 넓은 의미의 ESG : 사회 운영 원리로서의 ESG ····· 24
1) 지속가능성 도시 비전으로서의 ESG ····· 24
2) 기업 역할의 적극적 확장으로서의 ESG ····· 30

Ⅲ.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의 재규정 ····· 35

1. 좁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 35
1) 학계의 일반적 논의 ····· 35
2)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 추진 ····· 40
3) 법안 추진 중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 41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 44
5)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관련 논의 평가 ····· 47

2. 가치교육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 ····· 48
1) 정규 사회과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 48
2) 가치교육으로서의 사회과교육 ····· 49
3)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의 가치교육으로서의 자리매김 ····· 51
4) 법제화 또는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에 나타난 가치교육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 53

Ⅳ.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과 ESG의 연계성 ····· 55

1. 사회적 가치의 의미 ····· 56
1)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적 논의 ····· 56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 57

2.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 ····· 61
1) 법제화된 사회적 가치의 내용 ····· 61
2) 법제화된 사회적 가치와 정책 추진 주체들의 인식과의 내용적 괴리 65

3. 사회적 가치의 국제적 맥락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 70
1) SDGs의 기본 목표 내용 ····· 71
2) 사회적 가치의 국제적 맥락으로서의 SDGs와 국내적 맥락의 괴리 73

4. 제반 가치교육의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의 포괄 ····· 76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의 포괄 ····· 76
2) 법제화된 가치교육의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의 포괄 ····· 82

5. ESG의 대두 배경과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의 ESG교육으로의 포괄적 재편 필요성 ····· 85
1) UN 차원의 지구적 목표와 기업에 대한 요구의 규범화 ····· 85
2) 기업 차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용 노력 본격화 ····· 88
3) 기업의 ESG 수용의 의의와 향후 방향성 ····· 89

Ⅴ. 외국의 ESG 교육 사례 조사 ····· 92

1. ESG 교육 관련 국제규범 현황과 시사점 ····· 92
1) UN / UNESCO ····· 92
2) 유럽연합 ····· 108

2. 주요국의 ESG 교육 현황과 시사점 ····· 118
1) 사례분석 개요 ····· 118
2) 미국의 ESG 교육 현황과 시사점 ····· 119
3) 영국의 ESG 교육 현황과 시사점 ····· 124
4) 핀란드의 ESG 교육 현황과 시사점 ····· 129
5) 독일의 ESG 교육 현황과 시사점 ····· 135

Ⅵ. ESG교육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 142

1. 전문가 및 교사 의견 수렴 진행 현황 ····· 142

2. 전문가 및 교사 의견 수렴 질문지 ····· 143

Ⅶ. ESG 관련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방향 ····· 150

1. 학교교육에서 ESG교육의 총적인 방향성 ····· 150
1) 내용적 방향성 : 가치교육의 ESG 관점의 범주 재편 ····· 150
2) 영역적 방향성 : 정서지능과 연계된 ESG 감수성 교육을 통한 사회 운영 원리의 습득 ····· 151
3) 교과적 방향성 :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재편을 통한 ESG교육의 실행 153
4) 학교급별 방향성 : 중학교 중심의 ESG교육이 바람직 ····· 154

2. 가치교육의 ESG 관점의 범주 재편 ····· 157
1)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의 ESG 범주로의 재편 방향 ····· 157
2)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의 ESG교육 반영 방향 ····· 165

3. ESG 감수성 교육 ····· 172
1) ESG 감수성 교육의 의미 ····· 172
2) ESG 감수성 교육 개념의 적절성 검토 ····· 175
3) ESG 감수성 교육의 범주별 구성 ····· 182

4. ESG교육을 위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재편 ····· 191
1)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 ····· 191
2) 기존의 범교과 학습 주제 현황과 ESG 관점의 재구조화 ····· 193
3) 독자적인 교과서의 필요성 검토 ····· 197
4) E, S, G 각각의 비중 ····· 199

5. ESG교육을 반영할 수 있는 기타 교육 커리큘럼의 모색 ····· 203
1)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에의 반영 ····· 203
2) 창의체험활동에의 반영 ····· 205
3) 소비자교육의 검토 ····· 206

6. ESG 교육의 방법 ····· 208
1) 교사의 자율성과 ESG 교육 ····· 208
2)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용 ····· 209
3) ESG 교육 대상 학생의 범위 ····· 211

Ⅷ. 결론 ····· 213

〈참고문헌〉 ····· 216

Ⅰ. 서론

1.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 현대사회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 방향으로서의 ESG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ESG 교육 관련 쟁점의 정리와 분석 필요

○ ESG 연구와 제반 가치교육 이슈의 연계적 이해 부족

○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된 상황에 따른 가치교육 분야 영향력 탐구 필요

○ 초중고 공교육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치교육과의 연계성 해명 필요

2) 목적

○ 초중고 공교육에서 ESG가 가지는 의미의 규명

○ 사회발전 및 사회혁신 대안으로서의 ESG와 학교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성 연구

○ ESG 교육 관련 쟁점의 정리와 분석을 통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연계성 연구

○ 기존 가치교육과의 연관성 연구 및 학교교육 커리큘럼 개발 방향 제시

2. 연구 결과 활용 및 기대 효과

○ ESG교육의 관점과 방향 제시를 통한 학교교육의 체계적 재편

○ ESG교육을 활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방향 확립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으로서 ESG교육 내용 반영

Ⅱ. ESG의 의미

1. 좁은 의미의 ESG

1) 기업 경영과 ESG

1-1) ESG에 대한 일반적 논의[1)]

□ ESG의 개념

- ESG는 투자자가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이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재무적 사항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됨(정준혁, 2021).

○ 기업 경영에서 ESG의 의의

- 권재열 외(2022)는 기업 경영에서 ESG의 반영은 하방 위험에 대한 방어 곧, 자산 가치의 하락에 대한 방어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함.

- 김화진(2022)은 ESG와 헤지펀드 행동주의를 분석하면서 ESG를 표방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통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실천되어온 주주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불식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함.

□ 대두 배경

○ ESG 논의는 2000년대 UN 등 국제기구의 제창 하에 시작되었지만(정준혁, 2021), 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임.

○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은 6가지의 투자원칙을 제정해 ESG를 공시하도록 하는 사회책임투자를 권고함.

-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투자회사가 해당 원칙을 지키기로 서명

---

1) 이 단락은 소셜혁신연구소, “서울특별시의 ESG경영지원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의회 연구용역, 2022.6.)의 내용을 발췌, 보완한 것이다.

- 갑작스러운 변화는 세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순차적으로 ESG투자를 확대해 15년 후인 2020년에 책임투자원칙을 본격화하기로 약속함[2)]

- 2018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투자대상회사들에게 ESG를 강조함(정준혁, 2021).

- 2019년 미국 주요기업 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겠다고 선언함(정준혁, 2021).

○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노력이 구체화되고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ESG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 2년 사이에 가히 ESG 열풍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연기금, 기관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앞 다투어 ESG 투자와 경영을 선언하고 있음(정준혁, 2021).

○ 트리스타 브리지스와 도덜나 유뱅크(2022)는 MZ세대의 특징과 관련하여 ESG의 대두 배경을 설명함.

- 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MZ세대는 소득 불평등, 기후변화, 생물 대멸종 가능성이라는 현실에서 성장했음.

- 또한 MZ세대는 역사적으로 보건데 세계 어느 곳이든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상호 연결되어 있음.

- MZ세대의 젊은이들은 점차 더욱 더 목소리를 높여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가 너무 늦어지는 세상은 물려받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음.

---

2)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은?
이로운넷 입력 2021.03.31 05:00|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961

□ 유사 개념과의 차이[3)]

○ CSR과 ESG 개념의 차이

- CSR, CSV, ESG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논의의 시작은 1987년 브룬드란트 보고서에서 시작됨.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이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윤리적 책임의식

○ CSV와 ESG 개념의 차이

- CSV(Creating Shared Value) : 기업의 가치사슬 중 사회적 성과가 창출되는 지점을 찾아 사업화하는 사회적가치 창출전략

- 기존 CSR과 다른 점 : 기업의 비즈니스와 직접 연결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찾아낸 전략적 CSR

- CSR이 CSV로 업그레이드된 건 아니며 CSR은 보다 규범적이고 가치철학적인 상위개념

○ 기업의 투자 리스크 관리 평가 지표로서의 ESG

- 근본적인 개념은 기업이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견지하는 관점

- ESG의 주목적은 투자 리스크 관리

- ESG 평가의 핵심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한 각 산업별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해 해당 기업이 리스크와 기회요인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가, 또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

- ESG를 잘한다고 해서 곧바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것으로 연

3) 이은선, “사회적 가치와 ESG개념과 전개”, 한국법제연구원 6차 ‘사회적가치 법제포럼’(21. 3. 26.)

결하는 것은 곤란하며 따라서 단순히 ESG를 잘 한다고 해서 사회적가치가 잘 창출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글로벌 ESG 투자 규모[4)]

○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추정치에는 유의한 편차가 존재하나, 그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공통적으로 관찰 가능함.

- UN PRI(책임투자원칙) 참여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투자 대상 자산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ESG 투자 전략은 두 가지 방식, 곧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ESG 통합 전략 활용도가 높지만,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의 활용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투자펀드 규모는 2020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ESG 채권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3분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회복된 바 있으며, 녹색채권의 글로벌 누적 발행 총액은 2020년 12월 초까지 1조 달러를 넘어섬.

○ 또한 국내 ESG 투자자산 규모도 근래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국내 설정된 ESG 펀드 자산의 경우 2020년 하반기에 규모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국내 (원화표시) ESG 채권 상장종목의 경우 2020년 12월 중순 현재, 549개, 상장잔액은 82.6조원이며,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신규 상장된 종목은 376개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국내 사회책임투자의 규모는 국민연금기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연기금과 같은 공적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음.

---

4) 이시연, "국내외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KIF금융조사보고서 Vol.2021 No.1(한국금융연구원, 2021).

- 국내 금융회사들의 ESG 대응 단계를 평가하면 아직까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임.

1-2) ESG 평가 관련 논의

□ ESG 관련 논의의 많은 부분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고 있음.

□ ESG 평가의 개념[5)]

○ ESG 평가의 목적

- 지속가능성 및 CSR 제고와 책임투자 지표

- 각 목적 및 기능에 따라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함

- 해외 평가기관은 각 목적에 맞는 평과결과를 제공함

○ 현재 기업 평가 시 나타나는 결과

- 기업 대상 ESG 평가 시 주로 정규분포보다 한쪽 또는 양쪽에 쏠린 분포가 나타남

- 이는 규제준수 일변도의 ESG 대응 때문으로 분석

○ ESG 평가기준 변화

- 과거에는 지속가능성/책임투자 평가가 프로세스 중심의 정성적 평가를 진행

- 요즘은 성과중심의 정량적 평가로 발전

5) 장윤제, "국내 ESG 평가기관의 환경, 사회 평가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6차 '사회적가치 법제포럼'(21. 3. 26.)

□ ESG 평가 등급 관련 난맥상[6)]

○ ESG 등급 현황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경우 S, A+, A, B+, B, C, D 등 7등급으로 구분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투자 참고 자료로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을 활용하고 있는 바, AAA, AA, A, BBB, BB, B, CCC 등 7등급으로 구분

- 현재 시행중인 ESG 평가 지수만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

○ 문제점

- ESG 평가 지수가 난립함에 따라 일선 기업 현장에서는 ESG 어지럼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임.

- 평가 기관에 따라 같은 기업의 ESG 등급도 천양지차로 나오는 형편.

- 지수 평가기관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업의 ESG 등급도 서로 다른 차이가 나는 실정임.

- ESG 평가 지수가 기관별로 제각각인 이유는 ESG의 역사가 짧고, 아직까지 학문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6) “하긴 해야 하는데”…평가지수만 200개 ‘ESG 경영 어지럼증’
중앙일보 신문E3면 1단 기사입력 2021.04.21. 오전 5: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3095216

2) 좁은 의미의 ESG 정책 동향[7)]

2-1) 국민연금과 ESG

□ 국민연금의 ESG 투자[8)]

○ 국민연금 총투자규모 대비 ESG 투자 비중

- 전체 금융투자규모 기준 : 13.8%

○ 분석

- 총투자규모 대비 ESG 투자 비중 평가 시, 해외 투자, 대체투자에서도 ESG 관련 비중을 별도로 감안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비중으로 추정됨

- 국내 주식투자만 기준으로 할 경우 55.8%에 달하는 ESG 투자를 실행중

〈표 1. 국민연금 총투자규모와 ESG 비중〉

구분	총투자규모(2021)		ESG 관련	비중(%)
포트폴리오 추이 (시장가)	948,719	949조		
공공부문	-			
복지부문	201			
금융부문	948,106	948조	130.4조	13.8
국내주식	165,808	165조	92.0조	55.8
해외주식	256,625			
국내채권	339,991	340조	38.4조	11.3
해외채권	63,896			
대체투자	119,305			
단기자금	2,481			
기타부문	413			

7) 이 단락은 소셜혁신연구소, "서울특별시의 ESG경영지원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의회 연구용역, 2022.6.)의 내용을 발췌, 보완한 것이다.
8) 소셜혁신연구소 내부자료.

○ 국민연금 총투자규모

- 총투자규모 : 대략 900조

〈표 2.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단위 : 십억 원, 2022.1월 말 기준)

구분	현황 (말잔)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포트폴리오 추이 (시장가)	914,132	914,132	948,719	833,728	736,654	638,781	621,642
공공부문	-	-	-	-	-	-	-
복지부문	202	202	201	180	166	145	143
금융부문	913,027	913,027	948,106	833,138	736,079	638,217	621,018
국내주식	150,980	150,980	165,808	176,696	132,261	108,914	131,520
해외주식	238,011	238,011	256,625	192,752	166,528	112,961	108,279
국내채권	336,442	336,442	339,991	326,099	320,751	310,993	289,401
해외채권	65,022	65,022	63,896	44,883	30,462	26,587	23,274
대체투자	121,519	121,519	119,305	90,660	84,295	76,620	66,817
단기자금	1,054	1,054	2,481	2,049	1,782	2,143	1,727
기타부문	902	902	413	409	408	420	481

주1) 각 수치는 반올림이며 세부내역, 합계의 단수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주2) 2021년, 2022년 수치는 잠정치임

- 공표통계(2020년 기준) 운용금액 : 833조 7276억원

○ ESG 투자규모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범위 및 운용규모(2021년 말 기준)

- 국내주식
  · 직접운용 : 약 84.3조 원
  · 위탁운용 : 약 7.7조 원

- 국내채권
  · 직접운용 : 약 38.4조 원(액면금액 기준)

2-2) 중소기업 ESG 경영 현황[9)]

□ 기업의 대응 현황

○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ESG의 중요성에 대해 발 빠르게 인지하고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여 대응코자 하는 상황임

- 예: 2021년 기준, KB금융지주 ESG전략부, 신한금융 ESG기획팀, 우리금융 ESG경영부 등

○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중소 규모 기업들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ESG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 사업체 3,814천 개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3,809천 개로 99.9% 비중을 차지. 종사자수의 경우도 총 종사자 17,712천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5,883천 명으로 89.7% 수준

- 압도적인 비율의 사업체, 종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

○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제적인 경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황임.

- 'ESG 경영 중요성 인식, '중요하다' 응답 비율' - 70%

- 'ESG 경영 수준 - 5점 척도 기준, 2.9점으로 보통(3점) 이하'

○ ESG 담당 조직/담당자 현황

- ESG 위원회 설치(15.7%)

- 전담조직 설치(21.0%)

9) 경영 · 회계 · 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2년 1/4분기).

- ESG 담당 임원 있음(12.7%)
  cf. 대한상공회의소·KPC, 국내기업 300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 ESG 경영 현황

- 200개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중소기업 ESG 경영 현황 조사 결과

〈표 3. 중소기업 ESG 경영 현황 조사 결과〉

	문항	답변
1	기업 성과 달성에 ESG 경영이 중요하다.	4.38 (6점만점) 긍정 응답 비율 82.5%
2	올해 ESG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을 체감한다.	4.18 (6점만점) 긍정 응답 비율 76.0%
3	장기적으로 ESG 경영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36 (6점만점) 긍정 응답 비율 79.0%
4	ESG 운영을 전담하는 실무조직 또는 실무자가 있습니까?	예 12.5% 아니오 87.5%
5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을 위해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SG 관련 교육 지원(58.0%) 전문가 자문 지원(51.5%)
6	정부 및 기관에서 ①ESG 가이드북 ②온라인 교육 ③설명회 ④개별기업 컨설팅을 제공하면 이를 활용하겠다.	긍정 응답 비율 ①94.0% ②97.0% ③92.5% ④92.5%

□ ISC 제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로드맵[10)]

○ STEP 1.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진단하라

-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대한 진단은 ESG 경영 도입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음(Zacchetti and Ragaini, 2021).

-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 ESG 경영 자가진단표4)〉를 통해 노무, 안전, 윤리경영, 환경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기업의 ESG 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에는 경쟁사 분석, 업종별 규제 분석, 업종 관련 최근 이슈 분석, 주요 이해자 분석 등이 포함됨.

10)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2년 1/4분기).

○ STEP 2.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라

- 경영이념을 설정하고 ESG 전략과 정렬하라 - 모든 노력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정렬하기 위해 경영이념 - ESG 전략 간의 정렬이 필요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특화된 ESG 전략을 설정하라 - 1단계 진단에서 도출된 AS-IS 와 TO-BE 사이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ESG 방침을 선포하고 리더십을 공고히 하라 - 방침에는 의지(will)와 방향성(direction)을 내포하는 것이 중요

○ STEP 3. ESG 경영 실행을 위한 우선과제를 선정하라

- ESG 전략을 바탕으로 도출된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높은 우선선순위의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STEP 4. ESG 경영인프라를 갖춘 조직으로 변화하라

- 본격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 실행 역량을 갖추는 단계로 의사결정 레벨에서 실무자급 레벨까지 전사적 ESG 경영 체계를 설계·구축해야 함.

- 단기 과제: ESG 전담 조직 구축, 임직원 대상 ESG 교육

- 장기 과제: ESG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ESG 조직문화 정착

○ STEP 5.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라

-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ESG 경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함.

- STEP 5는 다시 STEP 1과 연결되어, STEP 5의 결과를 STEP 1 과정에 반영

2-3)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ESG 촉진 정책[11)]

□ 기본방향

○ 대목표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참여를 통한 저탄소(E)·포용(S)·공정(G) 경제로의 대전환 촉진

○ 추진 원칙

- “규율”보다 “지원”에 초점

- ESG 인식개선 중점 추진

-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설계

- 중소기업 부담·혼란 최소화

- 자발적·능동적 참여 유도

- 공공부문이 ESG 확산 뒷받침

○ 연간 목표

- SG 자가진단 50,000개사/年

- ESG 심층진단 600건/年

- ESG 교육·컨설팅 5,000개사/年

- 中企 ESG 우수사례 공시 50건/年

11)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중소벤처기업부, 2021. 11. 23.)

□ 추진방안 1 : 중소기업 ESG 인식제고

○ 중소기업 맞춤형 ESG 체크리스트 마련·활용

-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 중소기업 ESG 플랫폼

-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中企 지원사업 적용

○ ESG 교육·컨설팅

- CEO 교육 및 컨설팅

- ESG 전문인력 양성

○ ESG 사례집 발간

□ 추진방안 2 : 중소기업 ESG 생태계 조성

○ 민간의 자발적인 ESG 확산 유도

- 대·중견·공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

- ESG 자상한기업 발굴

- ESG 유망 창업기업 육성

○ 부문별 맞춤형 지원

- ESG 수출규제 대응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 사회적책임경영 확산

- 윤리·지속가능경영 촉진

□ 추진방안 3 :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

○ 거버넌스 구축

-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

- ESG 통합 소통채널

○ 거버넌스 확산

- (지역) 지방중기청 및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협회·단체 지부 협업

- (민간) 민간 및 해외 ESG 평가기관 협업

□ 중앙정부 정책 평가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은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의 체계화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참여를 통한 저탄소(E)·포용(S)·공정(G) 경제로의 대전환 촉진이라는 대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ESG경영을 통한 기업 차원을 넘는 경제 전반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E, S, G 각각의 목표를 저탄소 경제, 포용 경제, 공정 경제로 설정한 것도 근본적으로 기업 활동의 궁극적 목표상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ESG 경영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폭넓게 제시하고 있으나, ESG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시는 부족한 실정임.

○ 중소기업의 ESG에 대한 인식 제고, 중소기업 ESG 생태계의 조성,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의 구축 등 3축으로 ESG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ESG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시로 볼 수 있는 추진 방안은 ESG 수출규제 대응 정도임.

2-4) K-ESG(가이드라인 v1.0)

□ 개요

○ 제작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제작처 :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본부

○ 제작 시기 : 2021년 12월

□ 추진 배경

○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증가

-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

- 투자의 기준으로 ESG를 활용하는 금융·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ESG 공시에 대한 규범화 확대(EU, 영국 등)

○ 기업의 ESG 경영 추진과 평가대응 애로 증가

-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시간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ESG 경영 도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국내·외 600여 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기업에서 각각의 평가기준, 평가방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또한,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은 기관마다 고유한 평가 프로세스, 지표, 측정산식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일관된 평가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가 쉽지 않음

□ 구성 방향

○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

-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ESG 경영 요소와 평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평가항목 제시를 위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지표와 공시기준 등을 분석하여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61개 사항 마련

- DJSI, MSCI, EcoVaids, Sustainaly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 주요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공시방법, 사용단위 등 항목별 평가기준 기반의 항목해설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 제고

○ 국내 상황을 고려한 ESG 요소 제시

- 각 분야별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

- 글로벌 기준 중심의 기본 진단항목, 글로벌 기준에서도 일부 사용 되고 있거나 국내 제도에서 중요시하는 ESG 경영 요소를 추가 진단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

- 기업의 ESG 추진 속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글로벌 기준부터 국내 제도를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

- 주요 해외 ESG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해외와 국내의 사회문화적·법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계

- 국내 특성이 고려된 진단항목 개발 시, 해외 지표와의 연계성 해설을 통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 전반의 ESG 수준 제고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일반)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을 두고 기업 스스로 ESG 경영 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활용가이드 제시

- 또한, 국내외 평가지표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의 제시를 통해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평가대응 역량 확보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전략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우선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선별 제시(27개 항목)

- (평가·검증기관) ESG 평가 시 K-ESG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평가·검증기관의 니즈를 고려하여 기본 진단항목 외 대체·추가 항목 제시

□ K-ESG 가이드라인 항목 구성 개요

○ K-ESG 가이드라인 분류 체계

- (영역) 앞서 기술한 ESG 정의를 기반으로 ESG 관련 정보 공개 여부 측정 항목 추가하여, 정보공시(Public),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4개 영역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대분류 설정

- (범주) 국내외 ESG 공시/평가기준에서 공통 제시 이슈 기반으로, 조직이 ESG경영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설정

- (진단항목) 가이드라인 각 '범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성·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세부 항목

○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

- (항목정의서) 조직의 ESG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 설명, 점검 기준 및 단계 등 진단에 대한 방향성과 예시 제공

- (추가설명) 각 진단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한 ESG경영 방향성과 성과 점검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기술. 진단항목에 따라서는 대체 진단 기준 및 활용 근거 설명

- (용어정리) 항목정의서 및 추가 설명 중 별도 기술 필요 용어 정의

- (참고자료) 항목정의서에 기술된 설명, 산식,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해외 유사 지표 제시

○ 추가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

- (추가 진단항목 정의) 각 영역의 범주별로 산업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는 글로벌 평가지표에 속하지는 않으나 ESG 경영의 추가적인 필요요소를 제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항목

- (활용)
  ① 기본 진단항목 적용 불가 시 대체 활용
  ② 기본 진단항목 외 추가적으로 조직의 ESG 성과 점검
  ③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에 활용(ex. 산림탄소흡수량, 고졸직원 채용 등

□ 진단항목 정의서 특징

○ 기본 진단항목의 단계별 상세 기준 및 방향성 제시

- 국내/해외 ESG 평가 지표의 경우 ESG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기업들의 자가진단 불가 → 과도한 비용/노력 소요

-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은 단계별 상세 기준 및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 기업들이 진단항목의 기준 및 방향성을 활용해 스스로 성과를 진단하고 ESG 성과 목표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 글로벌 지표와의 정합성, 한국적 특성 반영, 법/제도 정합성을 반영하여 실제 경영환경에서 ESG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마련 지원

○ 자가 진단을 위한 기본 진단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진단항목 체계를 통해 제공

- ESG 경영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각 영역(ex.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하위 범주들로 구성하여 정보 제공

- 개별 진단항목 개발 시, 단계별 기준에 대한 기준 제시 및 추가적 설명을 통해 ESG 자가진단을 위한 상세한 정보 제공

- 각 영역의 범주별 ESG 수준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제공

○ 기본 진단항목 외 추가/대체 활용 가능한 추가 진단항목 제시

- 기업의 ESG 수준 및 성과는 기본 진단항목을 활용해 진단

- 다만, 기본 진단항목으로 평가가 불가하거나, 기본 진단항목이 아닌 특화된 항목으로 진단을 원할 경우 개별

- 기업/기관의 니즈를 고려해 활용에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진단항목 제시

-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제시

- K-ESG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ESG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

- 기업이 자체적으로 ESG 현황과 수준을 진단할 경우 ESG 경영 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진단항목 구성

- 그 외에도 평가 및 검증기관이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ESG 수준 평가 및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5) 윤석열 정부의 ESG 관련 정책 분석 : 110대 과제 평가

□ 총론적 평가

○ 시대적 요구로서의 사회적 가치, 국제적 기준으로서의 ESG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어 보이나 해결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근시안적 사고에 머물러 있음

○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적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 많은 분야에서 이전 정부의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 하는 이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함

- 시대적 과제라 할 ESG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 제반 분야에서 문 정부의 성과가 후퇴될 우려가 있으나, 특히 노동 분야에서 노동인권 후퇴가 예상됨

- 중대재해 방지, 노동시간 유연화,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 파업 대응 등에서 큰 폭의 노동인권 후퇴가 우려됨

□ 각론적 평가

○ 국정운영원칙에도 사회적 가치 증진, 복지 강화, ESG 국제기준 등은 배제되어 있음

2-6) 윤석열 정부의 ESG 관련 정책 분석 : 공약 분석

□ 좁은 의미의 ESG 공약

○ 총적 방향 : 중소/벤처기업 ESG경영 지원 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

- ESG 평가 지표의 표준화 추진

- ESG지표를 활용한 기업의 현황 평가, 금융·세제 지원, 경영· 법률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지원 강화

○ 대기업 협력 중소/벤처기업 등에 ESG 경영역량과 기술협력 추진

- ESG관련 다양한 대/중소/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 평가

- 이미 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ESG 경영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법정책이나 세부적인 정책 보완 필요해 보임

□ 지배구조 관련 공약

○ 총적인 방향 : 기업관련법의 정비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 경제적 공동관계의 부존재 증명 시 예외 인정 등

○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 평가

- ESG의 한 축인 지배구조 개선 관련 실질적인 공약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님

- 중소기업 관련 공약이 많이 제출되어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음

- 주주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SDGs, ESG 등을 고려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경제 트렌드를 윤 정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넓은 의미에서 ESG는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윤 정부의 이해도와 비전 제시가 미흡해 보임

2. 넓은 의미의 ESG : 사회 운영 원리로서의 ESG

1) 지속가능성 도시 비전으로서의 ESG

1-1) 지속가능성 도시 비전으로서 ESG의 의미[12)]

□ 지속가능도시 비전

○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도시에 대한 영향

- 지난 200년 간 인류는 예외적 성장시대를 구가했고 그에 따라 도시도 끊임없이 성장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성장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

- 성장에 반대하는 반성장 패러다임도 존재했지만 이제는 성장과 반성장 도시 패러다임 모두 사실상 무용해졌으므로 제3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도시를 추구해야 함.

- 저성장 시대의 도래가 도시의 외형과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고 탐구해야 함.

- 한 나라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는 도시를 떠날 수 없다면 우리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변혁해야 함.

- 도시 비전과 기능적 필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함.

- 20세기 성장의 시대에서 도시계획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간수요를 양적으로 충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21세기 지속가능성 시대의 도시계획은 환경과 문화 측면에서의 공간수요를 질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중요해짐.

- 도시의 경제수준에 맞춰 건물과 각종 인프라를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이 과거의 도시계획이었다면 우리 시대의 도시계획은 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공간적으로 구현함과 동시에 이를 디자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음.

---

12) 이 절의 내용은 정원오, 『지속가능도시, ESG - ESG에 Economy를 더해 지속가능도시를 탐구하다』(서울 : 라이스메이커, 2021)의 주요 부분을 발췌, 정리한 것임.

- 따라서 우리 시대의 도시계획은 도시디자인의 수단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거룩한 대의명분이나 숭고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첨예한 가치며 급박한 현실문제임.

-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바 없이,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을 지속가능성이라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불러온 경제양극화, 기후변화, 사회갈등과 같은 위기들의 전개양상은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넘어 미래 그 자체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음.

○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3대 위기

- 경제위기, 기후위기, 사회위기

○ 지속가능도시를 만드는 3가지 힘

- 견뎌내는 힘(회복탄력성), 나아가는 힘(혁신), 떠받치는 힘(포용)

- 이는 곧 지속가능도시의 의미이자 가치와 목표가 됨

○ 지속가능도시의 의미 1 : 회복탄력성이 강한 도시

-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경제위기, 기후위기, 사회위기를 '견뎌내는 힘'이 강한 도시

○ 지속가능도시의 의미 2 : 강력한 혁신역량을 갖춘 도시

- 오늘의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위기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낯선 위협으로 기존 방식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음.

-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미래로 전진하는 '나아가는 힘'이 강한 도시

○ 지속가능도시의 의미 3 : 포용의 도시

- 혁신은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융합될 때 창출되며 작은 차이로 편을 가르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도시는 결코 혁신할 수 없을뿐더러 위기를 견뎌낼 수 없음

- 포용적 사회라야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집단지성이 형성될 수 있고 이에 힘입어 사회는 끊임없이 혁신하며, 이를 통해 사회는 어떤 위기에도 견뎌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추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포용은 지속가능도시의 기초로 '떠받치는 힘'이 강해야 견뎌낼 수 있으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

○ 회복탄력성, 혁신, 포용의 관계

- 포용은 혁신의 원동력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바탕임.

- 산업 생태계의 전환주기가 짧아진 4차산업혁명 시대, 환경문제가 새로운 기술혁신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며 또 다른 창조적 파괴를 발생시키고 있는 ESG 시대에 도시는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압력에 노출돼있음.

- 과거에는 한 번 자리 잡은 산업과 사회구조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여년 이상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일상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시장을 창출하는 도시만이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포용은 도덕이 아닌 현실적 실천과제임.

- 지속가능한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그래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술혁신과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할 수 있음.

- 지속가능도시를 건축물에 견주어 보면, 포용적 사회는 꼼꼼한 기초공사로 단단히 다져진 지반임.

- 초가집을 짓다가 벽돌집을 거쳐 콘크리트 아파트로 발전하듯, 공법의 혁신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집에서 오래도록 편히 지낼 수 있는 바, 혁신역

량은 그 지반 위에 집을 짓는 공법에 비유할 수 있음.

- 단단한 지반과 혁신적 공법의 결합을 통해 건축물은 비와 바람, 또는 화재와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게 되며, 이와 같은 건물의 구조적 특성이 도시에서는 회복탄력성임.

1-2) ESG가 지속가능도시 비전이 되기 위한 재의미화

○ 재의미화의 필요성

- 공공이 기업의 ESG 담론과 그 체계를 원안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 기업은 경제활동의 당사자로 그들이 말하는 ESG는 합리적 지배구조에 의한 기업경영을 통해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Economy를 논할 필요가 없음.

- 이와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민경제와 도시경제의 조정자며 관리자로 공공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려면 ESG에 반드시 Economy가 추가돼야 함.

- 왜냐하면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를 통해 경쟁에서 탈락한 약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확충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이기 때문임.

- 도시를 경영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미션은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이며, 여기서 경제는 필수적인 관리 영역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경제와 도시경제가 반칙과 특권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관리하며 창의적 개인과 법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함으로써 국민경제와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짐.

- 이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야경국가의 신화가 무너지며 정립된 공공의 역할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유행할 때도 국민경제와 도시경제의 조정자

로서 공공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경제상황과 정책적 트렌드에 따라 권한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길 반복했을 뿐임.

- 따라서 지속가능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Economy를 더해야 함.

○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도시 실천과제로서의 EESG : ESG + E

-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협치) + Economy(경제)

- 도시환경, 도시사회, 도시정부 + 도시경제

○ Economy(경제)

- 지방정부의 기본 임무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펼쳐지는 도시공간구조의 틀을 짜고 관리하는 것임.

- 도시계획수단을 통한 도시디자인 정책은 창조적 인재와 혁신기업을 결집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임.

- 또한 경제양극화를 유발하는 토지이용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함.

○ Environment(환경)

-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자기 삶의 문제로 여기며 에너지 절약,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재활용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함.

- 또한 지방정부는 친환경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을 세심하게 지원해야 함.

- 환경혁명을 선도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은 경제혁명을 캐치업하던 개발도상국 대한민국과 달라야 함.

- 대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 친환경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현재로서는 더욱 중요함.

- 국민의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과거의 국산품 애용 캠페인처럼 강요되면 안 되며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자기 삶의 문제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준비돼야 함.

-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의 경제혁명이 탑다운(Top-down)이었다면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경혁명은 바텀업(Bottom-up)이 되어야 함.

○ Social(사회)

- 계층과 세대, 젠더로 나뉜 채 갈등하는 도시는 지속가능할 수 없음.

- 시민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인간으로 품격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사회의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함.

- 포용은 지속가능도시를 떠받치는 힘임.

○ Governance(협치)

- 지속가능도시는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만들어지며 소수의 천재보다 대중의 지혜가 위대함.

- 지방정부는 집단지성을 제도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EESG의 구체적인 실천과제

○ 도시환경 : 지구를 지키는 혁신과 참여

- 도시환경 실천과제 1: 도덕이 아닌 필요로의 인식 전환

- 도시환경 실천과제 2: 친환경 기술혁신 지원

- 도시환경 실천과제 3: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도시사회 : 지속가능도시를 떠받치는 튼튼한 사회

- 도시사회 실천과제 1: 포용성 증진

- 도시사회 실천과제 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 도시사회 실천과제 3: 사회적경제 활성화

○ 도시정부 :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지속가능성

- 도시정부 실천과제 1: 집단지성으로 합리성과 반부패 성취

- 도시정부 실천과제 2: 집단지성 제도화

- 도시정부 실천과제 3: 참여와 협치의 효능

○ 도시경제 : 모두가 누리는 도시의 매력

- 도시경제 실천과제 1: 사람 모으기

- 도시경제 실천과제 2: 도시의 매력 강화

- 도시경제 실천과제 3: 균형 유지

2) 기업 역할의 적극적 확장으로서의 ESG

□ 전통적으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평가가 공존해왔음.

- 자유의 정신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에 기반하여 혁신을 통한 미래의 선도자이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공동체의 번영을 책임지는 선한 청지기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이익 추구의 마음과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에 기반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노동자와 중소업체에 갑질을 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지역상권을 황폐화시키는 악한 탐욕자의 얼굴로도 자주 등장함. (배종석 외, 2021)

□ ESG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는바 기업의 역할을 점차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

○ 현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ESG의 채택이 필수적이라는 논의가 다수임

- 사회적가치연구원장 나석권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평가함(알렉스 에드먼스, 2021)

- 알렉스 에드먼스(2021)는 ESG에 대해 자본주의 이분법 곧, 사람과 이윤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원칙으로 이해하며 이를 '파이코노믹스(Pieconomics)'라고 명명함. (소셜혁신연구소, 2022)

- 파이코노믹스에서 파이(pie)는 전통적인 의미의 '이윤'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의미함(알렉스 에드먼스, 2021)

- 기업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전제한다면, 기업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가 역할을 분담할 필요하다고 봄(알렉스 에드먼스, 2021)

○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해결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결과 간접적 또는 부대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임.

- 정준혁(2021)은 ESG의 목적에 대해 투자자와 기업의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근로 환경과 인권, 양성 평등과 빈곤 해소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음.(소셜혁신연구소, 2022)

○ 훨씬 더 나아가 기업이 아니면 사회문제의 해결이 불가하다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 기업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이슈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함(헨더슨, 2021)

- 이에 대해 에드먼스는 기업이 본연적으로 영웅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깨어 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함(알렉스 에드먼스, 2021)

- 나아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처럼 ESG 유행 물결이 좌우의 이념 논리를 훌륭하게 통합해냈다고 주장하는 논의도 있음(알렉스 에드먼스, 2021).

□ 리베카 헨더슨의 논의(헨더슨, 2021)

○ 리베카 헨더슨(2021)은 ESG를 통해 시장/규제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비즈니스가 되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고까지 주장함.(소셜혁신연구소, 2022)

○ 헨더슨은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다섯 단계로 제시함

- 주주우선주의에서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공유가치 창출을 기업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단계임

- 목적 달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목적지향적 기업으로 변화해야 함

- 기업이 내세우는 공유가치가 수익과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기업의 목적을 자각한 상태여야 하고, 이는 곧 구성원에 대한 더 나은 대우, 더 많은 권한 위임을 뜻함.

- 재무적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기업의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행동이 단기적 이익 추구에서 장기적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무를 재설계〕해야 함.

-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는 어느 한 기업의 정화만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네 번째 단계로 생태적·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이 시장을 지배할 수 없도록 업계·지역 내 〔자율 규제〕라는 협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자율 규제 강화를 위해 〔제도와 시장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민간 분야가 어떻게 바람직한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임.

○ 종합적으로 헨더슨은“기업을 공공의 목적에 복무하도록 재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무장한 기업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 지구상에 산재한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말함

□ ESG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성격 전환에 대한 논의, 예컨대 자본주의의 인간화 또는 깨어있는 자본주의 등의 논의와 연결됨.

○ 고이 평화재단의 경우 『깨어있는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금융 위기와 다양한 문제 속에서도 세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계 각국 지식인들의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자본주의 아래서 우리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시사함(고이 평화재단, 2010)

○ 1980년대 신자유주의 지도자로 악명 높은 영국의 전 총리 마가렛 대처는 대중자본주의 논리를 주창한 바 있음.

-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살벌한 시장 논리를 밀어붙이면서도 노동자들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통해 자수성가하여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음(네이버 지식백과)

○ 자본주의의 인간화 논의는 자본주의를 수용하되 시장경제의 상대적 자율성, 비판적 여론과 공공성의 존재, 공동체 전체와 관련하는 규범들 간의 조화 등을 강조함(네이버 지식백과)

□ 기업의 역할 변화는 근간에서 주주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자본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음.

○ 린 스타우트는 경영학의 금과옥조로 여겨져 온 기업의 목적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경영학의 기본 명제에 대해 사실은 기업법상의 근거가 없고,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 면에서도 오류가 드러났으며, 심지어 주주 자신에게조차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함(린 스타우트, 2021)

- 린 스타우트의 주장에 따르면 주주 가치라는 개념은 기업법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도 견고한 토대 없이 형성된 허상에 불과함.

-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생각, 주주가 기업의 이익에 대해 유일한 잔여 청

구권을 가진다는 생각, 주주가 주인으로서 경영진을 대리인으로 둔다는 생각은 모두 잘못임

- 이것은 개인 사업체나 빚 없이 한 사람이 지분 전체를 소유한 사업체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상장기업의 경제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Ⅲ.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의 재규정

1. 좁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1) 학계의 일반적 논의

□ 민주시민교육 관련 일반적 학계의 논의

○ 개념 정의

- 민주시민교육 곧, 민주적 시민교육은 민주적 시민권/시민성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되며 단순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식을 기계적으로 전달하거나 순응적 덕목을 주입하는 공민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교육(심성보, 2011)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 시민적 역량을 기르게 한다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정확히 무엇인지, 세부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잘 알기가 어려움(김혜자 외, 2021)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의 주요한 덕성·인성인 민주적 교양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국가와 시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감시자로서 정당성과 도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민주시민의 수준 높은 교양 능력은 필수적임(심성보, 2011)

○ 민주시민교육에서 지식의 성격 (심성보, 2020)

- 민주시민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지식이 왜 중요한가,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하는 점을 비판적 ·실천적 사실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중시함.

- 입시 위주의 단편적 지식교육의 폐해가 매우 컸던 만큼 단편적 암기만을 중시하는 지식교육, 삶과 무관한 지식교육은 경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해서 지식 무용론, 반-지성주의로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함.

-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할 따름이라는

비판적 관점도 제기되고 있는 바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힘이 있는 지식을 마땅히 교육과정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봄.

○ 민주시민교육의 연혁

-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및 실천이 태동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임.

- 해방 이후 1960년까지를 민족주의적 시민교육,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를 국민 동원적 민주시민교육, 1980년대 6월 항쟁 이후를 자유주의적 시민교육으로 보는(심성보, 2011) 견해가 있음.

- 촛불혁명 이후 개최된 교육대전환선언운동과 순회토론회에서는 학교와 마을의 상생,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 해소,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실현, 평생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개혁, 대안교육 활성화 등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로 제안함(김태정·심성보, 2022)

- 2018년 11월 정부는'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민주학교를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학교'라고 정의함.(김혜자 외, 2021)

-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 300개가 넘는 민주학교가 생길 만큼, 민주시민교육은 많은 학교의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김혜자 외, 2021)

○ 민주시민교육의 포괄 범위

- 도덕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교양교육, 봉사학습 등은 모두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확장으로(심성보, 2011) 이해됨.

- 학생들의 민주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교육이 중요한 바, 인권교육이 밖을 향한 구호·주장 운동으로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폭력을 성찰하는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격교육과 내공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행복한 시민을 양성하는 행복교육이 동시에 필요함(심성보, 2011)

- 평화교육은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평화교육 없이 인권교육이 존재할 수 없고, 인권교육 없이 평화교육이 존재할 수 없음(심성보, 2011)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 일반적 의의

- 학교교육은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과 관료화된 학교교육으로 인해 민주적 삶을 경험하도록 하지 못했음(심성보, 2011)

-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므로,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학교에서 인간 존엄, 평화, 인권, 존경, 정의, 관용 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생활할 때 학생들은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이해함.(심성보, 2011)

- 민주시민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통해 탄생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바, 학생들이 학교의 전 교육과정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체험을 하도록 해야 함(심성보, 2011)

-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김혜자 외, 2021)으로 이해함.

- 기후 변화, 미세먼지, 코로나19 감염병 등, 우리 앞에는 공감하고 연대하며,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바 민주시민교육을 지나 경쟁 대신 연대를, 지식보다 교양을 익히는 민주학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김혜자 외, 2021)

- 어린이를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학교에서 살아가는 동반자로 보는 것으로 특히 학년이나 학급생활 약속을 학생들이 직접 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 생각을 말하면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

은 모두가 정한 약속에 대한 스스로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됨. (김혜자 외, 2021)

○ 학급회의나 학생자치는 일반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짐

-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봄(김혜자 외, 2021)

○ 공간주권으로서의 학교민주시민교육(김혜자 외, 2021)

- 공간주권은 학생들이 학교 공간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며 또 자신의 삶에 맞게 공간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임

-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공간주권을 배운 중학생들은 탈의실이 없는 교실, 화장실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를 하나씩 바꿔나감

- 학교에 스민 차별을 하나씩 없애고, 학교를 자신들에게 편안한 곳으로 바꾸며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한 학생들은 학교를 넘어 거주하는 도시에 부족한 공공기관까지 세우게 됨

- 이를 통해 자기 삶의 주체로 서는 능동적인 교육의 힘을 만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과 다른 교육과의 관계성 문제

○ 도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

- 도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배치되는 관계로 보는 견해에서는 도덕성과 시민성의 관계 해명, 도덕교육과 시민교육의 목표 갈등, 시민교육과 도덕교육의 융합(심성보, 2011)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도덕교육을 넓은 의미의 인격교육과 시민교육 그리고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을 포함(심성보, 2008a)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학교와 학교밖 민주시민교육의 관계

○ 민주주의 교육 일반과의 관계

- 민주시민교육은 단지 학교만의 문제로 보는 견해는 없으며 거시적인 민주적 교육체제의 수립의 일환으로 이해됨(심성보, 2018)

- 광장민주주의는 정치민주주의와 함께 생활민주주의, 곧 가정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 등으로 진화·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의 출현을 위해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주체 형성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민주적 주체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심성보, 2018)

- 자기가 사는 가까운 마을을 중심으로 학습동아리 등 문화적 진지를 구축하는 등 거시적인 민주적 교육체제의 수립과 함께 미시적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보며 민주적 교육체제를 지켜내는 주체적이고 자율적 정신과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고 봄.(심성보, 2018)

○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김용련 외, 2019)

- 현재 한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방과후학교나 진로교육 정도로 제한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지역을 서로 연결하여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연결체가 되어야 함.

- 외국의 경우 커뮤니티 스쿨(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커뮤니티 센터(캐나다), 교육복지(프랑스), 학부모교육(독일), 지역사회학습센터(제3세계), 전환(대안)교육(덴마크), 사회적 협동조합(영국) 등 다양한 각국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교육 본연의 목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을 보편적인 맥락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의미함.

2)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 추진

□ 민주시민교육 법안은 지속적으로 제출되어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만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음.[13)]

- 의안번호 2109527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2021-04-16

- 의안번호 2109084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의원 등 14인) 2021-03-24

- 의안번호 2105818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2인) 2020-11-27

- 의안번호 2102063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박찬대의원 등 12인) 2020-07-16

- 의안번호 210005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의원 등 18인) 2020-06-01

□ 제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이미 제출된 바 있음.

- 의안번호 2002333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2016-09-19

- 의안번호 2019019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2019-03-07

- 의안번호 2023728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철희의원 등 12인) 2019-11-12

- 의안번호 2109527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2021-04-16

- 의안번호 2109084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의원 등 14인) 2021-03-24

- 의안번호 2105818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2인) 2020-11-27

- 의안번호 2102063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박찬대의원 등 12인) 2020-07-16

- 의안번호 210005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의원 등 18인) 2020-06-01

그 이전에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다수 제출됨. 대표적인 것만 살펴도 다

13) 의안정보시스템. 2022년 8월 18일 검색.

음과 같음.[14]

- 1997년 10월 31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박명환 의원 등)

- 2000년 1월 3일 시민교육진흥법안(김찬진 의원 등)

- 2007년 6월 5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은영 의원 등)

- 2015년 1월 22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언주 의원 등)

- 2015년 2월 5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 의원 등)

3) 법안 추진 중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 2019년 이후 일반적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과 별도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법안화가 추진됨.

□ 가장 최근 추진된 의안번호 2109084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의원 등 14인, 2021-03-24)의 제안이유과 주요 내용과 다음과 같음.[15]

○ 제안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릴 때부터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를 익혀야 합니다. 민주적 사회 운영 주체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기본법」은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 이념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합니다. 분과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입시 위주 교육제도와 성적 지상주의 및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때문입니다.

14) 19대 국회 이전의 민주시민교육법안 제출 목록은 권영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교육의 연계 거버넌스 구조 제안", 2020년도 한국NGO학회 춘하계 공동 학술회의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연계방안』(한국NGO학회,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세종연구원 공동주최, 2020. 6. 19.) 발표문에서 인용함.

15)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일 2022. 8. 18.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마련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 추구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권자로서 국가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요내용

① 이 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교육기본법」의 교육 이념인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육성하고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②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적 시민역량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③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매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5조).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안 제10조).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⑦ 학교의 장은 효과적인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14조).

⑧ 정치적 공정성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학교시민교육의 포괄 내용

○ 의안번호 2109084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의원 등 14인, 2021-03-24)의 제2조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목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② “민주시민교육”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적 시민역량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교육 활동을 말한다.
③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④ “핵심 가치”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정의, 자유, 평등, 평화, 관용, 존중, 연대 등 민주공화국 운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말한다.
⑤ “핵심 능력”이란 핵심 가치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판단능력, 갈등조정능력, 적극적 사회참여 능력, 타협할 수 있는 능력,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능력, 변혁적 능력 등을 말한다.

○ 의안번호 2109084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의원 등 14인, 2021-03-24)의 제6조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① 핵심 가치 및 핵심 능력
② 헌법의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③ 인권, 환경보호, 노동권, 평화 및 통일 지향, 양성 평등, 미디어문화 등 시대적 삶의 가치
④ 학교 안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⑤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
⑥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 및 사회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능력
⑦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
⑧ 자본주의 원리, 시장, 경제민주주의, 재정 및 조세의 기능 및 운영원리

⑨ 비판적 분석과 판단능력, 사회적 현안 파악 및 참여 방법
⑩ 시민의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 및 사회문제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사고
⑪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제도 및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책임
⑫ 그 밖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의안번호 2109084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의원 등 14인, 2021-03-24)의 제5조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① 학교는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핵심 가치와 핵심 능력을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에 기초하여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자립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입장에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매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 학습 주제들을 포괄하여야 한다.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 오랜 법제화 추진에도 국회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의안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5645호로 2014. 1. 9. 제정, 시행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조례는 2020. 12. 31.부터 시행중임.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제2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함.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제4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는 3가지를 제시함.

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
②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시민의 교육 참여 보편적 접근성 보장,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제5조에서 시장과 구청장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책무를 부여함.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자치구 내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제6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②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③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주민주권의 이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④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⑤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조례 제6797호로 2018. 1. 4.,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현행 조례는 2022. 1. 6.부터 시행 중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제2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제4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①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②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제5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②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③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④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⑤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 〈신설 2020.3.26.〉
⑥ 선거의 의미·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 〈신설 2020.7.16〉
⑦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신설 2022.1.6.〉

5)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관련 논의 평가

□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도 많고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장기간 이어졌으나 그 의미에 대한 합의점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학계의 논의나 법제화 추진 중인 내용 또는 조례화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치와 관련한 웬만한 좋은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통적으로 교과과목으로 이루어진 도덕교육과 사회교육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내용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중첩되는 측면이 상당함.

○ 통상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는 별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인권교육, 생태교육, 평화교육, 인성교육 등 제반 가치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면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중첩되는 측면이 상당함.

□ 민주시민교육을 가치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 정규 교과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기별, 주제별로 제기되는 제반 가치교육을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 포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가치, ESG 등은 비교적 최근에 그 필요성이 대두된 가치교육으로 이 또한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으로 포괄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

2. 가치교육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

1) 정규 사회과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교육, 도덕교육 등 정규 교과에서 가치교육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제기된 부가적 가치교육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정규교육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지만, 이길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으며, 유사한 시각은 상당수 찾아볼 수 있음.

- 한국 교육은 민주주의 교육을 만나기는 했으나(한국 교육 제1의 길), 국가권력이 만든 교육 위주로 진행되다가(한국 교육 제2의 길), 이제는 시장이 지배하는 교육(한국 교육 제3의 길)이 되었다고 봄.(이길상, 2019)

- 지난 70년 우리 교육은 국가권력과 시장에 끌려다닌 교육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대학입시를 위한 줄 세우기 교육이었다고 평가함(이길상, 2019)

- 이길상은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 교육 제4의 길로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이길상, 2019)

- 한국 교육이 제4의 길에서는 더 이상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배려하는 인간을 길러야 하며, 학생의 경험과 관심이 존중받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과 현장의 자율성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이길상, 2019)

2) 가치교육으로서의 사회과교육

□ 그렇지만 사회과 교육의 경우 가치교육의 관점에서 연구와 실행이 이뤄져 왔으며,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짐.

○ 대표적인 논의로 강대현·설규주의 논의[16]를 살펴보기로 함.

- 사회과에서 가치교육과 관련된 주된 흐름은 가치주입과 교화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가치탐구의 전통이며, 이러한 가치탐구의 전통은 사회탐구와 가치탐구를 종합한 의사결정모형과 논쟁문제수업모형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나타남(강대현·설규주, 2014)

- 사회과에서 가치탐구의 전통이 확립된 계기는 올리버, 쉐이버, 뉴만(Oliver, D., Shaver, J., & Newmann, F.)의 법리모형에서부터임.(강대현·설규주, 2014)

- 올리버 등은 인간 존엄, 정의,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와 미국사회의 신조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논쟁 형성과 가치화 과정의 방법을 구조화함(강대현·설규주, 2014)

- 특히 쉐이버는 사회과 교육 전반에 초점을 둔 법리 모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가치교육과도 연계시킴(강대현·설규주, 2014)

- 미국 사회과에서 가치교육 논의는 주로 가치갈등이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가치탐구 중심의 인지 중심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위 가치주입과 교화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가치탐구의 전통을 따라 의사결정과정에서 근거확립모형, 가치명료화모형, 발달단계접근법, 가치분석모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가치문제에 대한 사고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어 옴(강대현·설규주, 2014)

- 국내의 가치교육에 대한 주된 논의는 대체로 가치주입이나 교화 등 전통적인 가치교육 접근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가치명료화, 가치분석, 가치추론(발달단계접근법) 등의 방법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강대현·설규주, 2014)

16) "사회과 가치교육의 방법과 전략 -가치교육 방법의 종합적 활용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Vol.46 No.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4.

- 사회과 가치교육에서 주류를 차지해온 가치명료화, 가치분석, 가치추론 등의 인지 중심 접근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음(강대현·설규주, 2014)

□ 사회과교육에서 가치 교육의 3전통 (권오정·김영석, 2005)

○ 시민적 자질 전수를 위한 사회과

- 목표 : 시민적 자질은 의사결정의 틀이 되는 올바른 가치를 주입함으로써 가장 바르게 육성

- 방법 : 교과서 암송, 강의, 질의응답, 구조화된 문제 해결 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 개념, 가치의 전수

- 내용 : 권위에 의해 선정되고 교사에 의해 해석되며, 가치, 신념, 태도의 예시와 같은 기능을 가짐

○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 목표 : 시민적 자질은 사회과학적 개념, 과정, 문제해결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훈련함으로써 가장 바르게 육성

- 방법 : 개별 사회과학들이 갖는 지식을 수집, 입증하는 고유한 방법을 발견하고 응용하도록 함.

- 내용 : 개별 혹은 통합적 사회과학의 구조, 개념, 문제 등이 적절

○ 반성적 탐구로서의 사회과

- 목표 : 시민적 자질은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도구로 한 탐구과정을 통해 바르게 육성

- 방법 : 의사결정은 시험적 통찰 방법에 따라 갈등 문제와 응답을 정합화시키고자 하는 반성적 탐구과정을 통하여 구조화되고 학구적으로 체계화

- 내용 :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관련된 시민적 가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문제야말로 반성적 탐구를 위한 내용의 기초

3)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의 가치교육으로서의 자리매김

□ 교과교육의 가치교육으로서의 의의

○ 근대 교육방법론에 대한 성찰

- 근대 교육방법론의 성립 이래, 모든 교육방법은 민주시민 교육을 지향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임 (권오정·김영석, 2005)

- 근대의 교육방법은 인간 이성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성립의 원리를 확인하고, 나아가 인간의 자율적 세계인식 과정을 교수과정 속에서 실현시키려 이성활동의 산물인 문화재, 지식의 습득이 곧 시민 형성과 직결된다는 소박한 생각이 실천적 차원에서의 교육방법으로 정착함 (권오정·김영석, 2005)

- 그렇지만 근대 교육방법론에 대한 반성에 토대하여 교육 주체의 반성적 사고에서 주체와 객체를 통일함으로써 인간 형성의 논리를 선명히 하려 한 것이 어린이 중심·경험 중심 교육방법을 낳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원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나 실천과정에서 소박한 어린이의 흥미 중심에 머물게 되어 가속적으로 발달하는 객관적 세계-과학문명, 지식-의 이해, 선택이 곤란해졌다는 비판이 가해짐(권오정·김영석, 2005)

- 현대의 교육방법은 주체와 객체의 조화를 꾀하면서, 객체(지식)의 탐구 방법에 중점을 두는 방식, 객체에 중점을 두지만 서치라이트의 논리(Popper, 1979 : 341-361)에 접근하는 방식, 객관적 지식의 성장 과정과 주관적 지식의 성장 과정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 공존하고 있음. (권오정·김영석, 2005)

○ 교과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는 방식과 관련한 논쟁

- 본질론적 정당화는 교과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교육의 규범적 의미와 이에 일관된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정당화하는 방식임(강현석, 2006)

- 도구론적 정당화는 교과의 수단적 가치를 들어 정당화하는 방식임(강현석, 2006)

○ 교육내용으로서 교과의 의미(강현석, 2006)

- 지식과 동의어로 보는 입장

- 지식 이외에도 기능(skill)이나 정의적 측면

- 교과와 교과 속에 담긴 단원이나 과의 이름처럼 어떤 특정 요소를 담고 있는 형식 혹은 그릇으로 보는 관점

- 형식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으로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공식적인 교육내용과 실제 운영의 장면에서 교사가 선정하는 도구적 수업내용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

○ 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방식(강현석, 2006)

- 사실적 관련에 입각하여 정당화하는 외재적 정당화(extrinsic justification)는 특정 교과를 가르치는 이유가 교육 이외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

- 논리적 관련에 입각하여 정당화하는 내재적 정당화(intrinsic justification)는 교과가 지니고 있는 의미 그 자체를 보다 명료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

□ 한국 사회의 경우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형성된 내용과 실행 면에서의 잘못된 교육의 잔재를 극복하고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가는 신자유주의 흐름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 위에서 교과교육과 시민교육의 일정한 병행이 필요할 것임.

□ 민주시민교육과 ESG교육의 연계성을 해명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두루 살핀 바, 학계의 논의와 함께 이미 법제화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가치교육의 일환으로서 그 의미를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인권교육, 평화교육, 미디어교육 등 제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은 각각의 영역

적 필요에 따라 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기된 바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4) 법제화 또는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에 나타난 가치교육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 의안번호 2109084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의원 등 14인, 2021-03-24)

○ 제2조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핵심 가치를 명시하여 '가치'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핵심 가치"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정의, 자유, 평등, 평화, 관용, 존중, 연대 등 민주공화국 운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말한다.

○ 제6조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12가지 언급하고 있으며 제일 첫 번째 항에서 '1. 핵심 가치 및 핵심 능력'을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조문의 나머지 2호부터 12호까지의 사항은 민주시민교육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핵심가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제5조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 핵심 가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학교는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핵심 가치와 핵심 능력을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4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는 3가지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해야 함을 명시함.

○ 제6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접적으로 가치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도 있으며, 나머지 사항도 실질적으로 가치에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음.

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②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③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주민주권의 이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④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⑤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제2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례 또한 가치의 문제를 민주시민교육에서 핵심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조례의 해석과 집행에서 총론적으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임.

- 지식, 가치, 태도로 구분하여 조례의 본문은 서술되어 있으나, 교육 관련 이론이나 조례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더라도 체계적인 기준에 따른 구분은 아닌 듯 보이고, 전체적으로 가치로 포괄하여 이해해도 무방할 것임.

Ⅳ.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과 ESG의 연계성

□ 민주시민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회적가치교육 등 제반 가치교육과 그 연계성에 대해 아직 학계의 논의는 많지 않음.

□ 이 절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12+1로 대표되는 한국의 사회적 가치 논의가 국제적, 국내적 맥락에서 사회적 가치를 양면적으로 다룬 것이라는 점을 우선 논증함.

○ 다음으로 한국의 사회적 가치 논의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함.

○ 이어 시기별 또는 주제별로 제기되어 법제화된 기타 제반 가치교육도 모두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함.

□ 마지막으로 ESG의 대두 배경과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의 ESG교육으로의 포괄적 재편 필요성을 논증함.

1. 사회적 가치의 의미 17)

1)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적 논의

□ ‘사회적 가치’는 최근 까지 일반 명사로 이해되었지만 그 이론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제화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법제화는 우선 국내적으로 조례와 법(안)으로 제출된 내용을 다룬 후, 국제적으로는 유엔이 규정한 사회적 가치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정책의 실행이 앞선 곳은 단연 유럽으로 핀란드의 경우, 1960년대 사회정책을 완전히 전환함.

- 이전까지 빈곤층과 약자 대상이던 사회정책을 전국민 대상으로 개편하였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관점으로 사회정책의 프로세스를 다시 만듦(후지요시 마사하루, 2019).

- 정부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까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더라도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이미 19세기부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옴

○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가치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치라고 정의하는 바, 어떤 좋음과 바람직한 것을 말함.

- 칸트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물에 부여하는 값어치와 중요성,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것의 의미나 이것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 성동구는 민관의 선구적인 노력으로 소셜벤처밸리가 형성되어 우리나라에서 소셜벤처와 관련된 가장 앞선 정책적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17) 이 절은 안지훈,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청년층의 추구정향 연구 :Q 방법론적 접근”(서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동구는 소셜벤처와 관련된 조례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정한 상태임.

-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인간은 연약한 동물이지만 탁월한 공감능력 덕분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공감능력 덕분에 인간은 항구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협업하며 외부의 위협에 함께 맞설 수 있었다. 이기심과 경쟁이 아닌 공감과 상호부조에 기초하여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윤리적 부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경제 역시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상호부조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 조건임이 탈이념의 시대에 오히려 광범위하게 공감을 얻고 있다."(정원오, 2018).

○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언급은 오늘날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논의가 무수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해답을 던져줌

- 공감, 상호부조, 협업, 윤리적, 공동체 같은 키워드를 사회적 가치를 표현하는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온갖 좋은 개념들을 사회적 가치라는 말로 포섭할 수 있음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

○ 사회적 가치의 의미 또한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처럼 아직 확립된 정설은 존재하지 않으나 확실한 것은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표징이라는 점임

- 사회적 가치는 이미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실행해 온 정책들과 민간 NGO 또는 NPO 등에서 추구해 온 가치와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소셜벤처/사회적경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및 민간 NGO 또는 NPO 등의 활동과 구분되는 점은 기업적 방법을 통한다는 점이며, 사회적경제 현장과 학자들은 주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표현함(권영태, 2019b).

○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논점의 하나임.

- SK그룹은 기업 차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2019년 8월 19일에는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와 공동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VBA(Value Balancing Alliance)를 설립했고, 2020년까지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 국제표준을 만들 계획을 진행 중임

-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해서는 일관성 없는 용어의 사용, 사회적 부문 안에서의 공통 척도의 부족, 사회적 영향력, 결과물, 산출물, 비용에 대한 질적 데이터의 부족, 투명성에 대한 장려책의 부족, 의도하지 않은 결과, 부적당한 활용, 측정의 비용 등의 문제점이 비판적으로 제기되고 있음(권영태, 2019b).

□ 적정기술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벤처기업들의 기술을 적정기술이라고 하며, 적정기술은 원래는 인간의 진보에 가치를 두는 과학기술을 총칭하지만 최첨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통칭됨.

- 1973년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중간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제안한 바 있음

- 적정기술의 예로 라이프 스트로[18], 큐드럼[19], 소켓(sOccket)[20]을 들 수 있음[21]

- 적정기술은 소셜벤처가 아닌 일반 NGO 차원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바, 뉴욕에 근거지를 둔 녹색게릴라들이라는 단체는 적정기술을 활용해 공동체 텃밭을 만든 바 있음

---

18) 라이프 스트로 life straw : 휴대용 정수 빨대. 빨대 하나로 700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다. 99%의 수인성 박테리아와 98.5%의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19) 도넛형 플라스틱 컨테이너로 50리터의 물을 담고 굴려서 이동시킬 수 있는 물통이다.
20) 축구공형 발전기로 하버드 공대 학생들이 2008년 개발했다. 아이들이 15분 동안 공을 차고 놀면 3시간 동안 LED를 밝힐 수 있는 전기가 충전된다.
21) 『서울숲 소셜벤처 이노스쿨 성장랩(소셜벤처활동가 역량강화 과정) 교육 운영 설계를 위한 연구보고서』(서울 :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pp. 29-31.

○ 공동체 텃밭

- ‘주민들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시민 불복종과 희망의 대담한 행동들로 이 도시 쓰레기들을 치우고 텃밭을 가꾸었으며 당시에 마찬가지로 버려져있던 할렘의 집들처럼, 이러한 공터에 대한 소유권은 시 정부가 소유주들이 지불하지 않은 세금의 대물납세로 획득함

- 원시림에서부터 더 추악한 도시의 야생에 이르기까지 환경운동의 가치들과 전술들을 사용해왔던 더욱 고등교육을 받은 활동가들이 공동체의 사용을 위해 이 공간을 요구한 주민들에게 결합하였고 이들을 이끌었으며 스스로 녹색게릴라들이라고 부르는 한 단체는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터의 울타리 너머로 씨앗폭탄과 비료폭탄을 던졌음.

- 뉴욕의 첫 번째 공동체 텃밭은 1973년에 당시 이스트빌리지와 로어이스트사이드 사이에서 일종의 비무장지대였던 바워리거리와 휴스턴거리의 모퉁이에 위치해 있던, 돌무더기가 흩어져 있는 인접한 시 소유의 여러 공터들에 만들어짐’(샤론 주킨, 2017).

□ 국내 학계의 논의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경제적 방식으로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도 있음.

○ 영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티트무스는 영국과 미국 양국의 혈액모집 시스템을 비교[22]하여 혈액이 시장 상품으로 바뀌면 혈액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의무감을 잠식해서 이타주의 정신을 약화하고 사회적 삶의 능동적 특징은 기증 관계를 훼손한다고 주장함.

- 기증 정신의 쇠퇴는 혈액의 양과 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도덕적 · 사회적 삶을 저하시킨다는 것임.

○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는 이렇게 비판함

- 시장이 형성되면 개인의 선택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출 이익이 커지는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며 따라서 자발적인 혈액 기증 시스

22) 영국 : 보상을 받지 않는 자발적인 기증자에게 전량 확보
미국 : 일부 혈액은 기증, 일부는 혈액은행을 통해 충당. 혈액이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이 됨.

템에 혈액 판매 가능성을 추가한다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가 확대될 뿐임.

- 혈액을 기증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면 언제라도 기증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기증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훼손되지 않음(마이클 샌델, 2015).

2.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23)]

1) 법제화된 사회적 가치의 내용

□ 한국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내용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었으며, 지자체 중 상당수는 조례로 사회적 가치의 내용을 명시함.

○ 가법제화 여부를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시행 2016.1.7.)을 살펴 보기로 함.

- 이 조례는 제3조(정의) 사회적 가치를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고 정의함

-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24)] 창출
> 나. 지역사회 재생
> 다. 남녀의 기회 평등
>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 서울시 조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발전시킨 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가치 기본법)은 2014년 6월 당시 문재인 의원이 최초 제출함.

---

23) 이 절은 안지훈,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청년층의 추구정향 연구 :Q 방법론적 접근"(서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24)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도시 쇠퇴와 관련하여 일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도시가 쇠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이 떠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노후화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마강래, 『지방도시 살생부 |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고양 : 개마고원, 2018), p. 65.

-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사람의 가치를 이윤과 효율보다 우선시하도록 하자는 것임.

-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가 점차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부상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더욱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됨.

- 사회적 가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12+1의 항목으로 되어 있음.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핵심 가치로 구현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통해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를 평가하고 포상하는 등 자체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과 함께 공공부문의 공사 및 용역 계약, 물품 계약 체결 시 사회책임조달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의 수주 기회 확대가 기대됨.

- 사회적책임 조달의 확장은 소셜벤처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 더 큰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스코틀랜드 정부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자원봉사조직들을 공공서비스 제공 시장에 진입시켜 지속적 개선, 최고가치제도 그리고 합당한 가격의 원칙에 기반한 세계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

코틀랜드 정부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있음(scotland.gov.uk, 2012).

- 이 법안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16년 8월 재차 발의되었으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과 함께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법안의 하나로 평가되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등 입법화에 실패함[25)]

○ 희망제작소는 이 법안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 13개 항목에 대한 더 상세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여 발표한 바 있음

-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정창기, 2019).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구성원 인권 보호
-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 평등 및 차별 금지 : 성별, 종교, 신분, 장애, 학력, 성적 지향 등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
- 국내외 노동현장에서 아동 노동 금지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노동자의 자기 보호권 보장
- 적정 노동시간 보장
-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조건 시 노동 금지
- 지역사회 생활환경에 대한 악영향 금지 및 보상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건강권 보장
- 적정 수준 의료지원 체계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노사 공동 결정제
- 노동 이사제
- 강제노동 금지
- 일할 수 있는 권리

25)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보고서(성동구청, 2019. 9.).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사회적 취약계층[26]에 대한 기초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차별 금지
-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대기업-중소기업 간 부당취득 및 뇌물 금지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투명화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
- 고용 보장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확대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지역사회 투자 확대[27]
-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조직자원 지원
- 주민자치 확대
- 기업시민 역할 강화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지역 인적자원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자원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창출 성과의 지역 내 재투자 및 분배 강화[28]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사회적 경제 상품 및 서비스 구입
- 재생자원 사용
- 아동노동 및 전범 기업 제품 사용 금지
- 소비자 권리 보호, 소비자 옴부즈맨 제도

---

26) 취약계층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갱생보호 대상자,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 범죄구조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가정폭력 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자료집)(신나는 조합, 제작연도 미상), p. 6.

27) 지역사회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제안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식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이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경제 유관 기관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조 금융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치구의 경우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적경제주체로부터 구매한 금액의 0.5%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원오, 『성동을 바꾸는 100가지 약속(성동의 미래지도)』(서울 : i&R, 2014), p. 117.

28) 경제활동 이익의 지역 순환과 관련해서는 성동구와 부영그룹의 협력사례를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2015년 연말 부영그룹은 서울숲 앞에 5성급 호텔 건축 허가 신청했다. 양측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용적률 상한선인 768%를 873%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뚝섬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증가된 용적률 105% 중 45.1%를 성동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화석연료 사용 감축
- 1회용품 배출 최소화
- 자원 소비 최소화
- 환경친화기술 개발
- 녹지공간 확보 및 생활환경권 보장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조직 의사결정과정 정보 공개 및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시민숙의제 확대
- 시민민주교육 지원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조직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 지역사회 이익 실현

2) 법제화된 사회적 가치와 정책 추진 주체들의 인식과의 내용적 괴리

□ 국내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많은 정책들이 실행되어왔으며 계획도 많이 수립됨

- 논의의 효율화를 위해 2018년 3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이하, '정부혁신계획')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과 법제화된 사회적 가치의 내용과의 괴리를 확인하고자 함.

□ 정부혁신계획 상의 사회적 가치 인식

○ 우리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구에 공공기여했다. 부영은 260억원 상당 토지와 건물을 성동구에 기부 채납했다. 기부 채납 받은 토지와 건물을 활용, 성동구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장기 안심 상가를 운영했다. 이 협력 사례를 통해 양측은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자산화는 필요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런 조건에서 성동구는 기업의 사회 공헌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자산화 정책을 추진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원오, 『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서울 : 후마니타스, 2016), pp. 209-211.

정부혁신 추진과제[29]로 제시함.

- 같은 1월 10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16일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 말씀에서 정부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고 종합 추진계획 수립을 지시함.

- 이미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방향(안)을 수립함.

- 이에 앞서 2018년 2월부터 3월에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의견을 수렴하기도 함.

○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부 운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 참여민주주의의 완성의 필요성, 자발적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의 필요성을 정부혁신 추진의 배경으로 들고 있음.

- 2017년 기준 각종 국제적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국민경제 전체의 크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논리적 뒷받침을 삼음.

- 예컨대, BLI(더 나은 삶의 질 지수) 29위[30], OECD 유리천장 지수 29위[31], WEF 국가경쟁력평가 중 정책결정의 투명성 98위[32] 등이 그것임.

○ 우리 정부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통한 통일적 인식은 결여되어 있음.

- 2018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실시한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국민 삶 개선과 사회적 가치를 44.3%, 낡은 관행 혁신을 33.7%, 참여·협력을 22%로 핵심 키워드로 구분하고 있음

-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 이외의 항목과 다른 항목의 차이는 명확히 구분하기 힘듦

29) 정부는 이와 함께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제시하였다.
30) 공동체 지수 38위, 환경 36위, 삶의 만족 30위, 일과 삶의 균형 35위
31) 5년 연속 OECD 29개국 중 꼴찌.
32) 총 137개국 기준.

- 핵심 키워드를 크게 3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모두 사회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임

○ 정부혁신계획은 3가지 핵심 키워드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3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제시함.

- 3대전략과 핵심과제를 통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목표 관리의 양적 지표로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10위권), OECD 정부 신뢰도(10위권), 부패인식지수(20위권)을 들고 있음

- 정부혁신계획은 모두 21개의 사업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록은 6가지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혁신과 관련하여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재정 투자 확대(10대 중점사업)와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반영을 들고 있음

- 국민의 삶을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여성 임용목표제 10·20·40 도입(10대 중점 사업), 경찰·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으로 안전 골든타임 확보, 사회적 가치 중심 공공부문 성과평가 전면 개편, 승진 및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을 들고 있음

- 물론 정부혁신계획에서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보고, 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대해 사회적가치법안과 동일한 세부 분류를 채택하고 있음.

〈표 4. 정부혁신계획 상의 사회적 가치의 세부 분류별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정부혁신계획이 사회적가치법안과 사회적 가치의 세부 분류별 의미에서는 일관성을 표방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략과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 가치 각각의 세부 분류별 항목이 균형을 취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정부혁신계획은 사회적 개념과 함께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계의 논의와의 연관성도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 정부혁신계획은 사회적 가치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 가치

↓

>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 사회적 가치를 헌법상의 사회권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며 문화적 가치 또한 그 의미가 분명치 못함

-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 등의 표현도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는 등 정부혁신계획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 내용은 반영하고 있으나 구체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오해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사회적 가치의 국제적 맥락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 규범으로 제시, 제안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국제적 맥락의 사회적 가치로 비교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의 논의는 학계에서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참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우리 사회에서 공적 담론으로 사회적 가치가 논의되는 것과 상관없이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예컨대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KOICA는 일찍부터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이 KOICA가 추구하는 핵심 미션이라는 점을 직간접으로 표방하고 있음.[33]

○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과 국제적 맥락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 우리 사회에서 합의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내용을 재편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33) 송웅엽 KOICA 글로벌파트너십본부 이사의 언급. 2019 SNU 사회공헌 Fair(2019. 4. 19. 서울대사회공헌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등 공동 주최) 자료집, p. 14.

1) SDGs의 기본 목표 내용[34)]

□ SDGs의 기본 목표는 모두 17가지임

목표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NO POVERTY).

목표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한다(ZERO HUNGER).

목표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GOOD HEALTH AND WELL-BEING).

목표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QUALITY EDUCATION).[35)36)]

목표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GENDER EQUALITY).

목표6.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한다(CLEAN WATER AND SANITATION).

목표7.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보장한다(AFFORDABLE AND CLEAN ENERGY).

목표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목표9.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 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목표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REDUCED INEQUALITIES).

목표11. 도시[37)]와 주거지[38)]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

34) 문도운 외,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서울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pp. 16-18.

35) 앞에서 언급된 점프의 경우 SDGs 중 교육 목표의 달성에 선구적인 단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점프는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선생님이 처음이야 | 성동구와 함께 하는 시대나눔학교 3기 장학샘 활동수기』(서울 : JUMP, 제작연도 미상), p. 2.

36) 교육 격차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학습 멘토링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 변화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기관이 그것이다. 점프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백수현, 김유진, 『현대자동차그룹 교육 분야 사회공헌사업 사례 연구 : H-JUMP SCHOOL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서울 : 현대자동차그룹, 2014), pp. 38-40.

37) 미국의 도시 연구가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과 활기와 다양성이라고 주장한다. 안전과 활기와 다양성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할 때 포섭할 필요가 있다. 유강은, “옮긴이 후기”, 제인 제이콥스 지음, 유강은 옮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서울 : 그린비출판사, 2018), pp. 583-854.

38) 최근 인구 감소 및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빈집의 증가가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주거지의 지속가능성과 감안하여 전통적인 문제들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보장한다(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목표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목표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CLIMATE ACTION).

목표1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LIFE BELOW WATER).

목표15.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 · 복원 · 증진하고,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LIFE ON LAND).

목표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

목표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PARTNERSHIPS FOR THE GOALS).

토지은행사업은 빈집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계획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고안되었다. 정식명칭은 소규모 연쇄형 구획재편사업이다. 다소 밀집된 주택지에서 빈집과 빈 땅의 기부와 싼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받아 건물을 해체하여 나대지로 만들고, 도시시설을 만들거나 수요가 있으면 전매하여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아이바 신 지음, 민범식 옮김, 『도시 접어두기 | 인구감소시대를 디자인하는 도시계획』(세종 : 국토연구원, 2017), p. 146.

2) 사회적 가치의 국제적 맥락으로서의 SDGs와 국내적 맥락의 괴리

□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SDGs는 각 목표 항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 각각의 목표 항목을 따로 떼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음.

- 모든 목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어느 특정 목표에 집중하고 다른 목표는 소홀히 한다면, 그 집중 목표 자체도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

○ SDGs의 포용적 경제성장,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지구 생태계 보전이라는 세 톱니바퀴로 나타남

□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논의할 때 SDGs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음.

○ SDGs의 으뜸 구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leaving no one behind)'에서 보듯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배려하고 돌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정신이 SDGs에 담겨 있음

- 지역, 계층, 집단에 따른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가치와 내용적으로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유엔 차원에서는 SDGs 관련 문서에 '우리 세계의 변혁'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SDGs가 환경문제로부터 비롯되어 시작되었지만 현재 SDGs는 이제 우리 사회의 제도와 삶의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임현묵·박환보, 2018).

- 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SDGs에 대해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만 인식하는 경향성도 큼.

○ SDGs의 세 톱니바퀴인 포용적 경제성장,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지구 생태계 보전은 '포용적', '평화롭고 정의로운' 같은 수식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내용과 일맥상통함

□ 따라서 SDGs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 국내적 맥락과 국제적 맥락을 조화롭게 비교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식을 국내적으로 편입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 가치의 국제적 맥락으로서 SDGs와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의 인식에 대한 국내적 맥락을 비교해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전자는 영역별로 균형적인 편재를 하고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임.

○ SDGs의 세 톱니바퀴인 포용적 경제성장,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지구 생태계 보전에 따라 각각의 영역에서 기본 목표로 고루 배치되어 있음.

○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합의의 수준이 높은 사회적가치법안에 따른 사회적 가치는 다소 치우쳐 있음.

- 단적인 예로 SDGs는 환경분야에서 지구 생태계 보전이라는 해양과 에너지 등의 세부 기본 목표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는 환경이 SDGs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이해되고 있음.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를 국내적 맥락과 국제적 맥락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와 함께 재편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도시와 주거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담론화된 사회적 가치에는 아직 포괄되고 있지 않음

- 과거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은 자가 소유가 늘어나면 사회가 안정된다는 자산소유 민주주의 또는 자산가격이 오르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자산효과(wealth effect)론에 기반하고 있었음

- 그렇지만 이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과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렴한 주거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문제로 등장한 시대가 되었다. 불안정 시대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임.

- 따라서 주택 공급 확대와 자가 소유 촉진에 주안점을 두었던 과거의 정책과는 달리 부담가능한 주택의 확보가 주택정책의 핵심이 되었음(진미윤, 김수

현, 2018).

-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담론은 SDGs의 주택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함.

○ 물론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항목을 통해 필요한 모든 사회적 가치를 추가적으로 포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 법안화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내적 맥락과 국제적 맥락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융합하여 조화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내적 맥락과 국제적 맥락의 조화적 체계화는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논의를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SDGs 논의를 전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서 우리 내부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국제적으로 제안하여 SDGs의 내용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를 가질 필요도 있음.

4. 제반 가치교육의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의 포괄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의 포괄[39]

1-1)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범주에 대한 성찰적 재고

□ 민주시민교육은 좁은 의미로는 정치교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가치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거버넌스 논의로 들어가면 주로 정치교육을 의미하는 뉘앙스로 바뀌어, 개념의 혼란상이 있음.

○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의 본격화와 함께 지난 한 세대 공론장에서 유통된 민주시민교육은 제반 가치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바 가치교육의 의미로 보아야 함.

- 가치교육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계의 다양한 논의와 수 십 년에 걸친 시민운동의 성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임.

□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을 가치 교육이라고 했을 때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의 의의와 범주는 국내적 맥락과 국제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대두된 사회적경제의 부상과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사회적 가치는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의 국내적 맥락으로 포섭할 수 있음

○ SDGs은 국제적 맥락으로서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과 동의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국내적 맥락의 사회적 가치 12+1과 동일선상에 있음.

□ 물론 시민교육과 사회적 가치와 SDGs는 각각의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음

○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는 태동의 배경과 주된 담당자들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작은 차이일 뿐임.

---

39) 이 단락은 권영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교육의 연계 거버넌스 구조 제안”, 2020년도 한국NGO학회 춘하계 공동 학술회의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연계방안』(한국NGO학회,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세종연구원 공동주최, 2020. 6. 19.) 발표문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내외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현 시대의 과제로 제기된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통합적으로 내용을 재편하여 총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보는 이유는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은 사회적 경제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와 SDGs에서 말하는 가치가 본질에서는 같다고 보기 때문임

- 더 범위를 넓히면 기업에서 촉발되어 이제는 대학을 비롯한 다른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도 포괄할 수 있음

□ 시민교육을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 곧 가치교육으로 보고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교육과 국제적 맥락으로서의 SDGs와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크게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분할 수 있음

○ 범주는 크게 경제적 가치, 정치적 가치,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임

대구분	SDGs	내용적 범주	12+1
경제적 가치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교육	경제성장	
	경제성장, 일자리		노동권, 근로조건 일자리
정치적 가치	성평등 평등	인권	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사회적 약자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소비 및 생산 양식	공동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생산과 유통 등)
	도시와 주거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지역경제 공헌
	건강	건강	안전 보건
	물 에너지 기후변화 바다 육상 환경		환경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실현방법	

○ 가치교육을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로 우선 구분한 이유는 대체로 근대 국가의 발전 경로가 경제발전(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이룩하고 그 이후 다양한 가치적 지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임.

- 이렇게 보면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는 서구에서 68혁명 등으로 나타난 신사회운동과 맥락이 닿게 됨

○ 사실 SDGs의 경우 민주화는 빠져 있으며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 논의에서도 민주화는 빠져 있음

- 전자는 민주화라는 가치는 국제 사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후자는 이미 민주화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노동권, 근로조건, 일자리의 경우 SDGs와 12+1의 위상이 다름

- 전자는 경제성장과 함께 자리매김하면서 경제적 가치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미 달성했기에 일자리와 노동권은 경제성장보다는 인권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성의 강화와 건강으로 구분이 가능함

- 건강은 개인적 차원의 건강과 사회적 차원의 건강으로 보고, 환경을 사회적 차원의 건강 문제로 편의상 구분함

○ 표의 분류에 대해서는 향후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SDGs, 민주시민교육 등의 이름으로 논의되는 가치적 지향의 교육을 모두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법제화된 서울시 조례가 규정한 민주시민교육은 대체로 정치적 가치와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공동체성)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임.

1-2) 독자적 가치로서의 통일과 평화

□ 서울시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하위 내용으로 평화통일을 포함한 점이 특기할만함.

○ 이는 분단 상황으로 인한 당연한 요구라고 할 것임.

○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 가치교육 3분론에서는 정치적 가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통일은 한민족의 다수가 단일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한 정치적 공동체의 실현 요구로 보아야 적절함

□ 통일을 시민교육의 범주에 포괄해야 한다는 논의는 학계에서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음

○ 전득주(1995)는 일찍이 1990년대 중반에 벌써 민주시민교육에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는 제반 교육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SDGs의 전신인 MDG가 2000년에 채택되었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념은 당연히 포함하지 못했지만, 글로벌한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구상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음.

○ 통일을 시민교육과 접목하는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시민교육 중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초등통일교육과 접목한 연구가 눈에 띔

□ 유혜린(2018)은 세계시민교육 교육 내용 중 통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세계시민으로서 통일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이슈 연계 통일교육 수업 모델을 제시함

○ 전통적인 민족주의를 사용한 통일논리와, 승공통일론, 통일만능주의론 등 기존의 통일 교육의 논리로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학습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짐을 밝힘

○ 통일교육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결

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통일교육이 더 이상 한반도 내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임

- 둘째, 다양한 통일 주체를 포용하며 통일을 이뤄가는 주체로 길러야 함

- 셋째, 통일교육이 결국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함

○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내용으로 인권, 세계화, 다문화,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총 5가지 영역을 제안함

- 인권 영역은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연결됨

- 다문화 영역은 다양한 통일 주체를 포용하며 북한 이해 문제에 연결됨

- 세계화 영역은 통일한국의 영향력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준비에 연결됨

- 평화는 현재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마련하는 데 연결됨

-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통일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데 연결할 수 있음

□ 평화는 대체로 통일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평화를 통일과 함께 생각할 때는 평화학에서 좁은 의미의 평화 개념에 한정될 때만 그렇다고 봐야 할 것임

○ 요한 갈퉁을 비롯한 넓은 의미의 평화 개념은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 사회적 가치, SDGs에서는 공동체의 내용적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함

1-3)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과 사회적 가치, SDGs의 관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과 사회적 가치, SDGs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 = 가치교육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 = 정치교육	사회적 가치 교육	SDGs 교육

○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과 사회적 가치, SDGs의 세부 내용의 의의와 범주를 다시 설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시민교육의 3가지 가치	SDGs	내용적 범주	12+1 (넓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산업화와 경제발전)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교육	경제성장	
	경제성장, 일자리		노동권, 근로조건 일자리
정치적 가치 (민주화와 근대국가 건설)	성평등 평등	인권	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사회적 약자
		통일 평화(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삶의 질)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소비 및 생산 양식	공동체 평화(넓은 의미)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생산과 유통 등)
	도시와 주거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지역경제 공헌
	건강	건강	안전 보건
	물 에너지 기후변화 바다 육상 환경		환경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실현방법	

□ 세계적으로도 이상의 논의와 같은 연구가 있음.

○ 에다 센트 외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인류의 보편 가치 세계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이해함(에다 샌트 외, 2021)

- 이는 사회의 주류 정치 이념과 화법의 변화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모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필요성과 방향은 공유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하기 때문임(에다 샌트 외, 2021)

-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정책이 세워지고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의제가 아직 안착하지 못한 것이 현실로 보고 있음(에다 샌트 외, 2021)

○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유엔 총회가 전 세계의 목표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국제 교육 의제로, 2030년까지 유네스코 및 유엔의 교육개발목표에 반영됨(에다 샌트 외, 2021)

-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기한 지 6년이 지났으나 오히려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떤 방향과 활동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어떤 성과와 결과를 이뤄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불명확해졌다(에다 샌트 외, 2021)고 보는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는 이를 보충해준다고 할 것임.

2) 법제화된 가치교육의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의 포괄[40]

□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진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가치교육으로 볼 수 있는 관련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이러한 교육들도 모두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 볼 수 있음.

40) 이 절은 권영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교육의 연계 거버넌스 구조 제안", 2020년도 한국NGO학회 춘하계 공동 학술회의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연계방안』(한국NGO학회,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세종연구원 공동주최, 2020. 6. 19.) 발표문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기 제정된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음

「통일교육 지원법」(1999년)
「환경교육진흥법」(2008년)
「법교육지원법」(2008년)
「식생활교육지원법」(2009년)
「경제교육지원법」(2009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1년)
「인성교육진흥법」(2015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2016년)

□ 참고로 가치교육의 세부적 범주에 따라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적으로 포괄될 수 있는 특정 분야 교육 진흥 법안도 여럿 있음

○ 기 제정된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음

「영재교육 진흥법」(2000년)
「과학교육 진흥법」(2001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05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년)

○ 법률 명칭에 교육이라는 말을 직접 담고 있지는 않지만 효행교육에 대한 지원 법률도 2008년 제정됨

- 이 법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규정함다(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 제2항에서는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을 명시하고 효행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 기 제정된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의 수행을 담당하는 별도의 정부기구가 구성된 경우도 많음.

○ 통일교육원이 대표적임

○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설치되어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지만 사회적 가치 교육을 담당하는 준 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 평생교육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와 K-MOOC 등을 통해 가치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아직 다른 분야들은 대체로 정부부처의 한 부서 업무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확보와 기구 확대를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은 당연히 예상됨.

5. ESG의 대두 배경과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의 ESG교육으로의 포괄적 재편 필요성

1) UN 차원의 지구적 목표와 기업에 대한 요구의 규범화

1-1) 지구적 목표로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 유엔은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하고 지구촌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목표를 내세움.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유엔이 2000년도부터 시작한 새천년발전목표를 전신으로 함.

-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지구적 목표를 정한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확장됨

- 15년마다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한 규범이라고 볼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인류 공동으로 열일곱 개의 대목표를 설정함

- 대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16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함

- 세부 목표마다 지표가 있어 수백 가지의 지표를 각 국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추진함.

- 열일곱 개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169개의 세부목표가 있고 이 세부목표가 지표가 되어서 각각 증명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만들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목표의 영역을 인구,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다섯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테마는 3가지임.

- 첫째,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회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둘째, 경제개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마지막으로 환경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 경제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 환경보호를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17가지 대목표 중 나머지 두 가지는 이것을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임.

- 우선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대목표에 포함함

- 다음으로 전제 조건 또는 실행방법을 언급함

1-2) 기업에 대한 UN의 요구로 대두한 책임투자원칙

□ 2005년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세계 주요 투자회사와 금융회사들에 책임투자원칙 서한을 발송함.

○ 책임투자원칙은 크게 환경과 인권으로 구성됨

○ 환경 관련 고려 사항으로 경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 자원고갈, 낭비, 공해, 산림파괴에 대해서 어떤 경영 원칙을 갖고 있는지를 기업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임.

-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 자원 고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 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

- 공해와 산림파괴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 경영행위에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포함함

- 현대노예, 아동근로, 근로조건, 고용 관계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는지

- 회사의 그 기업의 경영방침이 과연 인권에 대한 고려가 있느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 현대노예와 아동근로는 후진국의 경제발전개념과 연결되어 있음

2) 기업 차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용 노력 본격화

□ 유엔 차원의 요구에 대해 기업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사회문제의 해결, 곧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나서기 시작함.

○ 2018년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결의

- 한국의 대기업협회에 해당하는 미국의 183개의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이라는 협회는 2018년 “주주이익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다“ 라고 선언함.

- 기업의 목적에 대해 기업가 스스로 기존의 이윤 추구와는 다른 정의를 내린 것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됨.

- 이론적으로나 실행 면에서 기업의 최대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라는 개념이 중심에 있었지만 기업가 스스로 주주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것임.

○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가치 실현에 SK 최태원 회장이 가장 적극적임

- 최태원 회장은 기업에 새로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ESG 경영이라고 주장함

- 재무 성과 중심의 성장방식을 벗어나서 ESG 곧,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 SK는 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을 결성(사회적가치연구원)하여 다년간 활동 중임

○ 블랙록의 래리 핑크 서한

- 1988년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창업해 현재 자산운용 규모가 10조 달러(약 1.2경원)에 달하는 블랙록은 매년 투자자에게 보내는 CEO 투자서한에서 ESG 경영을 선도해옴.[41]

41) 시장경제(http://www.meconomynews.com

-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는 2020년 1월 연례 서한에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의 투자 신념은 지속 가능성과 기후 통합 포트폴리오가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위험 조정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함[42)]

- 블랙록의 ESG 경영 강조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제시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세계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ESG 경영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됨.

3) 기업의 ESG 수용의 의의와 향후 방향성

3-1) 기업의 ESG 수용의 의의

□ 인류의 일원이자 전 지구적 과제 실현자로서의 기업시민

○ 전통적으로 기업 곧 자본의 활동은 공익적 요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져왔으나 기업의 ESG 수용은 기업 스스로 자신의 위상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업시민은 기업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임.

- 특히 해외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현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업시민으로서 환경이나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융화와 소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네이버 지식백과)

-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책임과 함께 권리도 갖는다는 의미로 쓰이며 최근에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사회로부터 우수한 경영자원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상응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해야 기업시민이 된다는 주장임.

-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연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이윤을 창출하며 이를 사회에 환원시켜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식으로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42) 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을 지향함(네이버 지식백과)

□ 기업시민의 적극적 역할로 본 ESG의 의미

○ 영역적으로 보면 ESG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경제개발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 곧,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목표,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기업의 지배구조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업은 원래의 존재 이유가 이윤의 추구인 바, 이는 곧 국가적 차원의 경제개발을 의미하게 되므로 굳이 ESG에서 경제개발을 재언급할 필요가 없는 차원으로 이해됨.

○ E, S, G 각각의 관계

- ESG는 환경을 말하는 이니셜 첫 번째 E. 사회를 말하는 S. 지배구조를 말한 G를 의미함.

- ESG 중 E와 S는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사회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의미함.

- 지배구조 곧 G는 E와 S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 방법적인 측면의 강조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ESG 경영이라고 했을 때 환경을 위한 경영. 사회를 위한 경영은 맞는 말이지만, 지배구조를 위한 경영은 틀린 말이며, 환경과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 기업에 필요로 하는 구조를 지배구조로 이해해야 함.

- 지배구조에서 핵심은 의사 결정구조이며, 예를 들어, 환경을 위한 경영 전략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느냐 또는 사회를 위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를 의미함.

- ESG 중 지배구조의 문제는 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론과도 연결되어 있음.

3-2) ESG의 사회운영원리로서의 의미 확대의 필요성

□ 기업시민의 ESG 수용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고민하고 인류를 위한 기업 본연의 역할을 재검토한다는 데서 고무적임.

○ 다만, 기업은 경영의 주체로서 당연히 ESG와 관련하여 ESG경영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ESG의 의미를 기업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인류적 과제로서 일반적 의미로까지 확장해 기업이 사회적 사명의 실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을 사회운영원리로서의 ESG 관점을 반영하여 포괄되는 내용을 ESG교육의 분야로 범주화가 필요함.

○ 이미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업에서는 ESG에 대한 다양한 확대된 의미 부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운영원리 일반으로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음.

○ 사회운영원리로서의 ESG는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무방함.

□ 종합하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적 범주로 사회운영원리로 격상된 의미의 ESG로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함.

Ⅳ. 외국의 ESG 교육 사례 조사

1. ESG 교육 관련 국제규범 현황과 시사점

1) UN / UNESCO

1-1)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논의 역사

□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이행프로그램

○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Decade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4 2014)

- 유엔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인식과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선포하고 유엔 기구 중에서 교육전문기구인 유네스코를 이행 전담기구로 지정하였음

- 그 성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국제협력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증진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주류화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음

○ ESD 국제실천프로젝트 (Global Action Programme for ESD, GAP/ 2014 2019)

-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성과를 이어받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함

- 핵심파트너를 선정하고 5개 우선활동 영역을 선정(정책 증진, 변혁적인 학습환경, 교육 담당자 역량 구축, 청년 역량강화 및 결집,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가속화) (이선경, 2018:20)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2020-2030)(약칭 지속가능발전 교육 2030)

- 2019년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승인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Gs) 달성을 위해 교육의 기여를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모든 활동에서 교육과 학습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12)

1-2)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 목적 및 목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14)

○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징

○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은 SDGs 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변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국가차원에서 ESD 주류화를 위해 회원국들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함

○ SDGs 달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 강조

- 17가지 SDGs 목표와 개인 및 집단의 삶의 연관성에 대한 학습자와 일반 대중의 이해를 향상

- 서로 다른 SDGs 목표간 상호 연결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학습자에게 통합적이고 변혁적인 접근으로 균형있게 탐색할 기회를 제공

○ 변혁을 위한 교육의 역할 강조

- 각 학습자가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변혁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조하여 ESD를 실천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하도록 함

- 지속 불가능한 발전의 깊은 구조적 원인에 주의를 기울여 학습자가 소비자 사회의 가치에 대한 대안적 가치를 탐색하도록 지원

○ ESD 주류화를 위한 회원국의 리더십 강조

- 회원국의 교육 프레임워크와 전략 조정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원, 참여하도록 장려

- ESD와 관련된 네트워크 형성 및 옹호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장려

- 대중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회원국간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개요〉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54)

1-3)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회원국 이행권고 사항

(1) 정책개선 (Advancing policy)

○ 개요

- 교육 기관, 커뮤니티 및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타 환경에서 ESD를 성공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이 필요

- 공식적 정책 지원의 비공식적인 시너지 창출 효과를 기대

- ESD 정책개선은 교육 부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문으로 확대

○ 주요 활동 주체

- 기관, 지역사회, 국가, 국제 수준의, 특히 교육부 내 교육 정책 입안자

- 지속가능발전 부문, 특히 환경부 등에서의 정책 입안자

- 지속가능발전 및 그 교육 관련 정책 담론에 기여하는 시민사회

- 조직, 민간 기업, 학계

- 유네스코와 그 파트너들

○ 활동 제안

- 교육부가 교육 시스템의 목적을 검토하고 이러한 목표와 일치하는 학습 목표를 정의

- 교육 환경과 과정, 교사 교육 및 학생 평가와 관련된 정책을 ESD를 교육 정책에 통합

- 정책 입안 시 젠더 관점을 포함

- 학습자의 역량 증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와 협력하여 형식적 교육과 무형식적 교육 간의 시너지 관계를 체계적으로 강화

- 교육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장려하는 정책 입안

-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거버넌스 강화

(2) 학습 환경 변혁 (Transforming learning environments)

○ 개요

-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변혁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식, 수단, 의지를 가지는 주체가 되도록 장려

- 학습 기관은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맞춰 시설 관리 방식, 기관 내 의사 결정 방식, 교육방식 재검토

- 학습자가 자신이 스스로 배우고 배운 대로 생활하는 주체적 학습 환경을 조성

○ 주요 활동 주체

- 학교 교장, (전문) 대학 총장, 직업기술교육훈련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기관장, 기업 내 직원 연수센터장을 포함한 학습 기관의 장

- 학습 기관 내 교육자, 학습자 및 행정 직원

-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및 가족, 비정부, 민간 부문 실천가

- 교육 정책 입안자

- 유네스코와 그 파트너들

○ 활동 제안

- 학습 기관의 지도자는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 함께 ESD에 대한 기관 전체적 접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

- 학습 기관의 리더는 거버넌스와 문화가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과 일치하는지 확인

- 기관의 모든 구성원과 이해 관계자에게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민주적 상향식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보장

- 모든 성별과 상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협력, 연대 및 포용하는 기관 문화 발전

- 학습 기관의 행정 직원은 시설 및 운영에서 지속가능성 원칙을 구현

- 교육자, 학습자 및 행정 직원은 지속가능성 발전 환경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협력

- 교육 정책 입안자는 교육자들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교육 정책의 경쟁 우선순위 중에서 ESD를 강조, 유연한 파트너십 촉진, 학습 기관의 성과 평가에서 ESD에 대한 기관전체적 접근 방식을 반영

(3) 교육자의 역량 구축 (Building capacities of educators)

○ 개요

- 교육자는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핵심 행위자임

- 교육자는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인식변화와 활동을 이해하고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동기를 부여

- 교육자는 17개 SDGs 각각의 주요 측면과 그 상호 연결, 변혁적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

- 학습자를 안내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자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가치를 갖추어야 함

○ 주요 활동 주체

- 모든 교육 수준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과 직원

- 비형식 교육자를 위한 훈련 기관의 장과 직원

- 기업의 장과 직원

- 정책 입안자

- 교육자

- 유네스코와 그 파트너

○ 활동 제안

- 교사에대한 예비,현직 연수 및 평가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ESD 역량 개발 내용을 포함

- TVET 기관 및 민간기업을 교육하는 연수센터 리더 및 직원은 녹색 경제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충분히 고려

- 비정규 교육자를 위한 훈련 기관의 지도자와 직원도 역량 강화 활동에 ESD 포함

- 교육자는 자신의 성공과 도전을 공유할 수 있는 P2P (Peer to Peer) 기회를 창출

- 교육자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ESD가 일상적인 교육 관행에 단계적으로 적용

되고 발전함을 인지

- 교육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식의 전문 구축자 및 전달자임을 인지

- 교육자는 학습자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변혁적인 교수법을 활용

- 정책 입안자는 SDGs 목표달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를 양성하고 동기를 부여

- 정책 입안자는 목표를 달성한 교육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D 정책을 기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검토의 일부로 인식

(4) 청년의 권한부여와 참여 (Empowering and mobilizing youth)

○ 개요

-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과정과 결과에 다방면으로 노출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 필요

- 기후 위기, 젠더 갈등 등 현안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청년의 활동과 목소리를 인식

- 지속가능성에 대한 젊은층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 연구 진행

- 청년의 진화하는 소비 패턴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침

- 모든 성별의 젊은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동원하는 것은 ESD 이행의 핵심 부분

○ 주요 활동 주체

- 전 세계 청년들

- 청년 주도의, 청년 중심의 집단, 조직, 네트워크

- 의사 결정자 및 공공, 민간 기관 구성원

- 지역사회 실천가, 부모, 가족

- 유네스코와 그 파트너들

○ 활동 제안

- 청년들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사회 혁신가이자 기업가로 육성

- 청년들을 온라인 커뮤니티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도록 장려

- 청년들이 자신이 속한 교육 환경에 ESD를 포함하도록 옹호하며 사회적 변혁을 위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도록 교육

- 청소년 주도 및 청소년 중심 그룹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젊은 층이 혁신적인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창출

- 청소년 주도 및 청소년 중심 그룹 및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결, 동원

- 의사결정자와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구성원은 청년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 기여자 및 행위자로 인식

- 교육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모니터링에 청년을 포함

- 교육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대표의 자리를 확보하여 의견을 반영

□ 지역 수준의 실천 가속화 (Accelerating local level actions)

○ 개요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변화와 변혁적 행동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일상생활 커뮤니티 수준에서 이루어짐

- 지역사회는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파트너를 찾는 곳임

- 지역사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행동이 발달 되는 곳임

- 지역사회를 통해 통합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학습 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부족함

○ 주요 활동 주체

- 지방 정부, 시의회, 교육청, 국가, 지역 차원의 정책 입안자들을

- 포함한 지역 당국

- 시민사회 조직, 민간 기업, 지역 언론

- 지역학습센터 및 고등교육 기관을 포함한 지역 내 형식·비형식

- 교육 이해관계자

- 지역사회 내 모든 사람들

- 유네스코와 그 파트너들

○ 활동 제안

- 지역 당국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ESD의 중요한 요소이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습의 장임을 인식

- 지역 당국은 시민사회 단체, 민간기업, 지역 언론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의사 결정권자와 리더는 물론 일반 대중을 위한 역량 개발 방안을 제시

- 지역 당국은 정규 및 비정규 교육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

- 모든 시민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 국가 차원의 정책 입안자는 지역사회의 노력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ESD를 국가적 행동의 일환으로 인식

- 지역 당국이 교육과정에 ESD를 포함하고 평생 학습 시스템에 ESD를 포함하도록 장려

-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주요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

-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원하는 가치와 태도를 교육

-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ESD 공공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며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

1-4)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제안

(1) 국가 차원에서의 ESD 이행

○ 개요

- 5가지 우선 실천 영역 활동을 추진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를 동원하여 조정된 ESD 협력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

- ESD 프레임워크를 통한 SDGs 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활동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

- ESD는 다중 이해관계자 전략으로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활동 계획을 수립

○ 국가차원의 활동 제안

- 관련 교육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을 다루기 위해 5개 우선순위 활동 영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타 부문의 파트너십 및 협력을 촉진

- 국가 차원의 실무 그룹은 유네스코와의 계획, 실행, 네트워킹, 모니터링,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의 전반적인 조정을 책임

- 지속 가능한 개발 커뮤니티에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ESD에 대한 옹호 활동을 강화

-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2) 연대와 협력

○ 개요

- 우선 실천 영역 활동을 구현하는 데 있어 회원국의 SDGs에 대한 국가 프레임워크 관련 조정이 필요

- 관련 이해관계자를 동원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하고 글로벌 수준에서 식별된 주요 파트너 및 네트워킹 프로세스를 통해 정보 공유

- 공동 이니셔티브를 계획할 수 있는 정기적인 플랫폼의 제공

- 정부와 민간 부문, 기부자, 개발 및 SDG 공동체 행위자와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의 이해관계자 포함되도록 노력

○ 국가차원의 활동 제안

-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평생 학습을 포함하여 형식 및 비형식 학습 부문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

- 교육, 지속 가능한 개발, SDG 4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SDGs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개발하고 지원

- 지속 가능한 미래에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고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

-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2030년까지 ESD에 대한 국가 이니셔티브 활동을 조정하고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촉진

- 상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ESD에 관한 정책 및 관행과 관련하여 글로벌, 지역, 국가 차원의 조정 및 협력 강화

(3)실천을 위한 소통

○ 개요

- ESD가 SDGs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활동)

-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에게 17가지 SDG의 존재와 이러한 목표가 개인 및 단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것이 포함되며 개인과 기관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포함됨

- SDGs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수요에 대한 소통 플랫폼 확장이 필요

- 국가적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ESD 2030이 필수 요소가 되고 세계적 차원에서 유네스코는 SDGs, 학습자 및 교육자에게 ESD 역할에 대해 알리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국가차원의 활동 제안

- 교육 이해관계자와 미디어를 동원하여 ESD가 표적 커뮤니케이션과 홍보를 통해 SDGs를 충족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알림

- 공공 캠페인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SDGs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봉사 및 옹호 활동 확대

- 디지털 포럼을 포함하여 ESD 활동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청년 층의 참여를 장려

(4) 쟁점과 동향 연구

○ 개요

- ESD 이행은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새로운 문제와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교육학적 의미를 분석해야 함

- 개인의 변혁 과정과 관련된 문제,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적 문제, 기술 발전 시대에서의 ESD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해야함

○ 국가차원의 활동 제안

- 교육 환경의 국가적, 지역적 맥락에서 17개의 SDG를 검토하여 추가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한 문제와 경향을 식별

- 고등교육 및 연구 기관이 ESD 2030에 대한 국가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의 연구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

- 연구 결과를 배포하고 검토하여 다양한 SDGs 간의 상호 연결 및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학습 기회 창출

-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특정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 및 ESD 관련 새로운 이슈와 경향을 검토

(5) 자원 확보

○ 개요

- 다자간 금융 기관, 국가 개발 기관, 민간 부문,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행위자들과 같은 핵심 주체들의 지원이 필요

- SDGs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파트너십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필요

- 확보된 자원을 통한 ESD 2030 이행은 타 부문, 특히 문화 및 과학과의 부문 간 파트너십을 형성으로 확장

- 유네스코 연합 학교 네트워크(ASPnet), 유네스코 석좌, UNEVOC, TVET를 포함하여 관련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형성에 ESD 2030의 기여를 장려

○ 국가차원의 활동 제안

- ESD가 단일 주제가 아닌 전체론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학교 지원, 교사 연수, 청소년 권한 부여, 도시 및 지역사회의 평생 학습에 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금을 탐색

- 지속 가능한 개발, SDGs의 국가적 이행, 국제 협력에 할당된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ESD와 관련 분야 간의 시너지 창출

- 양질의 교육과 인류의 집단적 생존과 번영에 대한 기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예산을 배정

- ESD 발전 과정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지역 이니셔티브와 자

원을 활용

- 녹색 발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TVET 기관과 민간기업 훈련 센터를 활용하고 민간 부문의 자원을 동원

(6) 진전 상황 모니터링

○ 개요

- 5가지 우선 실천 영역의 이행 확대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파트너와 회원국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ESD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결과물 생산과 영향력 확대가 필요

- 핵심이슈, 동향, 발전 현황을 확인, 분석하는 정기적인 주제별 조사가 필요

○ 국가차원의 활동 제안

- ESD 관련 국가 활동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

- 국가 차원에서 ESD에 대한 진전 상황과 5대 우선 실천 영역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정기적 설문 조사 실시

- SDG 4.7 목표 달성을 포함한 SDG 관련 국제 지역 모니터링의 일부로서 ESD를 보고

2) 유럽연합

2-1) 유럽연합 내 주요 논의

□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논의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 유럽연합은 2022년 1월 환경 지속가능성 교육에 대한 권고사항을 채택함 (Council Recommendation on learning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uropean Commission, 2022)

○ 유럽연합의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생물다양성 전략 2030(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기술 교육에 대한 결의(Skills Agenda)를 포함한 EU의 주요 정책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발전에서 국민들의 권한 부여 및 참여 장려

- 유럽 그린딜과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를 통해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변혁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 에너지, 환경, 이동성 및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포괄적인 녹색 전환을 목표로 함

○ EU는 녹색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조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그린 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운영, 프로세스 및 관행 측면에서 기후 및 생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학습자가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제언을 도출

○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은 현재와 미래의 개인, 사회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학습자는 경제, 사회 및 자연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은 개인 및 집단행동의 변화로 귀결

- 지속가능성 발전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 사고, 인지 학습을 촉진하는 실습,

참여 및 행동 기반 학습 방법이 필요

- 실용적인 기술 개발 응용 학습과 공감, 연대 및 자연에 대한 사회, 정서적 학습 장려

○ 환경지속가능성 교육과 유사한 다른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

- 환경교육, 지속가능성 교육, 기후변화 교육, 평화 교육, 글로벌 교육 및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이 있으며 환경 지속가능성 교육은 이러한 교육들과 연계하여 진행

2-2) 환경 지속가능성 교육(Environment Sustainability)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 환경 지속가능성 교육 프레임워크

○ 정책 입안자 및 EU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의 기타 대표와 함께하는 노력은 (i) 유아교육과 지속가능성, (ii) 교사를 위한 교육 및 지원, (iii)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관 전체적 접근, (iv) 시스템 변경을 위한 장벽 해소 및 조력자 탐색에 중점을 둠

○ 지속가능성 교육훈련, 연구, 환경 및 청소년 부문의 이해관계자의 노력은 (i) 정책 수단 및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습의 영향 및 효과, (ii)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파트너십, (iii) 교육자의 역량 구축, (iv)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함

□ 환경 지속가능성 교육 특징

○ 전략적 정책 및 접근 방식

-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습 전략, 정책 문서 또는 실행 계획은 글로벌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과 동등하게 실행 가능

-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초등 및 중등 교육 수준 관련 문서에 포함하고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을 진행

- 유치원 및 초등, 중등 교육부터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 개선을 목표로 설정

-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에 기금 투자를 증가하고 관련 활동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도입

- 회원국의 절반이 보유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다루는 고등 교육법을 개정하여 자율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고려

○ 교사 역량 구축

- 교사의 지위와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력 경로를 개선하고 더 나은 교사 훈련 기회를 제공

- 교육 및 훈련 분야의 모든 직원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배울 기회가 요구됨

- E-Twining 네트워크와 온라인 워크샵 조직을 통해 학교 내 지속가능성 및 환경문제에 적극적 동참

- 교사들은 e-Twining 커뮤니티 내의 SENSE(Sustainability Education Network Service e-Twining)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교사의 교내 및 교외 프로젝트 발표, 교육 및 지속가능성 및 협력 작업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에 참여

- 초등 및 중등 학생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타 국가의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공동 작업하는 등의 동기 부여

-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교육 커리큘럼이 재설계된 경우, 시간, 공간, 자원적 여유를 필요

- 학교 이외의 조직과의 협력 증대

- 원격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한 교직원과 학생의 디지털 기술을 향상과 온라인 협력 장려

- 양질의 전문성 개발과 동료 학습의 기회를 통해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자

체적으로 협력

○ 협업 및 파트너십

- 청소년 협회, 과학 센터, 박물관, 도서관 등의 지역시설 및 산업체와 같은 지역사회의 핵심 주체 간 협력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 강조하고 교내 교육 외 현장 경험을 촉진

- 학생, 학부모, 교육자,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임을 통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체결

- 유럽 전역의 교육기관과 NGO 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비정규 교육기관이 지속가능성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확대

- 일시적인 파트너십 체결보다 장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 교육의 잠재력을 증대

- 현존하는 약 180개의 교육 전문 센터를 활용해 교육 네트워크와 부문 간 이니셔티브를 활성화하고 교육 및 역량 구축에 대한 지역 이해관계자의 투자를 장려

- 다중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력 학습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해결과 교육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신뢰 구축

- 유아교육 및 보육의 파트너십은 자연과 지속가능성의 요소를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을 통해 자연 및 동물과의 상호 작용과 같은 주제에 중점을 둠

2-3) 환경 지속가능성 교육 회원국 이행 권고사항

□ EU 수준의 활동 제안

○ 일상생활에서 환경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

○ 환경 지속가능성은 하나의 주제나 모듈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학문의 조합이라는 인식으로 개선

○ 교육자 지원과 관련하여 양질의 전문 개발 기회를 행동의 우선순위로 간주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교육 및 훈련 기관과 지역 및 커뮤니티 간의 협력을 강화

○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을 발전을 위한 자금 부족과 완전한 커리큘럼 정착에 대한 시간 부족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애물로 인식, 개선방안 간구

○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습에 대한 정책 및 전략. 회원국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동료 학습, 프로젝트 및 연구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학습에 대한 공통 원칙 및 공유 언어 설정으로 확대

○ 지속가능성에 대한 민간 의견을 EU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지속가능성 및 ESD 학습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표측정을 진행

□ 회원국 수준의 활동 제안

○ ESD 교육 발전의 단계적 확립

-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급성을 감안한 체계적 교육과 훈련 진행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든 교육 및 훈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포함

- 지속가능성 발전을 학생의 학습 경험에 확고하게 고정

- 개별 및 기관 시스템의 수직적, 수평적 협업

- 교육 및 훈련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녹색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사고 방식을 개발하도록 지원

- 지속가능한 미래에 필요한 변화를 학습자에게 알리기위해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에 걸쳐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 지속가능성 교육을 교육자가 이행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나 부담이 아니라 다른 교육 의제와 동일하게 취급

- ESD 발전을 삶과 일에 필요한 역량으로 인식

○ 기관 전체 접근법 (Whole-institution approach, WIA)의 발전

- 비전과 계획: 조직의 비전, 사명 및 핵심 운영에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이행, 모니터링 및 보증을 지원

- 리더십 공유: 교육 리더는 직원과 학부모 및 학생을 참여시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유 비전을 개발하고 교육자와 학습자가 계획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주인의식 구축

- 적응성: 기관이 내부 및 외부 요구 또는 변화의 과정에 적응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 조직이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 핵심 활동 주체의 주도적이고 개방적인 태도: WIA 혁신을 위해 교육자에게 지속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상향식 이니셔티브로의 전환이 필요

- 이해관계자 참여: 투명성, 신뢰, 책임 공유 및 지속적인 개선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촉진

- 운영 수준에서 지속가능성 주제를 통합: ESG 교육을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교육학적 도구로 사용

- 모니터링 및 평가: 질적, 양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교육 기관의 명확한 전략을 개발, 이때 자체 평가를 통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전체 기관 접근 방식을 지원

2-4) 환경 지속가능성 교육 관련 이행방안

□ 기존 및 계획된 EU 이니셔티브

○ The new Erasmus+ Teacher Academies

- 대학, 교사 양성 대학 및 과정 제공자를 포함한 유럽의 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킹과 협력을 지원

- 초기 교사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교사 경력 전반에 걸쳐 전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

- 국가 교사 교육 시스템 내의 기존 혁신과 효과적인 관행을 기반으로 하는 모듈, 교육 및 실습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우선순위 영역을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습 및 교육으로 인식하고 환경 지속가능성과 순환 및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

○ The Zero Pollution Action Plan

- 지속가능 교육 발전을 위한 파트너 또는 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일반대중, 학생 및 취약 집단을 위한 무공해 활동의 촉진, 의료 및 기타 사회 복지 부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EU 교육 모듈

- 환경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삶의 일부로 인식하게 하는것을 목표로 함

○ The EU Youth Strategy 2019-2027

- 연결, 참여 및 권한 부여 등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

- 청소년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EU 국가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환경적으로 활동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8개월 주기로 정책 입안자와 청년들의 소통을 추진하여 청년 협의회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도모

- 청소년들이 EU 정책을 형성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

□ 능동적 학제적 교육 강조

○ 통합적 접근법

- 환경, 지속가능성의 발전은 교육 이외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학제 간 참여, 실생활 및 프로젝트 기반 접근 방식을 장려

- 모든 환경에서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와 함께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습을 발전

- 산림, 지구 교육 및 생태 교육은 학습자가 자연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촉진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경험하여 자연과의 인지 및 정서적 관계를 향상 하도록 장려

- 녹색 전환에 필요한 모든 주제와 사회문제에 대해 학습자에게 주체 의식 부여

- 유럽 그린 딜의 목표인 기후 및 환경문제를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으로 인식

- 고등교육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과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를 접목시키고 학습자에게 관련 분야에 경력을 추구하려는 기회를 제공

○ 자연교육과 야외교육 확대

- 자연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자연을 배려하는 태도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행동을 지원하는데 기여

- 환경 개선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친환경 활동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므로 생태학적 행동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진행

- 초등 아동 교육과정에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 생태학적 행동의 변화와 자연에 대한 공감을 강조

- 자연 현상에 대한 학습은 지속가능성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와의 연결을 추진

- 환경 지속가능성 교육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주의력, 리더십, 팀워크에 긍정적으로 기여

- 학습자에게 자기 훈련 및 동기 부여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로 녹색 발전과 전반적 학습 결과를 향상

□ 지속가능성 교육에 대한 교육방법론적 접근

○ 기존 교육 커리큘럼 수정 및 보완

- 기존의 선택된 주제 또는 학제 간 모든 주제에 환경 지속가능성을 포함

- 새로운 커리큘럼 프레임워크의 통합을 안내하고 특정 학습 목표에 공표

○ 프로젝트 기반 통합

-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중심 모듈, 주제 또는 문제가 있는 실험적 커리큘럼을 생성

- 사회문제에 대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생성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

○ 교수 및 학습 방법론에 중점

- 단순히 주제 영역에 대한 이론적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현장 학습, 생태교육 같이 학습자 중심적이고 참여적인 교수 및 학습 방법론을 통합

○ 과외활동 활성화

- 지속가능성 교육을 학생 동아리, 협회 및 외부 기관 활동을 통해 장려하여 과외 활동으로 활성화

2. 주요국의 ESG 교육 현황과 시사점

1) 사례분석 개요

□ 사례분석 목적

○ ESG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경영학에 기반을 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교육과 둘째,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발전(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첫째, 경영학 관점의 ESG 교육은 새로운 금융투자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를 기업활동에 접목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주로 대학, 대학원 MBA 과정이나 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훈련이 있음

○ 둘째, 지속가능발전(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교육은 보다 광의의 의미로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발전이 되도록 환경, 경제, 사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교육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초중고 공교육에서 ESG 교육 적용방안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로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관점에서 주요국의 사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함

□ 사례분석 대상 및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미국, 영국, 핀란드, 독일 4개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함

- 미국과 영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최근 ESG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사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신설함으로써 기업 임직원 및 대학교육에서 ESG 과정을 도입하고 있음

- 핀란드는 일찍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실시하였고 초중등교육에서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 독일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이행을 위해 연방정부, 지방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음

○ 본 연구는 ESG를 초중등교육에 접목한 사례를 주로 수집하였으나,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등교육에서 최근 ESG 교육을 실시하는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함

○ 사례분석은 각국의 정부문서 등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2) 미국의 ESG 교육 현황과 시사점

□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ESG 교육 - 경영학적 관점의 ESG 교육

○ 전 세계적으로 금융투자를 위한 비재무적 기준으로서 ESG에 대한 평가가 확산됨. 기업활동에 ESG 관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미국 고등교육 기관들은 전공교육과정이나 기업 임직원 대상 특별교육과정에서 ESG 관련 교육을 도입하고 있음

○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ESG 교육은 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 최근 다수 대학의 MBA(경영학 전문석사) 커리큘럼에서 기후 금융(climate finance),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 사회적기업(social entrepreneruship) 등의 과목을 강의[43]

-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은 사회적 임팩트와 관련된 50여개의 학부 및 대학원 과목을 개설 중

- 듀크대학교 후쿠아 경영대학원은 '비즈니스와 공공 목적(Business and Common Purpose)'이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함

□ 미국 초중등교육에서 ESG 교육 - 지속가능발전(ESD) 관점의 교육

○ 이에 반해 초중등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은 'Green Ribbon School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43) https://www.nytimes.com/2021/11/13/business/dealbook/business-schools-ESG.html

- 2011년 미국의 환경 및 지속가능 관련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미국 교육부에 요청하여 초중등학교에 지속가능한 시설, 보건 환경을 갖추고, 효과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도록 청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미국 교육부의 Green Ribbon Schools 인증과 수상 프로그램이 생겨남

○ 초중등 교육기관이 ①환경적 영향 감소, ②학생들의 건강 및 웰빙 증진, ③환경 및 지속가능성 교육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Green Ribbon Schools'로 인증하고 우수학교는 시상

- Pillar 1: 환경적 영향을 줄임. 학교시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쓰레기, 물, 에너지, 온실가스, 교통량 등을 줄임

- Pillar 2: 건강·웰빙 증진. 물리적으로 건강한 환경조성(공기질, 오염원, 습도, 조도, 소음, 온도, 해충 등), 학생과 교직원 대상 건강증진(건강에 좋은 음식, 야외 체육활동 등)

- Piaalr 3: 효과적인 환경 및 지속가능성 교육.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과학기술·수학교육(STEM) 등 포함

○ 우수학교에 대해 수상을 실시하여, 2011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총 671개 학교가 수상을 함. 이를 통해 초중등 학교들이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고, 지속가능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됨

○ 또한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 투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Green Ribbon Schools'프로그램을 계기로 연방정부 환경청, 해양대기청, 총업부, 내무부, 에너지부,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초중등학교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음

□ Green Ribbon Schools 지속가능발전 교육 우수사례 (1) : Charles H. Barrows STEM Academy

○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특화된 실험실과 교실, 야외 교실, 텃밭 정원, 산책로, 습지, 숲 등에서 실시함. 학교의 해양 교실은 미국 해양대기청의 수변시설 활용 교육(Watershed Educational Experiences) 지원을 받기도 함. 온실에서 도시농업 커리큘럼을 교육

○ 학교 캠퍼스에는 습지(swale), 연못, 초원 등이 있어 현장 학습과 방과 후 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다양한 생물에 대한 현장연구에도 사용됨

○ 이와 같이 야외시설을 학습을 위한 실험실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은 식물과 농작물을 직접 기르는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됨

○ 실제 환경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과학기술수학(STEM)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함

□ Green Ribbon Schools 지속가능발전 교육 우수사례 (2) : Academy of the Sacred Heart

○ 여아들이 1세부터 12학년(고등학생)까지 다니는 학교로서, 2019년 Sustainable Hearts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변혁적, 공동체 지향 실천, 환경의식 등을 교육하고 있음

○ 학생들은 비료화처리, 정원가꾸기, 인근 해변청소, 지속가능성 관련 국내 및 해외 봉사활동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

○ 혁신랩(Innovation lab)에서는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는 학습을 하고 환경에 대한 의식, 시민의식 등을 함양함

- 도시에 재생가능에너지 공급하는 공학기술, 패스트 패션 문제해결을 위한 의류 업사이크링(재활용)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룸 혁신랩에서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배우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GeoChallenge와 같이 자연보호 문제해결을 하는 경진대회 참여

○ 환경과학 수업 듣는 학생들은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환경재난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학습하며 학교 전체 대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훈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간

<table>
<tr>
<td>
At Charles Barrows STEM Academy sustainable education unfolds in specialized labs, outdoor classrooms, courtyards, gardens, meadow, wetland, wooded temperate forest, and a Certified Monarch Waystation.</td>
<td>

Academy of the Sacred Heart students design a renewable energy-powered city.</td>
</tr>
<tr>
<td>Charles H. Barrows STEM Academy</td>
<td>Academy of the Sacred Heart</td>
</tr>
</table>

출처: Department of Education(2022). Highlights from the 2022 Honorees. p.19&p.22

□ Green Ribbon Schools 지속가능발전 교육 우수사례 (3) : Escuela Verde

○ Escuela Verde(스페인어로 녹색 학교를 의미)는 지속가능성, 학생주도 교육,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등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교육(ecopedagogy)을 지향하는 학교이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델로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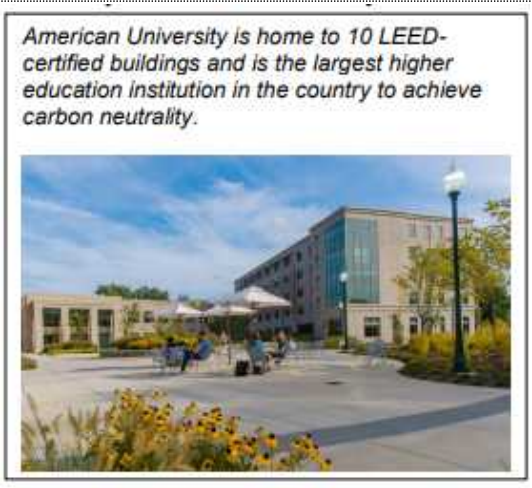
○ 학교의 커리큘럼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지향하며 구성되고, 학생들은 과학과 생태학이 다른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학습하며 1년에 300시간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 주제에 대해 논문을 작성함

○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학생들이 관심있는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어드바이저가 학습을 지원함. 개인이 학습계획(personalized learning plan)을 만들고 이에 기반하여 학습함

○ 특히 커뮤니티의 환경문제에 대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는 연구프로젝트(Youth Participatory Ecojustice Action Research)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함44)



Escuela Verde



American University

출처: Department of Education(2022). Highlights from the 2022 Honorees. p.34&p.18

□ Green Ribbon Schools 지속가능발전 교육 우수사례 (4) : American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로 미국에서는 최초로 2018년에 탄소중립 캠퍼스 인증을 받음

○ 또한 지속가능전담부서(The Office of Sustainability)가 중심이 되어 교수학습센터와 협력하여 캠퍼스 내 지속가능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자들이 활용하도록 함

○ 또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캠퍼스 내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300여 개의 전공 및 교양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룸. 50개 전공학과 중 38개 학과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코스를 운영

○ 교과목으로서 환경 지속가능성, 글로벌 보건, 글로벌 환경정치, 자연자원과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관리 석사과정 등을 운영함

44) https://escuelaverde.org/our-curriculum/

□ 미국 ESG 교육 시사점

○ 연방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ESG 교육을 위한 전략이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빠른 속도로 ESG 관련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있음

- 경영대학원 MBA를 중심으로 ESG 투자에 대한 과목, 임팩트 투자, 기후변화, 사회적 기업 등의 과목이 ESG 관련 과목으로 개설됨

- 아메리칸 대학 사례와 같이 각 대학에서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전공 및 교양과목, 비교과활동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음

○ 초중고 교육에서는 각 학교별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점에서 실시하고, 정부는 환경 영향 감소, 학생·구성원 건강,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3가지 차원에서 우수한 학교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지속가능발전교육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과학기술수학교육(STEM) 측면에서 환경지속가능성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지도 증진, 과학기술 개발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점이 특징

- 교수법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지향

3) 영국의 ESG 교육 현황과 시사점

□ 영국 고등교육에서 ESG 교육 - 경영학적 관점의 ESG 교육

○ 영국 대학들은 석사과정과 기업 임직원대상 특별교육에서 ESG 교육을 접목하고 있음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사이드 경영대학(Said Business School)은 고위과정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속가능성(ESG Sustainability) 프로그램을 운영

○ ESG 고위과정 교육목표(learning outcome)

- ESG 역사, 관련 산업조직, 중요성 학습

- ESG 관련 거시적 트렌드, 정책발전, 경제적 동인 인식

- ESG 관련 이해관계자 및 역할 파악 (투자자, 포트폴리오 매니저, 기업, 활동가, 규제자 등)

- ESG 관련 위험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함의 파악

- ESG 관련 국제 및 국내 협약과 정책에 대해 학습

- ESG 투자와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이해

- ESG 투자(ESG investing)에서 리스크와 이익 분석을 위한 금융수단 적용

- ESG 가치와 측정도구 및 특징과 장단점 이해

-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ESG 전략 실행시 도전과제 이해

○ ESG 고위과정 교육 커리큘럼

- Module 1 지속가능성 원동력과 기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의 등장배경, 기업이 환경과 사회문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포용적 자본주의 등 철학적·도덕적 기반에 대해 교육

- Module 2 지속가능 금융(시장, 핵심 제도와 행위자): 기업 입장에서 CSR, 투자자 입장에서 ESG 투자, 정책관점에서 지속가능금융 등 다양한 개념 탐색, 지속가능성 논쟁 관련된 초국가적 조직과 기준을 결정하는 행위자등에 대해 교육

- Module 3 지속가능 비즈니스 선도: 기업의 이사회,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학습. 사회와 환경 이슈가 기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이유, 기업이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탐색,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룰 때 생겨나는 기회, 이해관

계자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고하는 방법 교육

- Module 4 지속가능 금융과 ESG 투자: 투자회사들이 ESG 요소를 투자결정에 포함시키는 이유, 주요 투자기관들의 ESG 전략,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접근하는 방법, ESG 투자의 재무적 이익과 ESG와 주주가치의 연계 등에 대해 교육

- Module 5 미래 방향과 트렌드: ESG 투자와 지속가능금융의 미래 전망

□ 영국 초중등교육에서 ESG 교육 - 지속가능발전(ESD) 관점의 교육

○ 영국 정부는 2022년에 교육부(DfE) 및 관련 공공기관, 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적용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a strategy for the education and children's services systems)을 발표함

○ 영국정부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협약과 국내 법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함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UNESCO의 지속가능교육(ESD), 파리협정, 유엔아동권리규약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필요성과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강조함

- 영국 기후변화법(2008), 국가적응프로그램, 탄소중립 2050 계획, 환경법(2021) 등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호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준수하고,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전략을 수립

○ 전략 목표

①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교육과 기술 향상: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차세대들이 학습과 실전경험을 통해 대비하도록 함

② 탄소중립(Net Zero):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직간접적 탄소배출 감소,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탄소중립 전환에 동참하도록 교육

③ 기후변화 회복력: 교육 및 보육시설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하도록 준비

④ 차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조성: 생물다양성 증진, 대기질 향상, 교육 및

보육 환경과 자연의 접근성 증진

○ 전략 이행을 위한 이니셔티브

- National Education Nature Park: 학교 주변 자연환경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가상 환경에서 자연공원을 만들어 공원이 커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물을 학습. 생물다양성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Climate Leaders Award: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관련 우수한 업적을 보인 학생, 학교, 교육자 대상 수상

- Sustainability Leadership: 학교 및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협력하도록 장려, 2025년까지 유아, 초중등,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 의 지속가능성 담당자에게 탄소 문해력(carbon literacy,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교육 실시





National Education Nature Park

출처: 영국 교육부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3KAe4g4OdCY

○ 전략 이행과제(Action Plan)

- 이행과제 1: 기후변화 교육
  · 아동들에게 자연,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지속가능성 중요성에 대해 교육
  · 5세부터 대학입학 전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속가능성 교육을 적절히 접목하도록 함
  · 고학년으로 갈수록 국가 공통교육과정 내에서 과학, 지리, 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교육
  · GCSE 과정(중학교)에서 현행 교과목 중 디자인과 기술, 영양, 경제학에서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해 학습, 2025년까지 자연사(natural history) 과목 도입하여 자연에 대해 학습하도록 장려

· A level(고등학교)에서 환경과학(environmental science) 과목에서 자연과 지구에 대한 과학적 지식 학습

·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후 2022년부터 모든 졸업자 대상으로 연간 기후변화 문해력 조사(climate literacy survey)하여 인식변화 정도를 장기추적
  -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함

· 교사들의 지속가능 교육을 위한 교재, 교육자료 지원

· 과학교사들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 학생들이 자연에서 식물재배, 에코클럽 참여 장려. 또한 지속가능 음식 공급망, 재활용, 날씨 및 에너지 모니터링 참여 장려

· 기후변화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교육할 때 정치적, 정책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도록 교육

- 이행과제 2: 녹색 기술과 경력

· 학생들이 녹색기술을 습득하여 영국이 녹색산업혁명을 이끌도록 교육

· 녹색 직업을 위한 과학기술수학 교육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 교육

·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현장실습기관을 통해 녹색 견습(Green Apprenticeship) 프로그램 도입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을 훈련한 뒤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하고 재원을 투입

- 이행과제 3: 교육시설과 디지털 인프라

· 향후 모든 신규 학교 건물은 탄소중립 건물이 되도록 건설

· 기존 학교 건물은 에너지 사용, 물, 난방, 생물다양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체계(예. 물사용 측정 스마트미터)를 갖춤

· 이상기후 중 온도상승, 홍수, 물부족 등 가장 큰 3대 위험에 대비

- 이행과제 4: 운영 및 공급망

· 아동과 청소년들이 순환경제, 쓰레기 감소, 자원효율 등에서 지속가능한 습관을 갖도록

· 모든 교육기관(유아, 초중등, 고등교육까지)에서 1명 이상에 대해 기후변화 문해력 교육 실시

· 지속가능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조달규정 제정하여 운영

· 지속가능한 음식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친환경 음

식을 공급하도록 장려, 음식쓰레기 줄이도록 장려
·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재활용 사용하도록 하여 순환경제 달성 장려

- 이행과제 5: 국제사회 기여
· 교육부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국제행동에 동참
· 타 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지원
· 영연방외교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 FCDO), 무역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DIT), 총리실, 기업·에너지·산업부, 영국문화원 등과 협력

□ 영국 ESG 교육 시사점

○ 영국 교육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를 위한 국가차원의 일관된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 환경보호, 탄소중립 등 환경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기후변화 교육, 녹색기술과 환경 관련 경력개발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공급망 교육, 국제사회 기여 교육 등을 실시

○ 디지털 트윈시티 개념을 적용한 National Education Nature Park 이니셔티브를 통해 학교주변에서 자연친화적 교육을 실시하고 가상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을 학습하도록 함

○ Climate Leaders Award, Sustainability Leadership 등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기여한 개인과 교육기관을 수상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여 인센티브 제공

4) 핀란드의 ESG 교육 현황과 시사점

□ 핀란드 고등교육에서 ESG 교육 - 지속가능발전(ESD) 관점의 교육

○ 핀란드 대학의 협의체인 Universiites Finland(UNIFI)는 2020년에 '대학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2가지 책임'을 발표하였음. 대학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연구, 교육, 사회와 상호작용 이외에 캠퍼스 내외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 12가지 책임의 예로서'지속가능성 도전과제를 해결하귀 위한 연구를 강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을 모든 학위과정에서 포함' 드으이 내용이 있음

○ 핀란드에서 응용과학을 교육하는 대학들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책임(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sponsibility)'이라는 공동프로그램(joint programme)을 만듦[45)]

- 핀란드에서 응용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년 3만여명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함

- 대학자체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2030년까지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핀란드 초중등교육에서 ESG 교육 - 지속가능발전(ESD) 관점의 교육

○ 핀란드 국가핵심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a)에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음[46)].

- 이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까지 적용되는 원칙임

- 또한 특정 교과목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모든 교과목에 적용하는 범분야(cross-cutting) 접근법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음

○ 국가핵심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인권, 인간 존엄성, 문화와 언어 다양성, 민주적 주체 등을 강조하고 있음[47)]

- 또한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을 강조하는데, 이는 모든 과목에서 필요한 역량으로서 융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을 의미함. 개인의 성장과 향후 시민의로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역량임

---

45) https://www.arene.fi/ajankohtaista/universities-of-applied-sciences-sustainable-development-skills-for-everyone/

46) European Union(2021). EU Actions for "ESD for 2030". p.14

47) European Union(2021). EU Actions for "ESD for 2030". p.15

- 초등교육에 횡단적 역량은 사고력, 문화적 이해력, 의사소통력, 일상생활 관리, 멀티미디어 이해력, ICT 기술, 기업가적 기술, 참여, 지속가능 미래 구축 등의 역량을 의미함

- 중고등교육에서 횡단적 역량으로 강조되는 것은 웰빙 역량, 상호작용 역량, 다학제적·창의적 역량, 사회적 역량, 윤리적·환경적 역량, 글로벌 역량 등임

〈표 5. 핀란드 국가교육과정 중 횡단적 역량〉

초등교육 횡단적 역량	중고등교육 횡단적 역량
1. Thinking and learning to learn 2. Cultural literacy,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3. Managing daily life, taking care of oneself and others 4. Multiliteracy (covers also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5. ICT-skills 6. Entrepreneurial and work life skills 7. Participation and building sustainable future	1. Well-being competence 2. Interaction competence 3. Multidisciplinary and creative competence 4. Societal competence 5. Ethical and environmental competence 6. Global and cultural competenc



출처: Current approaches and policies in Finnish Media Literacy

○ 핀란드 교육부는 2020년 지속가능발전 정책(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를 발간함. 핀란드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략이 마련되었으며, 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두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48)]

- 4가지 전략목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략목표 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식, 기술, 역량 함양', '전략목표 3. 사회변화를 위한 창의적, 탐구기반, 책임 행동'등 두 가지 목표가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연관됨

- 전략목표 2 더 나은 지식, 기술과 역량: 목표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으로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 전략목표 3 사회변화를 위한 창의적, 탐구기반, 책임 행동: UN SDGs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강화,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 강화, 스포츠문화 시설 건축 시 에너지 효율, 순환경제 도입, 문화자원 보호 및 보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등

〈핀란드 교육부 지속가능발전 정책(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and its administrative branchnquiries:

48)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2020).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and its administrative branch

○ 핀란드는 직업교육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핵심적인 역량으로 다루고 있음

- 각 직업별로 필요한 역량을 교육하고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하는데, 공통역량에 대해서도 교육함

- 지속가능발전은 생활과 직업을 위한 기초적 기술, 일반적인 교육 관련 기술로 보고 모든 직업군에서 갖춰야 할 기초적 기술이자 역량으로 봄

-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역량과 녹색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핀란드 교육청(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직업훈련학교 언합체(A network of TVET-institutions)와 함께 교과를 개발함

- 2021년부터는 '기후 책임성(Climate Responsibility)' 이라는 선택과목이 추가될 것임

- 직업훈련학교 연합체는 '글로벌 교육과 자발적 개발(Global Education and Voluntary Development Work'이라는 연구조직을 만들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 이는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 시민의식, 기업가정신, 글로벌 책임의식을 기르도록 하는 것으로서 교육기관과 NGO가 협력하여 교육하고 학생들을 네팔, 우간다, 탄자니아, 나미비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기도 함[49]

49) https://vamia.fi/en/global-networks-financed-by-the-finnish-national-agency-of-education (최종접속일: 2022.8.9.)

〈핀란드 직업교육에서 글로벌 교육 적용 사례〉



출처: https://finvet.fi/en/kevaverkosto (최종접속일: 2022.8.9.)

□ 핀란드 ESG 교육 시사점

○ 핀란드는 초중등교육 기관과 고등교육기관모두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초중등교육 국가핵심교육과정에서는 환경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 인간 존엄성, 문화와 언어 다양성, 민주적 주체 등을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을 모두 반영한 교육을 실시함

○ 핀란드 교육부 역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교사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훈련 제공

○ 유럽연합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직업교육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공통역량 과목으로 교육하도록 함

5) 독일의 ESG 교육 현황과 시사점

□ 독일 고등교육에서 ESG 교육 - 지속가능발전(ESD) 관점의 교육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ät Berlin) 사례를 보면, UN SDGs 발표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대학에 적용함. 대학의 연구, 교육, 지식이전, 행정 및 캠퍼스 시설 등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함[50]

○ 베를린 자유대학교 연구 프로젝트의 약 30%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연구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연구를 함

○ 2016년에 대학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미션 선언문(sustainability mission statement)에서 지속가능성을 대학 커리큘럼에 결합시키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를 적극 실시하기로 함

○ 이에 따라 2021/2022년 기준 전체 4,507개 교과목 중 16.1%인 725개 과목이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었고, 4.5%/203개 교과목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과목임

○ 지속가능성을 담당하는 전담팀(The Unit for Sustainability and Energy Management)에서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업무와 지속가능성 교육 및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협력업무를 맡고 있음

○ 2015년 지속가능대학 연합(University Alliance for Sustainability, UAS)을 결성하고 세계 각국 대학가 교류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대학간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을 함

□ 독일 초중등교육에서 ESG 교육 - 지속가능발전(ESD) 관점의 교육

○ 독일 교육부(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는 2015년부터 UNESCO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실행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국가 교육체계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접목함

---

50) https://www.fu-berlin.de/en/sites/nachhaltigkeit/index.html (최종접속일: 2022.8.10.)

○ 독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2017년에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계획의 실행과정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연방정부, 주정부(Länder), 기초자치단체, 과학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망라하여 40여명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모인 국가 차원의 플랫폼에서 의사결정

- 300여개의 교육 관련 조직과 기관들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 국가 지속가능교육 플랫폼에 16세-25세 사이 청년들도 30여명이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함

○ 독일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국가이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AP ESD)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지속가능발전을 교육행정과 교육시스템에 내재화한다
(2) 교사와 교육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포함시킨다
(3) 교육과정(커리큘럼)과 교과개요(실라버스)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구조적으로 포함시킨다
(4)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한다
(5) 아동, 청소년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장려한다

○ 또한 주정부(Länder) 교육부처는 학생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관련 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이행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맞게 적용한 뒤 우수사례 등을 교류하고 있음

○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 이외에도 주정부 교육장관 컨퍼런스, ESD 워킹그룹, 학교별 담당관 지정, 주정부 기관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함

○ 각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법령과 범정부 전략, 교육과정 지침 등을 통해 이행 기반을 마련함[51]

- ESD strategy of Baden-Württemberg(바덴 뷔르템베르크), Masterplan BNE" in Hamburg(Hamburg Master Plan ESD) 등

○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교육부가 협력하여 "지속가능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프레임워크(Curriculum Framework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발표함

-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동시에 논의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을 경제, 사회, 환경, 정치를 총망라하는 것으로 정의함

-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갖추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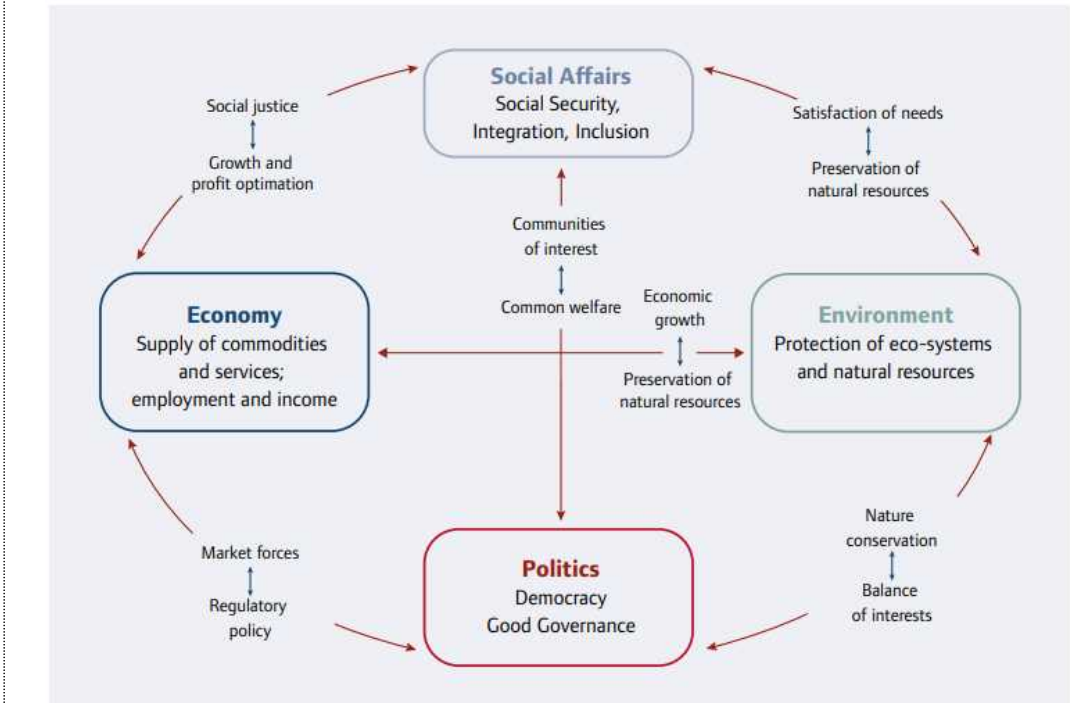
- 학생이 갖춰야 할 역량을 인식(recognising), 비판적 평가(assessing), 행동(acting)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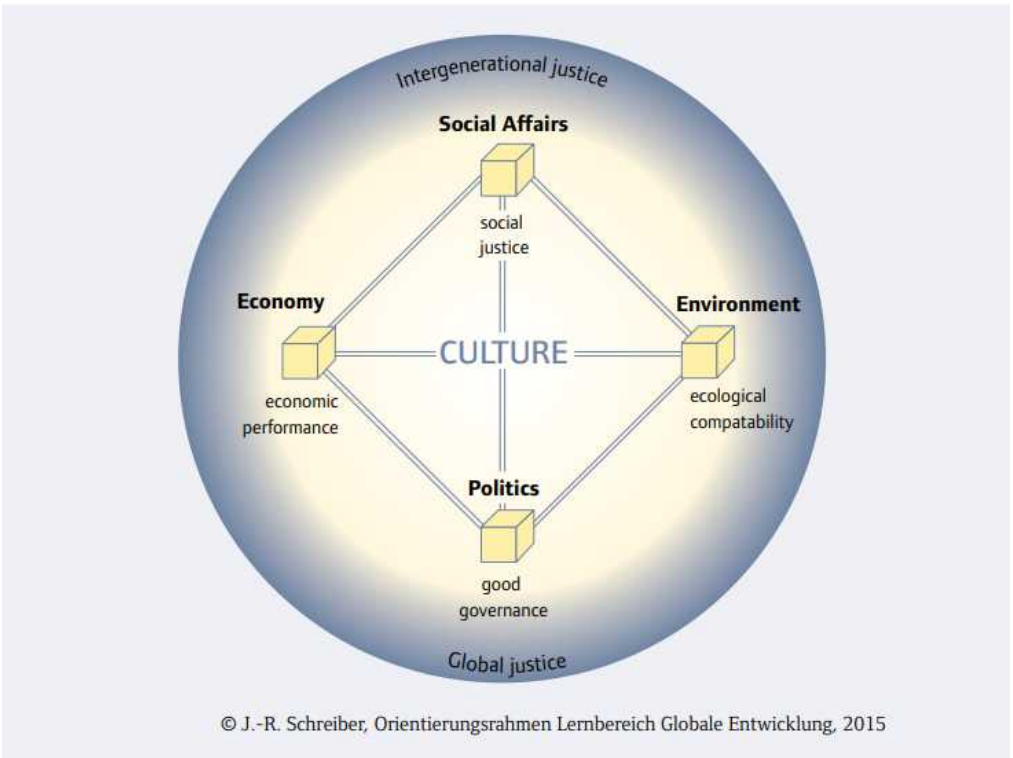
-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세분화된 과목으로 구분하여 교육하기보다는 범분야 이슈로 적용하여 모든 교과목에서 교육할 수 있음. 이를 위한 관련 주제 21가지를 제시함

- 예를 들어, 다양성과 포용, 세계화와 윤리적 원칙, 질병과 보건, 자연자원 보호와 에너지 생산, 기술진보의 기회와 위험, 환경 변화, 경제와 노동의 세계화, 정치적 규칙과 민주주의, 인권, 글로벌 거버넌스 등이 있음

51) European Union(2021). EU Actions for "ESD for 2030". p.21

〈독일 글로벌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





출처: Curriculum Framework,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43, 89

〈독일 글로벌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학생이 갖춰야 할 역량〉

인식 (recognising)	1. 정보 취득 및 처리 (Acquisition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2. 다양성 인식(Recognising diversity) 3. 글로벌 변화 분석(Analysis of global change) 4. 다양한 수준의 실천행동 차별화(Differentiation between levels of action)
비판적 평가 (assessing)	5. 관점의 변화와 공감(Change of perspectives and empathy) 6. 비판적 수용과 평론(Critical reflection and comment) 7. 개발프로젝트 평가(Evalu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행동 (acting)	8. 연대의식과 책임감(Solidarity and shared responsibility) 9. 이해와 갈등조정(Understanding and conflict resolution) 10. 지구적 변화에 대한 실천능력(Ability to act in times of global change) 11. 참여와 적극적 개입(Participation and active involvement)

출처: Curriculum Framework,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95

〈독일 글로벌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제안하는 주제〉

Thematic areas

1. Diversity of values, cultures and living conditions: Diversity and inclusion
2. Globalisation of religious and ethical guiding principles
3. History of globalisation: From colonialism to the “Global Village”
4. Commodities from around the world: Production, trade and consumption
5. Food and agriculture
6. Illness and health
7. Education
8. Globalised leisure-time activities
9. Protection and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generation of energy
10. Opportunities and risks of technological progress
11.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2. Mobility, urban development and traffic
13. Globalisation of economy and labour
14. Demographic structures and developments
15. Poverty and social security
16. Peace and conflict
17. Migration and integration
18. Political rule, democracy and human rights (Good Governance)
19.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institutions
20. Global Governance
21. Communication in the global context

출처: Curriculum Framework,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97

○ 지속가능발전교육 커리큘럼 중 경제교육 사례[52)]

- '세계화 시대 경제 및 노동'주제. 비즈니스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서 비용과 인센티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 학생들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염두해 두고, 소비자, 기업 등의 이해관계에 대해 알고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를 배우도록 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독일 자동차회사(DaimlerChrysler) 노동자들과 생산자, 소비자 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례를 제시함

- 교사가 학생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학습과제를 제시함

> 1. 사례에 나타난 노동자와 독일 자동차회사(DaimlerChrysler)의 이해관계에 대해 간단히 묘사하라
>
> 2.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계화된 경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에 대해 분석하라
>
> 3. 다음 명제에 대해 입장을 정해 논리를 전개하라: '발전정책 관점에서, 우리는 독일로부터 신흥경제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일자리가 이동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 또한 3가지 과제를 수행했을 때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는 역량과 예상되는 교육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음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잘 수행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상(ESD awards)을 수여하여 그 성과가 전국 단위에서 가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장려함

○ 독일 직업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육 의무화

- 표준 교육내용으로'환경과 지속가능성', '디지털 업무 환경', '직장 내 안전과 보건', '노동법, 집단행동 관련 법' 등에 대해 교육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 협력기관들이 협의하여 모든 직업훈련에서 일-학습병행 훈련(dual training)을 할 때 지속가능성 관련 학습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제를 2021년 8월 1일부터 의무화함

52) Curriculum Framework,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294-296

□ 독일 ESG 교육 시사점

○ 2017년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중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교육기관, 청소년·청년(16-25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 및 이행과정 모니터링 등에 참여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연방정부 교육부, 주정부 교육부 협력체계 뿐만 아니라 주정부 교육장관 컨퍼런스, ESD 워킹그룹, 학교별 담당관 지정, 주정부 기관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지속가능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프레임워크(Curriculum Framework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만들어 교육기관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을 경제, 사회, 환경, 정치를 총 망라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교육목표, 참고자료, 교육방법 등) 예시를 상세하게 제시함

Ⅵ. ESG교육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1. 전문가 및 교사 의견 수렴 진행 현황

□ 중간보고서 내용에 기반하여 ESG 및 교육 관련 전문가와 학교현장에서 시민교육 등 가치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FGI 및 서면 자문의견을 수렴함.

□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는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사전 질문지를 보내고 이메일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함.

○ 이메일을 통한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가적 의견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음.

□ 교사 FGI 및 추가적 자문의견 수렴

○ 교사들은 시민교육 등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가치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4인을 선정, 2022년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가량 도봉구 소재 공감 카페에서 FGI를 진행함.

○ FGI 내용에 바탕하여 추가적인 질문지를 송부, 보충적인 자문 의견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령함.

□ FGI 및 자문의견에 참여한 전문가와 교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인 연구 관행에 따라 실명을 생략하고 알파벳으로 표기함.

구분	본문 표기	소속	직책	비고
전문가 자문	G	점프	대표	교육소셜벤처
	F	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팀장	
	E	한양대	교수	
교사 자문	A		교사	
	B		교사	
	C		교사	
	D		교사	

2. 전문가 및 교사 의견 수렴 질문지

□ 질문지 내용 개요

○ 의견 수렴의 목적

- ESG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재규정

- ESG 교육 방향을 위한 ESG 교육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도출

- 그에 맞는 해결책 제시

- ESG 교육 관련 커리큘럼 개발 방향의 필요한 요소 검토

○ 선행연구 고찰

- ESG의 의미

-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의 재규정

-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과 ESG의 연계성

- 외국의 ESG 교육 사례

○ 자문 의견

- ESG 교육 관련 커리큘럼 개발 방향

- ESG 반영 범교과 학습 주제 재편 방안

- ESG 교육 원칙

- 환경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 방향

- 사회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 방향

- 참여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 방향

- ESG 간 우선 순위

- ESG 교육 운영 실천 사례 소개

- 기타 의견

ESG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연구
교사 FGI 및 전문가 자문 1차 질문지

안녕하세요?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본 질문지는 ESG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ESG 교육 방향을 위한 ESG 교육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를 위해 ESG의 의미,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의 재규정,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과 ESG의 연계성, 외국의 ESG 교육 사례를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본 전문가그룹 심층 조사(FGI)는 ESG 교육 관련 커리큘럼 개발 방향의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이를 위해 1) ESG 교육 관련 커리큘럼 개발 방향, 2) ESG 반영 범교과 학습 주제 재편 방안, 3) ESG 교육 원칙, 4) 환경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 방향, 5) 사회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 방향, 6) 참여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 방향, 7) ESG 간 우선 순위, 8) ESG 교육 운영 실천 사례 소개, 9) 기타 의견으로 질문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ESG 교육 관련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약 1~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임연구자 : 안지훈 교수 드림
연락처 : 권영태 수석연구원(010-4176-2717)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 ESG교육 관련 커리큘럼 개발 방향
- 정규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 반영해야 한다
- 범교과 학습 과정으로 반영해야 한다

○ ESG 반영 범교과 학습 주제 재편 방안

○ ESG 교육 원칙
- 지식 교육 위주
- 실천 활동 위주
- 정서(지능) 함양 위주 : 환경감수성, 사회감수성, 참여(지배구조)감수성

○ 환경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 방향
- 내용적 방향
- 교육 실천 프로그램 아이디어
-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

○ 사회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 방향
- 내용적 방향
- 교육 실천 프로그램 아이디어
-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

○ 참여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 방향
- 내용적 방향
- 교육 실천 프로그램 아이디어
-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

○ ESG 간 우선 순위

○ ESG교육 기 실천 사례 소개

○ 기타 의견

ESG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연구
교사 FGI 2차 질문지

안녕하세요?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본 질문지는 ESG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ESG 교육 방향을 위한 ESG 교육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FGI를 통해 제출하신 의견에 기초하여 추가적으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범교과 학습주제의 재편 방향
2) 창의체험활동에서 ESG 교육 구현 방향
3) 학교에서 ESG교육을 실행하는 데서 필요한 교사에 대한 지원
4) 학교에서 ESG교육을 실행하는 데서 대상 학생의 범위
5) ESG 감수성 증진 교육의 의미와 방법
6) 기타 의견으로 질문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ESG 교육 관련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약 1~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임연구자 : 안지훈 교수 드림
연락처 : 권영태 수석연구원(010-4176-2717)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1. 범교과 학습주제를 ESG 기준으로 맞춰 재편한다면 어떻게 구성해야겠는지요?

2009교육과정			2015교육과정	연구소 안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독도 교육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2. 창의체험활동-자율활동에서 ESG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지요?
   - 창의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에서 ESG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지요?
   - 창의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에서 ESG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지요?
   - 창의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에서 ESG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지요?
   - 창의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서 ESG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지요?

3. 학교에서 ESG교육을 실행하는 데서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 외부 전문강사의 파견 또는 외부 전문가 위탁 프로그램 운영
   - 자료 제공을 통한 교사의 자율적 선택적 활용
   - 교사 연수
   - 기타

4. 학교에서 ESG교육을 실행하는 데서 대상 학생의 범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 전교생
   - 학생회 임원
   - 동아리, 청소년단체
   - 희망자

5. ESG 감수성 증진 교육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 감수성
   - 사회 감수성
   - 참여 감수성

6. 기타 학교에서 ESG교육을 실행하는 데서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Ⅶ. ESG 관련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방향

1. 학교교육에서 ESG교육의 총적인 방향성

1) 내용적 방향성 : 가치교육의 ESG 관점의 범주 재편

□ ESG를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경우 초중고 공교육에서 ESG교육은 가치교육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됨.

○ 일각에서는 ESG의 일시적 유행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하나 개념 자체는 바뀔 수 있을지라도 우리 사회의 가치적 지향으로서 ESG 각각의 가치적 지향은 지속될 것이며,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단순히 어떤 수단이든 이윤만 달성하면 된다는 과거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조직들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특히 기업에서 시작된 투자 시 돈을 잘 버는지 여부 곧, 재무적인 측면만의 고려가 아니라 환경을 감안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느냐 하는 점들을 고려하는 관점은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가치적 지향으로 바람직하며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회적가치교육, 기타 제반 가치 교육을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으로 포괄한 후 이를 사회운영원리로서의 ESG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치교육으로서 ESG교육을 자리매김하고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에 포괄되는 내용들을 ESG교육의 범주에 맞추어 재범주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교육에서 ESG교육은 기업 현장에서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쓰이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사회운영원리로서의 넓은 의미의 ESG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가치교육으로서 ESG 교육을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역 구분에 따라 환경 교육, 사회 교육, 참여 교육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전문가 G :

ESG가 한때 우리가 또 지나가는 유행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지만 기업계에서 좀 시작된 어떤 투자에서 그러니까 재무적인 측면 그러니까 회계 돈을 잘 버느냐 이거 말고도 환경을 감안하느냐, 기업이 사회를 생각을 하느냐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느냐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글쎄요 앞으로 개념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방향에서는 갈 것 같거든요.

계속 어떤 기업의 과거에는 환경오염을 공해를 일으키면서도 돈만 벌면 투자자들은 이윤을 얻어가니까 됐던 그 몇십 년 전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뭔가 환경을 오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오히려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를 했다가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투자 실패 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 그러니까 블랙록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부터 해서 본격화돼서 뭔가 투자금을 잘 회수하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도 환경과 사회와 어떤 지배 구조가 제대로 된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이 앞으로 ESG라는 말은 안 쓸 수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또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2) 영역적 방향성 : 정서지능과 연계된 ESG 감수성 교육을 통한 사회 운영 원리의 습득

□ 학교교육에서 ESG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천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ESG와 관련하여 지식 위주가 아니라 관심 제고 및 실천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원칙으로 하는 교육은 ESG 감수성 증진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치적 지향과 관련하여 '○○감수성'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음.

○ 특히 '환경감수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발견할 수 있음.

○ 'ESG 감수성'이라는 표현도 현업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사용되고 있음.

□ 언론이나 현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제외하더라도 학계에서 논문화된 내용만 들더라도 상당히 많은 용례를 발견할 수 있음.

□ ESG교육을 환경 교육, 사회 교육, 참여 교육으로 재구성할 때 각각의 분야의 핵심적인 교육 원칙은 곧, 환경 감수성 교육, 사회 감수성 교육, 민주 감수성 교육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 환경 감수성 교육은 이미 기존에 학계와 현업에서 사용중인 환경 감수성 교육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함.

- 환경 감수성 교육은 환경교육, 생태교육, 녹색교육 등의 유사 명칭도 모두 포괄할 수 있음.

○ 사회 감수성 교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 공동체성 증진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음.

- 특히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의 상당 부분과 UN 차원의 SDGs을 사회 감수성의 내용으로 포괄할 수 있음.

○ ESG 중 G 곧, 지배구조는 사회운영원리로서 ESG를 상정할 때는 참여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지배구조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등 좁은 의미의 ESG 중 G를 담아내는 표현이기 때문임.

- 좁은 의미의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의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ESG 감수성 교육은 정서지능의 증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업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ESG 감수성 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할 만한 개념으로 '공헌역량'이 있음.

- 아직 학계의 논의가 없어 향후 연구가 필요함.

○ 정서지능과 ESG 교육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교사 D :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현재 학교에서 일반적인 정의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고요.
환경 감수성, 인권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감수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전혀 연구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이미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감수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E :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체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3) 교과적 방향성 :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재편을 통한 ESG교육의 실행

□ 사회운영원리로서의 넓은 의미의 ESG 교육은 정규교과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시민교육도 정규교과에 전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ESG교육을 전면적인 정규교과과정 재편의 잣대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임.

□ ESG교육의 학교교육에의 커리큘럼 반영 방향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은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재편을 통한 ESG교육의 실행이라고 할 것임.

□ 추가적으로 기타 진로교육, 학생회 임원 연수 등의 ESG교육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4) 학교급별 방향성 : 중학교 중심의 ESG교육이 바람직

□ 학교급별로 구분하는 경우 ESG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곳은 중학교로 판단됨.

○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ESG교육이 가능할 것임.

- 중학교 1학년 시기를 활용한 자유학기제의 경우 제도의 취지도 ESG교육을 비롯한 가치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적절한 계기가 될 것임.

□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 부담 때문에 ESG교육은 물론 대부분의 가치교육이 쉽지 않은 형편이며, 시민교육을 비롯한 가치교육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생회 임원 등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특수한 계기의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ESG 교육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교사 A :

ESG 교육을 고등학교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입시 준비가 중심이 되고 기존의 교과를 소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거는 해당 교과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ESG 교육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기존에 지금은 많은 범교과 학습 주제나 이런 것들도 잘 제대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이제 원래 자유학기가 3학년에 예정돼 있다가 1학년으로 내려간 게 입학한 초기에 입시에 부담이 덜할 때 뭔가 입시와 상관없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성장시키는 교육을 하자는 방향에서 준비가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중학교는 1학년 때 이제 자유학기제를 이용을 하면 ESG교육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일부 어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또 희망하는 학생들을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회 임원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하는 기회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별도의 특별한 교육을 하는 계기가 있을 때 그다음에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 활동, 학급 회의 뭔가 이런 활동들이 참여의 과정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사회 감수성과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조금 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수, 수련회 같은 경우 자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 E :

그러면은 이거를 초등 수준에서 할 건지 중학교 수준에서 할 건지 중학교는 자유학기제가 있거든요.

자유학기제라고도 하는 학교도 있고 학년제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2015년 교육과정을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기 고대에 사실 요 자유학기제를 만들 때는 학생들이 진로 교육이 안 되니까 중3 2학기 되니까 맨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학부형들이 불안하죠. 이때 다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학원을 그래서 결국은 중3으로 교육과정 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중1로 내려오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학기제로 그래서 전혀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 여기다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주 교과에서 이걸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계속 범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중학교에서 쓰는 거라서 이거를 지금 이거 가져오신 거는 중학교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안전 건강 교육인데 이것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할지 중학교 수준으로 할지 중학교에서도 범교과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은 농어촌으로 할지 아니면 아까처럼 정규 교과가 아니라 뭐지 창의적 체험으로 이거를 좀 연구소 안에서 범위를 작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그래서 중학교 창체가 사실 이거 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니까 중학교 창체를 이렇게 조금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중학교를 가지고 하나 연구소에서 포맷을 만들고 나머지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안으로 만드시는 거죠.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입시라는 트랙 때문에 허들이 너무 높아서 안 되니까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진로 교육 방은 요즘 진로 교육이 있잖아요. 진로 교육 걔네 하니까 진로가 제일 관심사거든요. 다른 거 다 관심없어요.

어떤 학교는 경제 금융을 또 안 배우는 학교도 있거든요.

독도 교육 같은 경우는 교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고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도심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 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환경교육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ESG 교육은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초등학생들의 경우 아직 ESG 각각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교사 A :

초등학교는 이미 사실 좀 ESG 교육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은 쓰지 않았지만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런 교육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어떤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또 초등학생들의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는 약간의 어떤 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ESG 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의 교과에 이미 많은 내용들에서 사실은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다른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어떤 편성을 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검토에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 E :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서 이게 ESG라는 용어만 사실 ESG를 실천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화분같은 거 키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ESG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지 종이팩 우유 먹은 종이팩을 이렇게 하는 것도 분리하는 거 말리는 이런 것도 일종에 다 ESG 교육으로 녹여져 있었기 때문에 활동은 또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 다 너무 커가지고 수준을 이렇게 줄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초등 수준은 아예 전체 교과가 다 교사들이 다 범교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교장의 의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2. 가치교육의 ESG 관점의 범주 재편

1)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의 ESG 범주로의 재편 방향

□ ESG 교육의 세 범주 : 환경 교육, 사회 교육, 참여 교육

1-1) 총론적 방향

□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과 사회적 가치, SDGs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 = 가치교육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 = 정치교육	사회적 가치(12+1) 교육	SDGs 교육

○ SDGs의 경우 애초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환경이었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비록 제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환경의 각종 요소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넓은 편임.

○ 사회적 가치 교육은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의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제반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 특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 공동체성 증진 등과 관련된 이슈들임.

□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과 사회적 가치, SDGs의 세부 내용의 의의와 범주를 다시 설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시민교육의 3가지 가치	SDGs	내용적 범주	12+1 (넓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산업화와 경제발전)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교육	경제성장	
	경제성장, 일자리		노동권, 근로조건 일자리
정치적 가치 (민주화와 근대국가 건설)	성평등 평등	인권	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사회적 약자
		통일 평화(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삶의 질)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소비 및 생산 양식	공동체 평화(넓은 의미)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생산과 유통 등)
	도시와 주거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지역경제 공헌
	건강	건강	안전 보건
	물 에너지 기후변화 바다 육상 환경		환경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실현방법	

□ 이를 ESG의 관점을 잣대로 범주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적 가치(12+1), SDGs 등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에 포괄되는 영역 중 일부 범주들은 엄밀하게 어느 한 분야에 전적으로 속한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환경 영역의 경우 비교적 포괄할 수 있는 세부 내용과 범위가 뚜렷하므로 환경과 생태. 녹색, 그린 등 관련 유사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은 환경 교육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 SDGs의 내용 중 경제적 가치(산업화와 경제발전), 정치적 가치(민주화와 근대국가 건설)에 해당하는 내용은 한국과 같은 경제와 정치 수준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된 곳에는 우선적인 비중이 덜하다고 할 수 있음.

○ UN의 SDGs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산업화와 경제발전), 정치적 가치(민주화와 근대국가 건설)에 해당하는 내용의 국가별 발전의 비동시성으로 인하여 주요 항목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음.

○ 물론 그렇다고 하여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전혀 필요치 않다거나 교육의 우선순위에서 비중을 낮추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예컨대 노동권, 근로조건, 일자리의 경우 후진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와 더 밀접하여 SDGs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성장과 일자리 해결의 영역으로 포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노동권, 근로조건, 일자리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더 폭넓은 차원의 인권 등 정치적 가치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한 엄밀한 논의는 정치철학이나 정책학 차원에서 규명해야 할 문제로 본 보고서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잠정적으로 이상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사회 교육의 영역으로 크게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회 교육'이라는 표현은 이미 정규 교과 중 사회과가 있기에 중복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ESG 교육은 후술하듯이 결국 ESG 감수성 교육을 의미하기에 여기에서 사회 교육도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거나 공동체성의 증진 등의 의미를 담은 뜻으로 바라보아야 함.

1-2)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의 ESG 범주로의 재편

□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에서 환경은 명백히 ESG 중 E로 범주를 재편해야 함.

□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는 명백

히 ESG 중 G로 범주를 재편해야 함.

□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에서 명백히 ESG 중 S로 범주를 재편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

노동권, 근로조건	S
일자리	S
인권	S
사회적 약자	S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S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생산과 유통 등)	S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S
지역경제 공헌	S

○ 노동권, 근로조건과 일자리의 경우 SDGs에서는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 적용 시 경제성장의 내용적 범주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겠으나, 한국 같은 경제 선진국에서는 인권의 확장 차원에서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함

○ 인권 또한 정치적 가치로서 민주화와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범주로 포괄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이 진행된 우리 사회의 경우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에서 안전과 보건의 경우 세월호 사태와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로 인한 중요성이 부각된 최신 이슈로 사회적 가치에 들어가 있으나 E, S, G 중 어느 한 영역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사회적 약자의 경우 안전, 보건 등 건강권의 보장이 미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넓은 의미로 확장하여 분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상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을 ESG 기준에 따라 범주를 재편하면 다음과 같음.

시민교육의 3가지 가치	내용적 범주	12+1 (넓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ESG 범주 재편
경제적 가치 (산업화와 경제발전)	경제성장		
		노동권, 근로조건 **일자리**	S S
정치적 가치 (민주화와 근대국가 건설)	인권	**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사회적 약자**	S G S
	통일 평화(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삶의 질)	공동체 평화(넓은 의미)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생산과 유통 등)**	S S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지역경제 공헌**	S S
	건강	**안전** **보건**	(S) (S)
		환경	E
	실현방법		

1-3) SDGs의 ESG 범주로의 재편

□ SDGs의 요소 중 명백히 E의 요소로 범주를 재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물	에너지	기후변화	바다	육상 환경
E	E	E	E	E

○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은 환경 하나의 범주로 자리하고 있음.

□ SDGs의 요소 중 제도와 글로벌 파트너십은 명백히 E의 요소로 범주를 재편할 수 있음.

○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에서는 실현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SDGs의 요소 중 명백히 S의 요소로 범주를 재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성평등, 평등	S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S
소비 및 생산 양식	S
도시와 주거지	S

○ SDGs의 요소 중 건강은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에 포함된 안전과 보건과 같은 이유로 넓은 의미에서 S로 범주를 재편할 수 있음.

○ 같은 논리로 추가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S로 범주를 재편할 수 있는 SDGs의 요소는 다음과 같음.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교육
(S)	(S)	(S)

- ( )는 E, S, G 중 어느 한 영역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나 넓은 의미로 확장하여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설정함.

□ 상기와 같은 기준에 따라 SDGs를 ESG 기준에 따라 범주를 재편하면 다음과 같음.

시민교육의 3가지 가치	내용적 범주	SDGs	
경제적 가치 (산업화와 경제발전)	경제성장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교육	(S) (S) (S)
		경제성장, 일자리	
정치적 가치 (민주화와 근대국가 건설)	인권	성평등 평등	S
	통일 평화(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삶의 질)	공동체 평화(넓은 의미)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소비 및 생산 양식	S S
		도시와 주거지	S
	건강	건강	(S)
		물 에너지 기후변화 바다 육상 환경	E E E E E
	실현방법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G G

1-4) 소결 :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의 ESG 범주로의 재편

□ 상기의 기준에 따라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 곧,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 12+1과 SDGs를 모두 E, S, G 각각의 범주로 재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ESG 범주	중범주	소범주	시민교육의 3가지 가치 (=넓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S)	경제성장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교육	경제적 가치 (산업화와 경제발전)
S		노동권, 근로조건 일자리	
S	인권	성평등 평등 사회적 약자	정치적 가치 (민주화와 근대국가 건설)
S	공동체 평화(넓은 의미)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소비 및 생산 양식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생산과 유통 등)	좁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삶의 질)
S		도시와 주거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지역경제 공헌	
(S)	건강 환경	안전 보건	
E		물 에너지 기후변화 바다 육상 환경	
G	실현방법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을 ESG의 관점에서 범주를 재편하면 압도적으로 S의 요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E, S, G 3개 영역 중 S에 대한 교육의 비중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

2)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의 ESG교육 반영 방향

□ ESG 교육의 중장기적 방향성은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을 E, S, G 각각의 관점에 따라 재편해야겠으나 당면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제출된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의 내용을 ESG 관점에 따라 범주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1월 '202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를 발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ESG 교육 전반의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계획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

2-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념의 회복

○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교육혁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사회·도덕과 등 민주시민 관련 교과에서는 교육과정 내 목표, 교과역량 및 성취기준 등을 통해 민주시민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분과학문 중심의 교과 운영의 한계,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 교육방식, 태도·가치 등 진단에 적절한 성취기준(내용요소) 부재 등으로 실천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생활방식을 체화하는데 한계 노정

○ 국가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별도의 선택과목은 없고,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개설·운영 가능

- '민주시민교육'의 선택과목 인정 여부와 개설 정도가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여

건에 따라 상이하여 지역별 편차 발생

○ 민주시민교육은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실시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음

- 타 범교과 학습주제 및 법정 의무교육 시수 등으로 시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운영 모델 부족

○ 교수학습방법과 평가 상 문제점

- 지식 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수학습으로는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와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달성 어려움

- 또한 수업은 협력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평가는 경쟁적인 방식을 고수하여 교수학습과 평가를 분리시킬 경우 협력수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음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수업 등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 민주적인 학교 환경 조성 미흡

○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경험 부족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 민주시민의 역량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

□ 민주시민교육의 구성요소(예시)

○ (주요 내용)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협력과 갈등, 평등과 다양성, 공정, 정의, 법의 지배, 인권, 자유와 질서, 개인과 사회, 권리와 책임 등

○ (가치와 태도)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신념, 분쟁해결 의지, 협력과 나눔의 정신, 관용, 도덕적 기준에 따른 판단과 행동, 인권·양성평등·환경 등에 대한 관심, 예의와 법 존중, 자원봉사 등

○ (기술과 능력) 논리적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 등

○ (지식과 이해) 민주 사회의 성격·기능·변천, 다양성·불일치·사회적 갈등의 양태,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도덕적·정치적 문제, 정치제도와 법, 경제, 인권헌장, 지속가능개발과 환경문제 등

□ 비전 및 목표

○ 비전 :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

○ 목표 : 민주적 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

□ 추진과제

○ 학교민주시민교육 강화

1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 마련
2 안정적·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3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4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 개선

○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1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2 예비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3 자율적 교원 학습공동체와 현장지원단 지원
4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1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지원
2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 공간 민주주의 지원
3 학교 구성원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지원
4 (가칭)민주시민학교 운영

○ 학생자치 활성화

1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2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확대
3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 확대
4 학생자치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1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
2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2-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ESG 기준 관점의 평가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평가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에는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과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역량에 대해 상당히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구성요소 또한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는 현황 및 문제점에서 명기하였듯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민주시민교육 목표, 원칙, 구성요소 등은 향후 정책연구 등을 거쳐 확정 예정이라고 부기한 바 있으나, 후속 작업이 진척되지 않았으며,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 ESG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참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에 명시된 추진과제 중에서 그야말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임.

○ 추진과제로 제시한 ‘학교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은 ESG교육의 진작을 위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로 평가할 수 있음.

○ 추진과제 중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부분은 모두 참여 교육의 일환으로 ESG교육에 내용 그대로 포괄해도 무방함.

〈표 6.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18) 중 G 영역으로의 수용〉

추진과제 대과제	추진과제 소과제	영역 구분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1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 마련 2 안정적·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3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4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1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2 예비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3 자율적 교원 학습공동체와 현장지원단 지원 4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1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지원 2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 공간 민주주의 지원 3 학교 구성원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지원 4 (가칭)민주시민학교 운영	G
학생자치 활성화	1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2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확대 3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 확대 4 학생자치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G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1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 2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교사 C :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추진 과제 목표는 민주시민 역량 강화인데 거기 보면 추진과제로 크게 5가지가 나와요 그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가지가 다 보면 참여 감수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이 학교 민주시민 교육 강화 학교 교육부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여기 그다음에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이것도 어떤 학교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나오는 큰 추진 과제의 제목들이 보면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그렇게 돼있고요. 다 어떤 참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고 된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 지원

두 번째,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 공간 민주주의 지원

세 번째, 학교 구성원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 지원

네 번째, 이제 민주시민 학교를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학생들을 결국 참여를 시키는 방안들 또 참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민주적 학교 문화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ESG 관점에서 본다면 참여 감수성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학생 자치 활성화 부분입니다.

학생 자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거 그다음에 학교 운영에 그러니까 교사와 지금 어떤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죠. 거기에 그런 차원에서도 아예 학생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학습 활동 참여할 때도 있고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를 학생들이 따라오기만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학습 활동에도 직접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거고 학생 자치활동의 인식 개선하고 우수 사례가 있으면 이제 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참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학교와 학교 바깥에까지 어떤 지역사회까지 뭔가 전문가와 일반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해서 뭔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결국 참여를 다 활성화할 수 있겠다고 하는 내용인 거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내용도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의 많은 내용들이 보면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되면 사실은 그대로 우리가 ESG 교육에서는 참여 부분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사회 일반 운영 원리로 할 때는 이제 참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계획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대한 것들만 잘 되더라도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3. ESG 감수성 교육

1) ESG 감수성 교육의 의미

1-1) ESG 감수성 교육의 역량 요소

□ ESG와 관련하여 지식 위주가 아니라 관심 제고 및 실천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원칙이 중요함.

○ 정부에서 제시한 시민교육의 원칙에서도 단순히 주제별 교육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포괄적인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 교육이 지식 습득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활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교육의 원칙과 관련하여 일종의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입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육 현실 때문에 제반 가치적 지향이 실천적인 지평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ESG와 관련하여 지식 위주가 아니라 관심 제고 및 실천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원칙은 ESG 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 ESG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실천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은 ESG교육을 통해 배양해야 할 역량 요소로 관심역량, 공감역량, 행동역량으로 나누어 정식화할 수 있음.

○ 관심역량, 공감역량, 행동역량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ESG에 대한 관심역량은 ESG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하는 역량을 의미함.

- ESG에 대한 공감역량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회문제인 ESG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정도로 문제성을 인식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가 하는 역량을 의미함.

- ESG에 대한 행동역량은 ESG 문제에 대해 인지하는 것과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다른데, 행동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역량을 의미함.

전문가 G :

○ ESG 교육 원칙

사례 중심으로 토론(케이스스터비 방식)식 수업을 통해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수업환경 조성

○ 참여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 방향

내용적 방향 : 실제 사례(파타고니아, 몬드라곤협동조합, B콥 등)를 중심으로 학생이 스스로 조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 교육 실천 프로그램 아이디어 : 영국 비영리 Artis의 경우 퍼포밍아트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학교 선생님과 함께 커리큘럼을 개발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춤, 노래, 게임, 만들기 등을 통해 배우는 수업을 학기 단위로 진행

교사 A :

환경 감수성(당대 아이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인 듯, 많이 강조하고 학교 교육에서 환경 부분은 한 학년 정도에 필수교과로 넣어 환경 감수성을 키울 필요가 있음 / 특히 실질적이고,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듯

사회 감수성(중학교 1학년 자유 학기 때 공존, 공동체 의식, 세계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한 학기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듯)

참여 감수성(참여 감수성을 키우기란... 정말 어려운 듯 / 국어, 사회문화, 정치, 경제 교과에서 글쓰기, 토론, 논술, 마인드맵 등의 활동(수행평가)을 할 수 있도록 주제를 많이 던져주시면 좋을듯요)

교사 D :

같은 의견입니다.

교사 C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게임이나 퀴즈 등의 체험 활동 위주의 접근 방법, 관련 싸이트의 댓글 달기 참여 등의 학교 밖 연계 활동 등으로 감수성 향상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 ESG 감수성 교육의 정서지능과의 연계 가능성

□ ESG 감수성 교육은 정서지능의 증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식 위주가 아니라 관심 제고 및 실천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계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온 인지지능에 대한 중시보다 정서지능에 대한 강조와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EI)이라는 개념은 1990년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피터 샐로비와 뉴햄프셔대학교 존 메이어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EBS, 2012) 학계에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

○ 정서지능을 강조하는 이들은 삶의 질적인 측면으로서 정서 영역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생에서 느끼는 행복이며, 아울러 공동체적인 감정을 나누며 사는 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문용린, 2011)

□ ESG 감수성 교육의 정서지능 공헌역량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함.

1-3) ESG 감수성 교육의 목표로서의 공헌역량 개념의 정립 필요성

□ 아직 학계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교육 현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교육의 목표 중 공헌역량 개념은 ESG 감수성 교육과 맥이 닿을 수 있음.

○ 예컨대, 한양여자대학교의 경우 혁신인재 양성 대학을 표방하면서 6대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음.

- 창의역량
- 융합역량
- 도전역량
- 성장역량
- 공헌역량
- 소통역량

○ 공헌역량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이외의 사회의 다른 조직으로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목표 역량으로 설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ESG 감수성 교육의 공헌역량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함.

2) ESG 감수성 교육 개념의 적절성 검토

2-1) '○○감수성 교육' 표현 사용례

□ 교육에서 가치적 지향과 관련하여 '○○감수성'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음.

○ 언론이나 현업에서는 가치적 지향의 증진을 위해 감수성을 키우자는 식의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언론이나 현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제외하더라도 학계에서 논문화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용례를 발견할 수 있음.

○ 특히 '환경감수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발견할 수 있음.

- 김현주, "장소감과 환경 교육-환경 감수성으로서의 장소감의 환경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Vol.6 No.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 나춘기,정미라, "유아교사의 교직경력과 환경친화적 교육태도의 관계에서 환경감수성과 환경교육 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Vol.20 No.1,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21.

- 장미연, "3-5세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생태적 감수성' 관련 교육활동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Vol.16 No.1,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7.

- 유미호, "교육으로 만나는 목회 : 생명을 살리는 환경교육 ; 생태감수성을 일깨우는 자연체험", 교육교회 Vol.379,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9.

- 우석규·남상준, “환경감수성 함양을 위한 특활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16 No.4,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8.

- 정미라, 나춘기, “유아교사의 환경교육 직무연수와 환경친화적 교육태도의 관계에서 환경감수성과 환경태도의 매개 및 조절 효과”, 環境 敎育 Vol.33 No.4, 한국환경교육학회, 2020.

○ 젠더 감수성 / 성인지 감수성 사용례

- 박성희, “예비교사용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1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 김경령, 서은희, “대학생을 위한 젠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 성차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 김세림, “무화과의 소수자적 관심을 활용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Vol.15 No.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21.

○ 다문화 감수성 사용례

- 서재복,장효순, “놀이와 독서를 활용한 초등학생 다문화감수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교육종합연구 Vol.16 No.2, 교육종합연구원, 2018.

- 임선일 외, “초·중등학교 다문화감수성교육의 한계와 다양화 방안 모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8 No.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 평화/통일 감수성 사용례

- 이윤희, “관계적 역량 강화를 위한 평화감수성 교육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Vol.55,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8.

- 박형빈, “나바에츠(D. Narvaez)의 윤리 감수성(Ethical Sensitivity)에 기초한 통일감수성 교육 방안”, 통일교육연구 Vol.18 No.1, 한국통일교육학회, 2021.

○ 인권 감수성 사용례

- 김수연, 김석주,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0.

- 서혜정, 정하나, “아동 권리 감수성 교육을 통한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幼兒 敎育學論集 Vol.24 No.3,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0.

○ 기타 사용례

- 김화경, “교양교육에서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 교양교육연구 Vol.8 No.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장현정,우신영,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Vol.25 No.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 천수연,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문화교육 현황과 문화간 감수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2-2) 감수성의 의미[53]

□ ‘감수성’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의미함.

○ 감수성의 사전적 의미는 자극이나 타인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감각의 예민성이라고도 함.[54]

□ 학문 영역마다 감수성의 의미는 다소 다르게 사용되기도 함.

○ 문학에서 감수성은 감각, 사고 및 감정에 있어서 경험에 반응하는 작가의 특징적 능력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함.

53) 이하 감수성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은 네이버 사전, 지식백과 등을 참조함.
54) 나무위키.

○ 심리학에서는 자극과 관련하여 설명할 경우 유기체가 내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의 강도 및 변화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성을 의미함

□ 감수성 훈련의 개념

○ 심리학에서는 '감수성 훈련'이라는 개념을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감수성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화되도록 하며, 집단과 조직 속에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협동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소집단훈련이라는 뜻으로 사용함.

○ 행정학에서는 '감수성 훈련'이라는 개념을 사전에 과제나 사회자를 정해 주지 않고 이질적이거나 동질적인 피훈련자끼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하는 훈련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함.

□ 감수성의 의미에 대해 학문 영역마다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고 통일된 정의가 없으므로 ESG 감수성 교육을 지식 위주가 아니라 관심 제고 및 실천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본 보고서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임.

○ ESG교육을 통해 배양해야 할 역량 요소로 관심역량, 공감역량, 행동역량으로 나누어 정식화할 수 있으며 이는 ESG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실천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은 역량 요소별로 나누어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임.

2-3) 감수성교육의 의미 확장 가능성

□ 시민교육 정의의 ESG 감수성 교육에의 원용

○ 시민교육을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포괄적인 교육으로 정의하는 것을 ESG 감수성 교육에 원용할 수 있음.

- 환경 감수성을 증진한다는 말은 환경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실천으로 확장하는 포괄적인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됨.

- 사회 감수성을 증진한다는 말은 사회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실천으로

확장하는 포괄적인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됨.

- 참여 감수성을 증진한다는 말은 참여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실천으로 확장하는 포괄적인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됨.

○ 민주시민 교육을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정의하는 것도 원용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정의를 원용하여 ESG교육을 정의한다면 환경과 사회와 참여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정립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한 마디로 ESG 감수성 증진 교육으로 명명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임.

-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핵심 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 사회 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

교사 C :

교육부에서 내놓은 2018년도예요.

그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라는 자료에 보면 추진 과제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여에 대한 그러니까 ESG를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지배구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배구조는 이제 기업 대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할 때 지배구조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운영 원리적인 차원에서 본

다면 참여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에도 참여 감수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그냥 우리는 따라만 가는 것은 수동적인 역할은 시민의 역할이 아니라는 관점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하는 거 그렇죠 관심을 갖고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여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권 감수성에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참여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이 뭔가 내가 부당한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회의 어떤 그 지배적인 규범, 룰을 결정하는데 내 목소리를 더한다 또 내가 직접 뭔가 거기에서 역할을 맡는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참여의 의미를 바라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참여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교사 D :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보면 뭔가 민주시민 교육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권, 평등, 평화, 환경,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주제가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이 말은 결국은 모든 내용이 다 민주시민교육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ESG 교육으로 재편하는 것도 같은 취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있으나 시민교육은 이러한 주제별 교육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포괄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쓰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쓰셨는지 정리는 꽤 잘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습득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사실 지금 이미 학교 교육이 지식 습득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닌 거는 다 공통된 뭐랄까 이미 일종의 합의된 내용이거든요.

입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식을 평가하는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한계점일 테고요.

교육이라는 지향하는 바가 어떤 지식 습득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포괄적인 교육이다.

이것이 이런 내용이 감수성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감수성을 증진한다, 환경 감수성을 증진한다, 사회의 감수성을 증진한다, 참여 감수성을 증진한다 이런 내용이 뭔가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와 참여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어떤 그런 실천으로 확장하는 포괄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기존에 애초에 그런 학계에서 이미 나온 감수성을 정의하는 이런 용어 정의가 없다면 이런 연구 프로젝트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감수성이라고 해 가지고 정의를 해주면 다른 연구에서도 앞으로 후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교육부 같은 교육청 같은 이런 실천하는 기관에서는 지침으로 삼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료에 교육부 자료에 계속 보면 정의를 잘 해놨어요. 민주시민 교육을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이렇게 돼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역량이 뭐냐 이렇게 돼 있는 데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핵심 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이렇게 돼 있고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사회 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 뭐 이런 말들 좋은 말들을 다 동원해서 자료를 만드신 분이 잘 써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감수성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모아본다면 환경과 사회와 참여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ESG 교육이다. 이렇게 하면 적절하겠죠.

그러면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단순히 지식 습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사회와 참여의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실천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교육을 감수성 교육 ESG 감수성 교육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ESG 감수성이고 다른 기존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지금 ESG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본질이 같다고 지금 보는 방향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ESG 감수성이라는 세부로 구성되는 것이 ESG가 3가지니까 환경 감수성, 사회 감수성, 지배 구조는 참여 감수성으로 바꿔서 하면 적절해 보여요.

전문가 F :

ESG는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트렌드 중에서 기업에 적용되는 단어로 발생한 것이며,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더욱 필요한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1)관심 (2)공감역량 (3)행동주의"임

-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더욱 필요한 것이 사회문제에 대한 (1)관심 (2)공감역량 (3)행동주의라고 하셨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사회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2)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3) 사회문제에 대해 인지하는 것과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다른데, 행동을 얼마나 하는가?

3) ESG 감수성 교육의 범주별 구성

□ ESG교육을 환경 교육, 사회 교육, 참여 교육으로 재구성할 때 각각의 분야의 핵심적인 교육 원칙은 곧, 환경 감수성 교육, 사회 감수성 교육, 참여 감수성 교육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3-1) 환경 영역의 환경 감수성으로의 재구조화

□ 환경 감수성 교육은 이미 기존에 학계와 현업에서 사용 중인 환경 감수성 교육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함.

○ 환경 감수성 교육은 환경교육, 생태교육, 녹색교육 등의 유사 명칭도 모두 포괄할 수 있음.

□ 환경감수성은 관심역량, 공감역량, 행동역량 중 무엇보다 환경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의미함.

○ 단순히 자연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거나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자연환경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존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공감적 정서를 의미하는 것임.

- 환경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자연환경을 느끼고 체험한 것을 통해 스스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설장할 수 있음.

- 환경 감수성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깨끗한 물과 환경에 노출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 환경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내용적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 쌓기

- 자연에서 심리적 체험하기

- 자연에 감정 이입하기

- 환경을 보호 실천하기

- 예술적 체험으로 환경 감수성 기르기 등

□ 환경 감수성 증진을 수행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음.

- 환경감수성 측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학보

- 학년/학급 등의 변화에 환경감수성을 융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문제

전문가 E :

환경감수성은 환경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자연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거나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자연환경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공감적 정서를 의미한다. 그래서 환경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자연환경을 느끼고 체험한 것을 통해 스스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설장할 수 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감수성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어릴때부터 자연스럽게 깨끗한 물과 환경에 노출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꽃나무, 식물의 이름을 관찰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내용적 방향으로는 :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 쌓기, 자연에서 심리적 체험하기, 자연에 감정 이입하기, 환경을 보호 실천하기, 예술적 체험으로 환경 감수성 기르기를 할 수 있다.

환경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아이디어로는 학생들의 환경 학습권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 사회와 경제, 세계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태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통합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학교 운영, 전문가가 찾아가는 생태전화 교실, 탄소배출제로 학교, 채식 급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청에서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환경감수성 증진을 수행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은 1) 환경감수성 측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학보, 2) 학년/학급 등의 변화에 환경감수성을 융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교사연수를 통해 환경감수성 증진 인식 제고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2) 사회 영역의 사회 감수성으로의 재구조화

□ 사회 감수성 교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 공동체성 증진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음.

○ 특히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의 상당 부분과 UN 차원의 SDGs를 사회 감수성의 내용으로 포괄할 수 있음.

○ ESG 교육의 사회 감수성 교육에서 사회의 의미는 사회과 교육에서 말하는 사회의 의미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 또는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과 유사한 외연과 내포를 가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 공동체성 증진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사회 감수성 교육으로 재정의할 때, 기존에 정립된 교육 중 가장 유사한 내용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이제 한국 사회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능력 즉,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신호와 상황을 식별하고 인식하고 공동체를 이해하고 공동체에 공헌하는 사회감수성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사회 감수성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정의적 영역의 목표

- 나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능력 신장

-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서 타문화의 가치를 내면화하거나 진실된 관점을 취하려는 신념과 태도를 견지하는 능력 신장

○ 인지적 영역의 목표

- 나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즉각적 가치판단을 중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차이 및 다양성에 대한 인식 능력 신장

-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민주주의 원리, 사회정의, 공정함과 동등함에 대한 이해

○ 행동적 영역의 목표

-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행동 능력 신장

- 차별적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차별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신장

□ 사회감수성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프로그램 내용 : 3개 영역, 9개 핵심역량

- 사회 감수성 수용성의 3개 영역(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서 각각 3개씩의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인식, 관용, 수용, 공감, 소통, 협력,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구성

□ 사회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주제 커리큘럼 개발(안) 개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학습자를 위한 사회감수성 진단검사지 개발의 어려움

- 범교과주제 선정의 어려움

- 시수/시간/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의 어려움

- 범교과주제선정 및 커리큘럼 개발에 학습자/교수자의 의견 반영 및 수용의 어려움

전문가 E :

1. 사회감수성 증진 커리큘럼의 개발 필요성

지난 10여 년간 한국 사회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규모로 빠르게 유입되었고, 이것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등의 증가로 이어졌다.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은 약 56,000(교육부, 2013)명 정도이고, 앞으로 이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점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다

양성을 다룰 필요가 증가하고, 사회적 자본을 찾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OECD 생애핵심역량, 2005).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능력 즉, 개인이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신호와 상황을 식별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회감수성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감수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사회감수성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으며, 사회감수성의 기본 원칙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감수성 증진 커리큘럼 개발의 목적 및 목표

□ 목적

- 사회감수성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민감성 강화
- 범교과학습 주제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감수성 증진 교육 지원
-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사회감수성 교육의 활성화

□ 목표

○ 정의적 영역의 목표

- 나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능력 신장
-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서 타문화의 가치를 내면화하거나 진실된 관점을 취하려는 신념과 태도를 견지하는 능력 신장

○ 인지적 영역의 목표

- 나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즉각적 가치판단을 중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차이 및 다양성에 대한 인식 능력 신장
-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민주주의 원리, 사회정의, 공정함과 동등함에 대한 이해

○ 행동적 영역의 목표

-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행동 능력 신장
- 차별적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차별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신장

3. 사회감수성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안)

□ 프로그램 내용 : 3개 영역, 9개 핵심역량

교육내용은 사회감수성수용성의 3개 영역(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서 각각 3개씩의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인식, 관용, 수용, 공감, 소통, 협력,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주제 커리큘럼 개발(안) 개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1) 학습자를 위한 사회감수성 진단감사지 개발의 어려움, 2) 범교과주제 선정의 어려움, 3) 시수/시간/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의 어려움 4) 범교과주제선정 및 커리큘럼 개발에 학습자/교수자의 의견 반영 및 수용의 어려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회감수성 증진 교육프로그램이 주는 효과성 연구, 진단도구개발을 통해 중장기적 계획을 통한 사회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주제 커리큘럼 교육을 활성화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3) 지배구조 영역의 참여 감수성으로의 재구조화

□ ESG 중 G 곧, 지배구조는 사회운영원리로서 ESG를 상정할 때는 참여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참여 감수성 교육으로 정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배구조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등 좁은 의미의 ESG 중 G를 담아내는 표현이기 때문임.

- 전통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높아지고 이는 민관 차원의 다양한 제도화로 이어짐.

- 좁은 의미의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의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배구조라는 개념의 좁은 사용례 및 ESG 교육의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참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직접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되는 기업계의 지배구조라는 개념에 참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임.

- 좁은 의미의 ESG에서 지배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강하나 ESG를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과 사회 운영 원리와 통합하여 바라보는 ESG 교육에서는 관련 주체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음.

-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 편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더라도 내용적인 면과 방법적인 면에서 교육 주체들의 최대한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참여의 가치는 특히 민주시민교육에서도 가장 중시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참여 감수성을 높인다는 것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지식 전달과 제반 실천 활동이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그냥 따라가기만 가는 것은 수동적인 역할은 시민의 역할이 아니라는 관점을 심어주는 넓은 의미의 관점임.

○ ESG교육의 참여 감수성 교육은 참여를 통해 부당한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룰을 결정하는데 스스로의 목소리를 더하고 그 과정에서 직접 적절한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도 포함함.

□ 참여 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 주제 커리큘럼 개발(안) 개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참여감수성 증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안정적인 수업시간/학습시간 확보의 어려움

- 적극적으로 참여/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진의 확보와 학교와 지역사회/학교관리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

전문가 E :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 : 참여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1) 참여감수성 증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안정적인 수업시간/학습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2) 범교과학습주제로 적극적으로 참여/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진의 확보와 학교와 지역사회/학교관리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 예상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교사학습단체/소그룹을 통해 다양한 교과, 다양한 학습주제에 ESG 참여감수성 증진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모임 지원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ESG교육을 위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재편

1)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

□ 7차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가 등장한 이후 범교과 학습 주제는 양적 측면에서 엄청난 팽창을 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제시됨.(강현석, 전호재, 2014)

○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범교과학습 주제의 교육에서 당초 의도한 목적에 맞게 실행되고 있지 않으며 더 큰 문제는 교사의 수업과 학습자의 학습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임.(강현석, 전호재, 2014)

□ 범교과 학습의 의미와 각 나라의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음. (조상연, 2020)

○ 범교과 학습의 의미

- 첫째, 기존 분과적 접근의 학교 교육의 한계를 범교과적 접근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

- 둘째, 다양한 교과 및 영역을 넘나들고 가로지르며 폭넓게 관련지어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 방법

- 셋째,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학생이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삶을 맥락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주제를 포괄하는 교육 내용

○ 각 나라의 범교과 학습의 접근 방식

- 첫째,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한 지침은 최소화하는 대신 단위 학교의 범교과 학습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 및 안내함.

- 둘째, 각 나라들은 범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각 나라 특유의 방식으로 지역 및 학교의 자율적 계획 및 실행을 우선적으로 강조함.

- 셋째,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

□ 범교과 학습의 구체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조상연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범교과 학습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조상연, 2020)

- 첫째,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가 곧 범교과 학습 주제가 되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둘째, 새로운 교육 내용이자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서 범교과 학습의 의의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범교과 학습 주제(교육 내용)와 교육 방법에 대한 단위학교 및 교사의 결정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넷째, 국가 수준에서 범교과 학습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계획 및 실행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함.

○ 박희경 외는 범교과 학습 관련 교육과정 문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박희경 외, 2014)

- 첫째, 교육과정 문서에 범교과 학습의 의미를 명료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범교과 학습의 의미에 적합하도록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정련하여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범교과 학습과 관련된 교육과정 문서 제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범교과 학습의 기존교과와의 관계

○ 학교 현장에서는 범교과 학습이 기존교과와 중복된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으나 정작 학계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음.

○ 박영주 외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대부분 도덕교과 내용에 부합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와 초등 도덕교과 내용의 연계 모델로서 도덕과 중심 연계 모델과 도덕과 매개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가 눈에 띄는 정도임. (박영주 외, 2020)

2) 기존의 범교과 학습 주제 현황과 ESG 관점의 재구조화

□ 2009, 2015교육과정 상의 범교과 학습 주제 현황을 ESG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수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음.

2009교육과정	2015교육과정	ESG관점의 재구분
진로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통일교육	
한국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E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청렴반부패교육		
물 보호 교육		E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E
양성평등교육		S
장애인이해교육		S
인권교육	인권교육	S
안전재해대비교육	안전건강교육	(S)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교육		S
여가활용교육		
호국보훈교육		
효도경로전통윤리교육	인성교육	
아동청소년보호교육		S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S
문화예술교육		
농업농촌이해교육		S
지적재산권교육		
미디어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교육		
논술교육		
한국문화사교육		
한자교육		
녹색교육		E
독도교육	독도교육	
	민주시민교육	G[55]
	경제금융교육	

55) 접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은 대부분 ESG의 관점에서는 G에 해당함.

○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학계의 선행연구를 감안하여 범교과를 재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안이 가능할 것임.

2009교육과정	2015교육과정	범교과 재구조화
진로교육	진로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통일교육	민족교육
한국정체성교육		민족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 정규교과
청렴반부패교육		법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양성평등교육		
장애인이해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	
안전재해대비교육	안전건강교육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교육		
여가활용교육		→ 정규교과
호국보훈교육		민족교육
효도경로전통윤리교육	인성교육	→ 정규교과
아동청소년보호교육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 정규교과
농업농촌이해교육		
지적재산권교육		법교육
미디어교육		→ 정규교과
의사소통토론중심교육		→ 정규교과
논술교육		→ 정규교과
한국문화사교육		민족교육
한자교육		→ 정규교과
녹색교육		
독도교육	독도교육	민족교육
	민주시민교육	
	경제금융교육	→ 정규교과

□ 상기의 기준에 따라 범교과 학습 주제를 ESG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한 편재는 다음과 같음.

범교과 재구조화		2009교육과정	2015교육과정
ESG교육	E	해양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녹색교육	
	S	양성평등교육	
		장애인이해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
		안전재해대비교육	안전건강교육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교육	
		아동청소년보호교육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농업농촌이해교육	
	G		민주시민교육
진로교육		진로교육	진로교육
세계교육		국제이해교육	
민족교육		독도교육	독도교육
		통일교육	통일교육
		한국정체성교육	
		호국보훈교육	
		한국문화사교육	
법교육		청렴반부패교육	
		지적재산권교육	
→ 정규교과			경제금융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여가활용교육	
		효도경로전통윤리교육	인성교육
		문화예술교육	
		미디어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교육	
		논술교육	
		한자교육	

교사 B :

범교과 학습 주제를 ESG 기준으로 맞춰서 재편 재구조화 재조직화한다고 하면 기존의 담당 분야에 있는 분들이 사실 좀 반발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이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E로 넣을 수가 있겠죠.

2015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렇게 이유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전 건강 교육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S교육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사실은 참여에 대한 거를 따로 좀 빼기는 쉽지는 않은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인성교육이라든가 진로 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ESG로 넣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경제 금융 교육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 뭔가 이제는 어떤 경제의 운영 원리, 기업의 어떤 내용, 금융에 대한 이런 것들에서 ESG의 관점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넣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전에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잡아보면 녹색 교육 또 농업 농촌 이해 교육, 지속 가능 발전교육, 물 보호 교육, 해양 교육 이런 부분들은 다 전반적으로 E로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 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육, 다문화 교육 이런 정도는 사회 감수성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교사 A :

친환경 교육 / 지구 환경교육 / 쓰레기(재활용)교육 / 자본(주의) 교육

기업윤리 교육 / 세계시민 교육 /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 경제. 금융 교육 / 커뮤니케이션교육

교사 D :

기존 과정에서 ESG교육만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 독자적인 교과서의 필요성 검토

□ 단계별 접근

○ 1단계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일환으로서 ESG 교과서의 독자적인 편찬을 진행한 후 중장기 2단계로 범교과 학습 주제의 ESG 관점으로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독자적인 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

○ 현실적으로 기존의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도 많을 것이고 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임.

- 따라서 1단계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ESG를 추가해서 기존의 교육과정에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와 병행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때 별도의 교과서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ESG 감수성 교육 교과서 편찬 방향

○ 중학교 자유학기제 1년 과정을 상정한 일관된 커리큘럼의 집대성

- 별도의 ESG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구성 면에서는 각각의 챕터만 다루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있도록 모듈형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학교 사정이나 교사 판단에 따라 1년 전 과정을 ESG 교육에 할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계기별 학습이나 학생회 임원 연수 등 창의체험활동을 통해 비정례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듈형 구성을 통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내용 면에서는 지식의 직접적인 전달을 최소화하고 직접 자료를 찾아보게 하거나 토론 등 탐구학습, PBL학습 위주로 구성

- 다양한 직간접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구성

-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실천 과정을 통해서 환경과 사회와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 실행해볼 수 있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내용들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교사 B :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의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도 많을 것이고 논리적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민 교육이 ESG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또 반론도 마땅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ESG를 추가를 해서 기존의 교육과정에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에다가 추가적으로 ESG를 넣어서 또 별도의 교과서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중심적으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하고 고등학교나 이런 이상으로는 좀 뭐 계기별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희망자 또 아니면 특별 학생회 임원들 같은 또 아니면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원하는 학생들 위주로 좀 ESG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고요.

교사 A :

중학교는 이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좀 1년 정도 한 학기라든가 1년 정도 일관된 어떤 커리큘럼 하에서 ESG 교육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별도의 교과서가 당연히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교과 기존의 어떤 내용들을 재편 재구조화를 해서 교과서를 하나 그래도 1년 과정으로 편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뭔가 이 환경 감수성, 사회 감수성, 참여 감수성을 늘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편성을 하고 뭔가 많은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실천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을 같이 포함하는 내용들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E, S, G 각각의 비중

□ 학교급/학년별/지역별/교과별로 ESG 간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ESG 간 우선순위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음.

○ 지역사회 교육청과 교사진의 관심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성격, 지자체장의 관심 영역 변화에 따라서도 ESG 중 교육의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환경 감수성, 사회 감수성, 참여 감수성을 모두 반영하되, 사회 감수성 비중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교육은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처럼 사실 이미 너무 많다는 평가도 존재함.

- 개발보다는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MZ세대 등 아랫세대로 내려갈수록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당연히 환경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인식은 상당히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E가 과대대표 및 포장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음.

○ 참여 감수성 교육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을 통해서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함.

- 예컨대 학급 회의를 통해서 학교의 어떤 규칙을 정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규칙은 이미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학생들은 따라야 되는 규범으로 선존재함.

- 따라서 참여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성에 대한 근원적인 한계성도 무시할 수 없음.

- 민주주의 선거 등 이미 참여가 보장된 상당한 절차와 제도도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는 현상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음.

□ 비율 구성으로 본다면 환경 감수성, 사회 감수성, 참여 감수성을 각각 1 : 7 : 2 정도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전문가 G :

이제 저는 ESG 교육을 좀 비중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외국도 그런데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이런 얘기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교육은 사실 이미 너무 많아요.

환경 뭔가 개발보다는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지금 세대 아랫세대로 내려가면 당연히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조금 환경보다는 E보다는 이제 S와 G를 좀 더 강조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고요.

근데 이제 G라는 거는 이제 지배 구조 기업으로 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가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참여 감수성의 문제로 연구진들이 바라보신 거는 동의가 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참여라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뭔가 하기가 사실은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학급 회의를 통해서 뭔가 학교의 어떤 규칙을 정할 수 있느냐.

이미 사실은 학교에 입학하면 학생들은 이미 그 학칙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다 우리가 태어나면 국가의 법이 이미 정해진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학칙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부분의 어떤 참여 사실은 근원적인 그런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참여라는 거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나는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선거라는 제도가 모든 국민들한테 권리로서 주어져 있지만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관심한 거죠.

'나는 굳이 피곤하게 내가 직접 나서서 뭘 하고 싶지 않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뭔가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짜고 교육도 하고 그런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S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하고 교육도 S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S라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좋게 말해서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정책 아젠다가 되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상당히 퇴조할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그래도 한 10~20년 정도 많은 새로운 경제 단위들도 많이 생기고 지난 정부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랬던 것들이 상당히 유의미하고 우리 사회의 현 단계에서 아주 필요한 지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환경도 중요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사회도 제대로 잘 짜고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기업이 어떤 이윤을 벌었을 때 지역사회에도 이바지를 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좀 더 많은 목소리 돌려주고 또 당연히 어떤 안전에 대한 이런 요소들 건강에 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 사회적 가치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시 법안을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12+1이라고 하는 게 12가지 뭔가 공동체의 우리 사회를 좀 공동체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12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늘려서 교육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좀 상당히 비중을 그러면 저는 한 70%, 80%까지 S의 비중을 중심에서 둬도 된다고 생각하고 E는 이미 환경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ESG 교육에서는 굳이 안 넣더라도 이미 이제 많은 진행이 되고 이래서 넣는다면 한 10%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20% 정도 짜는 방향에서 교과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로 뭘 한다고 하면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한 70% 정도 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넣는 거죠.

전문가 G :

○ ESG 간 우선 순위

한국은 E가 과대대표 및 포장되고 있는 현실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할 경우 세가지를 골고루 다루되 S가 기본이 되어야 할듯

○ ESG교육 기 실천 사례 소개

E의 경우 이미 재활용품을 활용한 미술품 만들기 등으로 미술, 창체, 방과후

수업에서 오랜기간 많이 진행됨. 하지만 단순히 만들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아,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게 하는 통합적 교육이 필요함. 이런 의미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같은 과목이 좋은 가능성이 될 수 있음

전문가 E :

ESG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학교급/학년별/지역별/교과별로 ESG 간 우선 순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청과 교사진의 관심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SG 간 우선순위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입시가 중요한 학습환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등학교 환경에서 ESG 교육목표/목적을 위해 범교과학습/범교과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입시라는 인프라를 고려할 때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5. ESG교육을 반영할 수 있는 기타 교육 커리큘럼의 모색

1)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에의 반영

□ 기 진행 중인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의 경우 ESG와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기업의 역할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ESG 관점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임.

- 향후에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다거나 취업을 어느 분야로 할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회사를 어떤 지배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기업의 역할이 과거처럼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E와 S와 G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시대적 변화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 진로교육과 경제교육 시 향후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투자 판단의 잣대로서의 좁은 의미의 ESG 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많이 다룰 수도 있을 것임.

- 좁은 의미의 ESG 중 지배구조의 문제는 현재 초중고 수준에서는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렇지만 모의 창업 또는 모의 투자 등의 내용을 진로교육과 경제교육의 커리큘럼으로 반영한다면 이사회, 주주총회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부터 학생들에게 교육이 가능할 것임.

교사 A :

고등학교에서 추가적으로 ESG 교육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진로 교육을 좀 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진로 교육도 별로 이렇게 활성화돼서 진행되는 것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진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 현재 어떤 기업의 위상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현재 오늘날의 어떤 기업 활동에서 ESG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교육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다거나 취업을 어느 분야로 할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회사를 어떤 지배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진로 교육에서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진로 교육은 어떤 지금 이제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ESG.

좁은 의미의 어떤 ESG 교육 내용들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해서 투자를 받아야 될 때 그 투자를 하는 이제 자본을 가진 그런 회사,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어떤 이제 뭔가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들 그런 요소들은 당연히 고려를 하지만 환경이라든가 기업이 환경에 임하는 태도 환경을 실천하는 사회적인 가치를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 또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가 지배 구조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학생들은 이사회라든가 사실 학생들 주주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런 개념들도 지금 사실은 교육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내용들을 하면서 그런 ESG와 관련된 교육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래도 진로 교육을 통해서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창의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서 ESG 교육을 구현)

교사 A :

진로교사 연수가 매년 있음.

진로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ESG교육을 넣는 것으로 진로교사는 학생들에게 기업, 경영, 금융, 환경 분야의 진로에 대한 수업을 할 때 ESG교육을 하면 좋을 듯 같은 의견입니다.

교사 C :

저는 창체 진로 시간의 경우는 위에 기술했고, 진로 수업 시간에 진로 교사가 다양한 직업 소개를 하면서 ESG교육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진로 교사에게 사전 연수가 시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수업 자료가 제공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학생의 진로 적성을 찾아 가는 과정 수업입니다.)

2) 창의체험활동에의 반영

□ 동아리, 봉사활동, 학생회임원연수 등의 ESG교육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 학교 별 ESG 동아리 개설

- ESG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안 검토
- ESG동아리 성과공유회 등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학생참여 유도
- 참여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 부여(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
- ESG 동아리의 개설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동아리 1년 과정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1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생회나 환경 관련 동아리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과학이나 사회문제 탐구 동아리의 활용

- 프로젝트 형식으로 ESG 연구 유도
- 동아리에서 활동한 작품이나 논문 등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고 수상으로 연결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임
- 자소서 활용을 통한 동기 부여

(창의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에서 ESG 교육 구현)

교사 A :

각 학교별로 ESG동아리 필수 개설

ESG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안

ESG동아리 성과공유회 등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학생참여 유도 / 참여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 부여(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

교사 D :

ESG 교육 내용을 동아리 1년 과정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1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생회나 환경 관련 동아리에서 운영하도록 함

교사 C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ESG 동아리를 운영해도 좋고, 과학이나 사회문제 탐구 동아리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연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서 활동한 작품이나 논문 등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고 수상으로 연결되면 파급 효과가 큽니다. 개인에게는 자소서에 넣을 수 있게 되면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 봉사활동에서 ESG 구현

- 봉사 시간에 ESG교육(강사진 강의, 영상)을 학기당 1회 필수로 삽입하는 방안 검토

(창의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에서 ESG 교육을 구현)

교사 A :

봉사활동도 1,2,3학년 동일시간에 동시에 진행됨

주로 학급환경봉사가 주로 이루어짐 - 1년에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봉사시간은 10시간 이내임

봉사 시간에 ESG교환경교육(강사진 강의, 영상)을 학기당 1회 필수로 넣을 수 있게 하면 좋을 듯

교사 D :

같은 의견입니다.

교사 C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창체 시간에 담임 교사가 자율, 봉사, 진로 모두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방식은 같은 형태로, 내용은 분야에 맞는 활동을 추가하는 형태로 수업을 구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소비자교육의 검토

□ 소비자교육에서 ESG 관점의 교육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이미 학교교육을 통해 별도의 ESG 관점의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ESG 관점의 소비 활동은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고 판단됨.

○ 노동자 탄압, 노동 착취, 환경 오염 유발, 지역사회 무관심 등 기업들이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졌음.

○ 이미 환경, 사회, 참여 관점에서 가치지향적인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는 이른바 '착한 소비'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임.

전문가 G :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조를 못하게 하고 임금을 덜 주고 산업재해가 나서 그냥 조금 보상해주는 걸로 끝내고 돈만 벌면 된다 이런 기업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나라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운동화를 만들어서 싸게 판다 그렇

게 그런 걸 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는 거죠.

약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제대로 정당하게 노동자들도 이제 뭔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큰 방향에서 가는 거는 사회 운영 원리라고 하신 표현도 적절해 보이고 그렇게 쓰더라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6. ESG 교육의 방법

1) 교사의 자율성과 ESG 교육

□ 중학교 자유학기를 비롯한 여러 교과에서 ESG교육은 가능하겠으나 의무화기보다는 교사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ESG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 및 교사의 재량권을 적극 인정하더라도 교사 연수 등을 통한 학교 현장의 ESG에 대한 이해도는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전문가 E :
교사들에게 ESG/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ESG 간 우선순위 및 ESG 교육과정 개발 및 방향(안)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FGI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사 A :
기타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계기 교육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교사들이 뭔가 좀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건 또 교육청에서 뭘 정해서 계기 교육을 하라 이렇게 하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안 넣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문가 F :
지금 우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논리인지에 대한 각 개인, 조직, 기업, 교육기관, 단체, 정부의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급 학교 또는 교사 개인 각자가 ESG교육을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 어떻게 할지 방법에 대한 모색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율성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받아들여도 될는지요?
네 ESG를 모두가 전면 교육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ESG교육을 실행하는 데서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필요한 것
교사 연수(교사 C :사회과, 과학과, 진로과 교사 연수에 ESG교육 분야 추가) 기타
교사 B :
교사원격교육연수원에 ESG교육 연수 개설(티처빌, 경기교육연수원 등)
다양한 ESG교육 영상 배포(교사가 학급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영상으로)
교사 D : 같은 의견입니다.

2)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용

□ 학교 현장의 일선 교사들은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용에 대한 요구성이 높은 편임.

○ 이미 기존의 교사의 업무가 중과한 상태에서 시대적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주제의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 교사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작, 전문강사의 파견 등이 가능한 외부 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ESG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학교에서 ESG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곳으로는 넓은 의미의 ESG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미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곳을 위주로 판별해야 할 것임.

○ ESG 교육을 표방하는 대부분의 연구교육기관들은 좁은 의미의 ESG 곧, 투자자 관점의 ESG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교사 B :

아무래도 외부에서 뭔가 이런 어떤 특별한 주제들은 기존의 정규 교과들을 원래 교사들이 맡고 있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미 좀 일이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부 전문 관련된 기관들에서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 좋은 강의 영상 콘텐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교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시를 해준다면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통일교육같은 경우에 보면 통일교육원이라는 통일교육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이제 우리 한반도 분단의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전문 통일교육 강사로 육성도 되고 있고 많은 영상물들도 만들어 놓고 있고 자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교사들이 학교에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ESG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들 대학들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런 데에서 조금 뭔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해주는 그런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ESG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체 관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니까 학교에서 그대로 쓰기는 쉽지가 않고요.

또 좁은 의미에서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기준 같은 것은 학교에서 미리 굳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ESG가 어떤 생활의 운영 원리 사회의 우리 사회를 어떤 구성하는 가치적인 기준으로서 돌아가는 원리 차원으로 좀 재가공화 해내는 그런 기관들 그런 콘텐츠들 그런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리스트 업을 해준다든가 인재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학교에서 또 교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와 현직 교사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에서 교육들이 진행이 되면 곤란한 거죠.

교사 A :

ESG 강사진(교육 받은 교사나 전문 강사진) 구성 - 자율시간에 각 반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구조

중, 고등같은 경우에는 1,2,3학년이 금요일 5,6교시 등을 이용하여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돌아가는 구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활동의 대부분은

각 학습주제별로 강사 한 분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거나,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가장 교육 효과가 좋은 경우는 강사분이 각 교실에 들어가서 한 학급을 맡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고로 학교별로 지정된 날에 ESG 강사분 최소 5분 정도 오셔서 동시에 각 학급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한 분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2학급 정도 시청각실에서 강사분과 대면해서 강의를 듣고, 나머지 전교생들은 영상으로 듣는 구조)는 학습효과가 많이 떨어지므로 강사진만 많이 구성된다면 팀으로 와서 여러 반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단,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나머지 반은 영상으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 D :

같은 의견입니다.

교사 C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창체 진로 교육 시간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1년에 10시간 책정되어 담임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로 관련 내용을 담아 자율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사 D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잘 만들어 배포 한다면, 어느 시간이든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좋게습니다.

교사 C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회과나 과학과와 연계하는 프로젝트 수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과후 수업반 개설, 운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ESG 교육 대상 학생의 범위

□ 대상 학생 범위의 단계적 확대

○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1년 과정을 기본으로 한 ESG 교육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 대상 학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학교 현장에서 순수하게 희망자만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것도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교별 교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동아리, 학생회 임원 연수 등 소수의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SG 교육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영 등 좁은 의미의 ESG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SG교육은 그 효과성이 더욱 뛰어날 것으로 판단됨.

교사 B :

전교생(자율활동 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능할 듯 / 흥미롭게 진행할 강사진이 있으면 가장 좋고 / 현재 학교에서는 영상 자체만 재미있게 구성된다면 전교생에게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학생회 임원(리더쉽연수 / 간부수련회 세미나 영역 - 가장 효과가 좋을듯)

동아리, 청소년단체(ESG동아리/ESG청소년단체 - 문과학생들 / 경제, 경영, 환경, 산업, 사회학 등 진로를 정한 학생들에게 반응 좋을듯)

희망자(경기꿈의대학 등에 강좌를 개설하여 희망을 받는 방법도 매우 반응이

좋을 듯)
// 가장 반응이 좋고, 교육효과가 좋은 대상이 있겠지만, 전교생부터 희망자까지 모두 교육은 가능할 듯

교사 C :
학급별 참여(일회적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급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두 학급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험관이 있거나(다른 체험관이나 실험실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대절 가능하면 신청을 많이 함.)

교사 D :
어느 시간에 하는지에 따라 학생범위는 다 다름. 같은 의견입니다.

Ⅷ. 결론

□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말로 원래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함께 진행하자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나 좁은 의미를 넘어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까지 ESG의 의미는 확장되고 있음.

□ 넓은 의미의 ESG 곧,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까지 ESG의 의미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가치 교육, 특히 기존에 정규 교과 이외에 이미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ESG교육의 관계를 해명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본 연구를 진행함.

□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는 ESG는 크게 지속가능성 도시 비전으로서의 ESG과 기업 역할의 적극적 확장으로서의 ESG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은 가치교육의 일환으로서 사회교육, 도덕교육 등 정규 교과에서 가치교육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제기된 부가적 가치교육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회적가치교육 등 제반 가치교육과 그 연계성에 대해 아직 학계의 논의는 많지 않으나, 본 연구를 통해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 제반 가치교육을 포괄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ESG의 범주로 재편하여 ESG 교육을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 재구조화함.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나타난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은 ESG 관점에서 평가하면 실질적으로는 G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적 맥락에서 12+1의 사회적 가치로 나타나 그 실현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법제화까지 시도되고 있어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 곧 사회 전반의 운영 원리로서의 ESG교육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포괄하여 재구조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외국의 사례나 관련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ESG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나 벤치마킹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ESG교육은 좁은 의미의 ESG 개념에 따라 경영학적 접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나마 넓은 의미의 ESG교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임.

□ 외국의 참고 사례도 없고 학계의 선행연구도 없어 본 연구는 시민교육과 ESG교육의 관계성을 해명한 세계 최초의 교육으로 자평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회적가치교육, 기타 제반 가치 교육을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으로 포괄한 후 이를 사회운영원리로서의 ESG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치교육으로서 ESG교육을 자리매김하고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에 포괄되는 내용들을 ESG교육의 범주에 맞추어 재범주화하면 ESG 교육을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역 구분에 따라 환경 감수성 교육, 사회 감수성 교육, 참여 감수성 교육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교육에서 ESG교육의 총적인 방향성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함

○ 내용적 방향성 : 가치교육의 ESG 관점의 범주 재편

○ 영역적 방향성 : 정서지능과 연계된 ESG 감수성 교육을 통한 사회 운영 원리의 습득

○ 교과적 방향성 :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재편을 통한 ESG교육의 실행

○ 학교급별 방향성 : 중학교 중심의 ESG교육이 바람직

□ ESG 감수성 교육의 역량 요소는 관심역량, 공감역량, 행동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ESG 관점에서 재편하되, 독자적인 교과서를 편찬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함.

□ 환경 감수성, 사회 감수성, 참여 감수성을 모두 반영하되, 사회 감수성 비중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음.

□ ESG교육을 반영할 수 있는 기타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에의 반영, 창의체험활동에의 반영을 들 수 있으며, 소비자교육에서는 그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

□ ESG 교육에서 방법적인 차원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며, 희망자를 우선시하는 ESG 교육 대상 학생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 ESG감수성 교육은 정서지능 및 공헌역량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해명할 필요성이 있음.

□ 당면하여 필요한 후속 연구는 본 보고서가 정립한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과서 커리큘럼의 구체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

〈 참고 문헌 〉

■ 단행본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중소벤처기업부(2021. 11. 23.).

EBS 엄마도 모르는 우리 아이의 정서지능 제작팀, 『아이의 정서지능』, 지식채널, 2012.

Trista Bridges , Donald Eubank 지음, 정태용 , 유연철 , 김정훈 옮김, 『지속가능하게 리드하라』, 박영사, 2022.

강대현·설규주, “사회과 가치교육의 방법과 전략 -가치교육 방법의 종합적 활용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Vol.46 No.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4.

강현석, 『교과교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 교과학의 이론과 실제 - 』, 서울 : 강현석, 아카데미프레스, 2006.

권오정·김영석, 『사회과교육학의 구조와 쟁점』, 서울 : 교육과학사, 2005.

권오정·김영석, 『사회과교육학의 구조와 쟁점』, 서울 : 교육과학사, 2005.

권재열 , 김정수 , 김호준 , 박종철 , 박청규 , 배도 , 최승재, 『ESG 레볼루션 지속가능경영의 절대조건』, 캐피털북스, 2022.

김용련 외,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세계적 동향과 전망』, 살림터, 2019.

김태정, 심성보, 『시민이 만드는 교육 대전환 교육혁명으로 가는 길: 김태정이 묻고 심성보가 답하다』, 살림터, 2022.

김혜자 외, 『민주학교의 탄생 민주시민을 향한 삶과 배움이 꽃피는 공간』, 생각정원, 2021.

김화진, 『이사회경영 ESG와 기업지배구조』, the bell(더벨), 2022.

리베카 헨더슨 지음, 임상훈 옮김, 『자본주의 대전환 하버드 ESG 경영수업』, 어크로스, 2021.

린 스타우트 지음, 우희진 옮김,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주주 최우선주의는 왜 모두에게 해로운가』, 북돋움coop, 2021.

문용린, 『문용린 교수의 정서 지능』, 북스넛, 2011.

배종석 외, 『ESG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경영 기업은 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클라우드나인, 2021.

소셜혁신연구소, “서울특별시의 ESG경영지원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의회 연구용역, 2022.6.

심성보, 『교육과정에서 왜 지식이 중요한가 지식의 소환을 위한 비판적, 사회적 사실주의 담론』, 살림터, 2020.

심성보, 『도덕교육의 새로운 지평』, 서현사, 2008. (심성보, 2008a)
심성보,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 가치혁명을 구현하는 새로운 교육철학』, 살림터, 2014.
심성보, 『민주화 이후의 공동체 교육 한국교육의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찾아서』, 살림터, 2008. (심성보, 2008b)
심성보,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평화 인권 참여의 학습을 통한 민주적 시민 되기의 길잡이』, 살림터, 2011.
심성보, 『한국 교육의 현실과 전망 세계교육의 담론과 운동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살림터, 2018.

알렉스 에드먼스 지음, 송정화 옮김, 『ESG 파이코노믹스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동시에 창출하는 전략』, 매일경제신문사, 2021.
알렉스 에드먼스, 『ESG 파이코노믹스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동시에 창출하는 전략』, 매일경제신문사, 2021.
에다 샌트 외, 『세계시민교육 주요 개념과 논쟁에 대한 비판적 접근』, 다봄교육, 2021.

이관휘,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한국 기업에 거버넌스의 기본을 묻다』, 21세기북스, 2022.
이길상, 『한국 교육 제4의 길을 찾다』, 살림터, 2019.

임팩트 스퀘어, 『ESG 관련 글로벌 동향 및 사회적 가치 연계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1. 10.)
정원오, 『지속가능도시, ESG - ESG에 Economy를 더해 지속가능도시를 탐구하다』, 서울 : 라이스메이커, 2021.
케르스틴 폴 외,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토, 2018.

■ 연구논문

강운선, “사회과에서 범교과 학습의 맥락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현 가능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1 No.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1.

강현석·전호재, “교육과정 개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4 No.1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4.
김경령, 서은희, “대학생을 위한 젠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 성차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김세림, “무화과의 소수자적 관심을 활용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Vol.15 No.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21.
김수연, 김석주,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0.

김수정, “K-ESG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ESG 관련 국제표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울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김아영·차우규,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방안 연구”, 초등도덕교육 No.63,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9.

김용훈, “헌법적 수준에서의 ESG의 함의와 정책 방향 소고 : 유럽연합의 ESG 정책을 참고하여”, 『유럽헌법연구』 No.36, 유럽헌법학회, 2021.
김현주, “장소감과 환경 교육-환경 감수성으로서의 장소감의 환경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Vol.6 No.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김화경, “교양교육에서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 교양교육연구 Vol.8 No.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나춘기,정미라, “유아교사의 교직경력과 환경친화적 교육태도의 관계에서 환경감수성과 환경교육 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Vol.20 No.1,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21.
박성희, “예비교사용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1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박영주,노희정,정원영, “초등 도덕과와의 연계를 통한 범교과 학습주제 현장적용 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No.55, 한국윤리교육학회 2020.
박형빈, “나바에츠(D. Narvaez)의 윤리 감수성(Ethical Sensitivity)에 기초한 통일감수성 교육 방안”, 통일교육연구 Vol.18 No.1, 한국통일교육학회, 2021.
박희경·최진영·이경진,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범교과 학습 관련 교육과정 문서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Vol.32 No.4, 한국교육과정학회, 2014.

백기웅, “기관투자자의 ESG 스튜어드십 코드 법적개선 연구 - 글로벌 ‘K-Governance’ 모델로서 ESG 경영에의 적극적 역할 모색”, 『법과기업연구』

Vol.11 No.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재복,장효순, “놀이와 독서를 활용한 초등학생 다문화감수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교육종합연구 Vol.16 No.2, 교육종합연구원, 2018.
서혜정, 정하나, “아동 권리 감수성 교육을 통한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幼兒 敎育學論集 Vol.24 No.3,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0.

안수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 -”, 『경제법연구』 Vol.20 No.2, 한국경제법학회 2021.
안운호, “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통한 범교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안”, 사회과교육 Vol.60 No.2,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21.
양윤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범교과 학습 주제 현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6 No.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왕관은·박창언, “범 교과 학습주제의 한계 논의”, 통합교육과정연구 Vol.9 No.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5.
우석규·남상준, “환경감수성 함양을 위한 특활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16 No.4,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8.
유미호, “교육으로 만나는 목회 : 생명을 살리는 환경교육 ; 생태감수성을 일깨우는 자연체험”, 교육교회 Vol.379,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9.
이병호, “통일 교과 개설의 필요성 - 범교과학습주제로서 한계”, 통일교육연구 Vol.18 No.1, 한국통일교육학회, 2021.

이시연, “ESG 투자 위험의 증가와 정책적 시사점”,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0, 한국금융연구원, 2021.

이시연, “국내외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KIF 금융조사보고서』 Vol.2021 No.1, 한국금융연구원, 2021.
이윤희, “관계적 역량 강화를 위한 평화감수성 교육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Vol.55,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8.

이은선, “사회적 가치와 ESG개념과 전개”, 한국법제연구원 6차 ‘사회적가치 법제포럼’(21. 3. 26.).
임선일 외, “초·중등학교 다문화감수성교육의 한계와 다양화 방안 모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8 No.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장미연, “3-5세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생태적 감수성’ 관련 교육활동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Vol.16 No.1,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7.

장윤제, “국내 ESG 평가기관의 환경, 사회 평가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6차 ‘사회적가치 법제포럼’(21. 3. 26.)
장현정,우신영,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Vol.25

No.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정미라, 나춘기, “유아교사의 환경교육 직무연수와 환경친화적 교육태도의 관계에서 환경감수성과 환경태도의 매개 및 조절 효과”, 環境 敎育 Vol.33 No.4, 한국환경교육학회, 2020.
정영철, “행정법과 ESG”, 『연세법학』 Vol.38, 연세법학회 2021.
정준혁, “ESG와 회사법의 과제”, 『商事法硏究』 Vol.40 No.2, 한국상사법학회, 2021.
조상연, “우리나라 범교과 학습의 개선 방향 논의”, 인격교육인격교육 제14권 제1호, 한국인격교육학회, 2020.
천수연,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문화교육 현황과 문화간 감수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 영문문헌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Highlights from the 2022 Honorees. U.S.A.
European Commission (2022). Council Recommendation on learning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aff Working Document. Brussels, B-1049
European Union (2021). EU Actions for “ESD for 2030”.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and its administrative branch, Finland
Department for Education (2022).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a strategy for the education and children’s services systems,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UNESCO (2019).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beyond 2019. Paris: UNESCO 2019
UNESCO (202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Roadmap. #ESD for 2030.Paris: UNESCO 2020.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802
Jörg-Robert Schreiber and Hannes Siege (2016). Curriculum Framework,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anding Conference of the German Ministers of Education and Culture (KMK)

and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NYTimes (2021.11.13.) 'Business Schools Respond to a Flood of Interest in E.S.G.'
https://www.nytimes.com/2021/11/13/business/dealbook/business-schools-ESG.html
핀란드 직업훈련기관 글로벌 네트워크
https://vamia.fi/en/global-networks-financed-by-the-finnish-national-agency-of-education (최종접속일: 2022.8.9.)
핀란드 직업교육훈련기관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finvet.fi/en/kevaverkosto (최종접속일: 2022.8.9.)
베를린자유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fu-berlin.de/en/sites/nachhaltigkeit/index.html (최종접속일: 2022.8.10.)

■ 기타

이선경 (2018).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2018 유네스코 ESD 정책포럼 자료집. pp15-2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202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2022.1.).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2년 1/4분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나무위키.
네이버 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교육부(2018. 11.).
이로운넷.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앙일보.